

SEOUL
MY SOUL



서울디자인자산

Seoul Design Assets Vol. 2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
디자인자산

Seoul Design Assets
Vol. 2

서울특별시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디자인 자산

Seoul Design Assets
Vol. 2









서울디자인자산 Vol. 2를 펴내며

Seoul Design Assets:
Rediscovering Seoul

서울은 잠재력으로 가득한 용광로입니다. 창의성과 가능성, 고유의 아름다움을 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첫 번째로 '세계 디자인 수도(WDC)'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에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와 교류하며 대표적인 디자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울디자인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2008년에 설립된 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며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자산은 디자인 도시 수도, 서울의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시도입니다. 2009년 처음으로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선정했으며, 2022년 새로운 디자인자산 40선을 추가 선정하여 유·무형 자산 가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성과 디자인 가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두고 1차와 2차에 걸쳐 선정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서울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남긴 유·무형의 가치를 '서울성'으로 명명하고, '서울다움'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2022년 디자인자산에는 2012년 미발표 선정 자산 28선을 비롯하여 500여 선 후보가 취합되었으며, 예비심사와 자료 수집, 본 심사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디자인 가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긴 탐색 끝에 얻어진 결과가 디자이너를 비롯한 예술인에게 유익한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600년 서울의 디자인 역사를 재발견하는 과정이자, 오직 서울만의 디자인적 차별성을 탐구하여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의 디자인 우수성을, 서울의 무한한 잠재력을, 서울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세대들에게도 그 정신이 계승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서울성'이라는 개념에는 정립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서울의 자산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채워가고자 합니다. 긴 탐색의 끝에서 서울디자인자산을 토대로 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이 벌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Seoul is a blast furnace of flourishing potential. It continues to grow with creativity, possibilities, and its own unique beauty. In recognition of its outstanding design value, Seoul was the global-first city to be named “World Design Capital (WDC)” and in the same year, selected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Design.” Seoul is evolving into a prominent design city by interacting with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s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Established in 2008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s committed bringing about a better life for Seoul citizens fulfilling its mission: improving Seoul’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ffusion of design culture.

Seoul Design Assets(SDA) is a project to take a deep look at the various values of Seoul, the World Design Capital. Starting with the selection work of 51 Seoul Design Assets in 2009 and subsequently adding 40 new design assets in 2022, SDA tried to establish an empirical ground for excavating and refin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 of those assets. To discuss “Seoulseong”, Seoul’s design values, and its global competitiveness, it held selection meetings twice. “Seoulseong(meaning ‘quality of Seoul’)", which was suggested in those meetings, is a key notion to represent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that Seoul’s history, present, and future have

constituted. And also “Seouldawoom(meaning ‘desirable traits of Seoul’)" is another important notion to find out what unique characteristics of Seoul would be. When design assets were selected in 2022, more than 500 candidates were collected, including 28 assets selected yet unannounced in 2012. Historical facts and design values related to each candidate, then, were carefully reviewed in the process of preliminary screening, data collection, and main screening. SDA hopes that the result of careful and thorough examinations for selecting design assets would be helpful resources for designers and other artists. Moreover, it expects that this project can be a course for rediscovering the 600-year design history of Seoul, and a basis for presenting the vision of Seoul, the World Design Capital, by seeking the distinguished design only Seoul can display. This project could be the key to blooming Seoul’s design excellence, infinite potential, and glorious future. It will be more than a blessing if this spirit can be inherited by the next generations eventually.

The notion of “Seoulseong” still has enough room for further investigation. Seoul Design Foundation will continue to explore and discover Seoul’s assets pursuing answers to the question, “what Seoulseong is.” At the end of a long research, hopefully, creative and innovative accomplishments will emerge with Seoul Design Asset as a stepping stone.

서울 디자인, 서울성을 말하다

Seoul Design,
Thoughts on Seoulseong

한 도시의 디자인자산을 정하는 일은 무척 까다롭다. 물론 한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합의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의 경우, 그것이 한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서울디자인자산 40선 중에도 공간적으로는 서울에 있으나 한국의 디자인자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흔 가지 자산은 여러 사람이 심사숙고하여 정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목록일 수 없다. 다른 시선으로 얼마든지 또 다른 목록이 작성될 수 있다. 그러면 자산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재로 또 소비 공간으로만 알던 것을 '디자인자산'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공기처럼 일상에서 숨 쉬는 자연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브라운(Braun) 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디터 램스(Dieter Rams)가 "디자인은 영국 집사(butler) 같아야 한다. 필요할 때는 옆에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배경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결국 일상의 사물이 미술관의 전시대에 올려졌을 때 그 가치를 달리 보게 되듯이, 이번 서울디자인자산 목록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디자인을 새롭게 주목하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갖게 해줄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한 공동체의 동질성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을 떠나서 살더라도 서울의 기억을 공유할 때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기억의 문제는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가 제시한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 개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방대한 연구들을 모아 '커피', '마르셀 프루스트'와 같은 130여 가지의 구체적인 사물, 장소, 개념들이 현대 프랑스의 가치를 지탱하는 문화기억에 대해 기술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억 구조가 폐쇄적이고 단일한 형태라기보다는 다중적인 복수의 기억들이 공존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나아가 '기억의 장소'라는 것도 사실은 기억의 흔적, 또는 잉여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오로지 해석에 의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파리의 팀테옹(Panthéon)이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기념할 만한 유서 깊은 장소여서가 아니다. 프랑스인들이 오래도록 그것을 통해 민족적 기억을 가꾸어왔던 흔적이라는 측면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기억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는 매개체가 바로 기억의 장소라는 뜻이다.

한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시리즈를 쓴 유홍준은 최근에 출간한 그 시리즈의 서울편 머리말에 "자랑과 사랑으로 쓴 서울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서울이 고향인 그가 서울 사람으로 태어나 서울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에 자랑만 담진 않는다. "최고와 최하가 공존하는 도시이고 그만큼 모순과 격차가 많은 도시"라고 정의하면서 그럼에도 동질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미술사학자인 그는 문화유산에서 답을 찾은 것이다. 아마도 서울이 다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많은 디자이너와 연구자가 모인 도시이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은 디자인 경험을 할 텐데 그렇다면 디자인 문화의 시각으로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다만, '자산'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생각할 때 유념할 점이 있다. 자산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된다.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도 내가 속한 집단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적용된다. 즉, 포함과 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유대감이 자칫하면 다른 공동체와 경쟁하고 타인과 차별하는 구도로, 나와 우리의 우수함을 주장하는 모양새를 띄곤 한다. 〈소속된다는 것(Belonging)〉의 저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Montserrat Guibernau)의 표현에 따르면, 소속에는 독특한 풍경에 대한 애착도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소속의 정서에 강력한 감정적 차원이 붙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

따라서, <서울디자인자산>에도 이런 면이 없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유홍준의 표현 중에서 '자랑'은 있으나 '사랑'은 없는 서울 이야기로 보인다. 전통적 사회구조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소속감을 상실하고 민족주의에 끌리게 된다는 귀베르나우의 설명을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디자인의 개념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고 전통과 현대의 가치에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 타자에게 내세울 만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이다.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미를 발견하는 움직임이 없이 짧은 시간에 자산을 목록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모순과 격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질감을 갖게 할 무엇인가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말하는 ‘마음의 공간’, ‘마음의 장소성’을 끌어와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바슐라르는 “내밀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내밀성의 공간 내에서 장소를 찾아내는 일(localization)이 낱짜를 밝히는 일 이상으로 긴급하다.”고 하면서 시간에 기반한 전통적인 역사성에 도전했다. 게다가 장소는 물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장소로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어떤 이미지와 관련한 장소의 의미를 바슐라르는 ‘지복의 공간(felicitous space)’이라고 불렀는데 이 공간은 측량 엔지니어의 ‘무관심한 공간’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간 연구에 흔히 등장하는 ‘장소애(場所愛, topophilia)’를 갖게 해준다. 이미지에 대한 사랑은 장소 분석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므로 서울의 이야기, 서울성, 서울 디자인은 서울이라는 심리적 공간에 대한 분석과 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뛰어난 연구자, 권위 있는 누군가가 몇 가지를 지정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은 21세기이며 동시대의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디자인자산을 다룬 경험들이 한국 사회와 디자인 분야에 존재한다. 무엇이 맞고 틀리냐는 논의보다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가치화되고 위계적으로 구성된 기억과 자산의 개념이 당대의 의미 있는 아카이브로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서 서울의 디자인 이야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피에르 노라를 비롯한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들은 공식 역사가 하나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가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고 다양한 미시 기억들이 공존하는 역사 기술 방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서울디자인자산> 사업이 해가 바뀌어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목록이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지고 가치가 재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목록이 다음에는 어떻게 인식되는지 재평가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면 다양한 미시 기억들, 동시대적인 디자인 이야기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의 디자인자산을 발굴하는 것은 서울 시민과 디자인 전문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서울의 이야기, 문학으로 돌아보는 서울의 이야기처럼 디자인으로 또 다른 결을 찾는 것은 서울의 풍부한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찾고 가꾸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It is quite challenging to select the design assets of a city, and also challenging when it comes to a country, of course.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t common standards in the first place, and even more difficult to select design assets of a certain cit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ir significance is not limited to just one region. Among the 40 Seoul Design Assets, some subjects can be considered as Korean design assets even though they are spatially located in Seoul. The 40 design assets described in this book surely are a fine collection after careful consideration by plenty of people, but it does not mean they are the ultimate list under every circumstance. Various kinds of lists can be sugges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Then, what is the task of picking out several design assets for?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hat it has created a perspective that approaches design from the term of assets. Something we see only as a cultural property or consumption space can be revised and reconsidered as “design assets.” It might be controversial but design is basically a natural and alive part of our everyday life like air. In other words, as Dieter Rams, former head designer at Braun put it, design ought to be “a good English butler: always available, but never intrusive.” As only when everyday objects are placed in the showcase of art museums can we see their value in unfamiliar ways, this list of Seoul designs assets will afford bright opportunities to take a fresh look and pay closer attention to design abundant in Seoul.

On the other hand, the common ground of a community is formed by sharing memories as much as by sharing physical space. Even if you leave Seoul and live elsewhere, you still keep common ground as long as Seoul remains your memory. The relation between community and memory can be inspired by French historian Pierre Nora’s concept, “lieux de memory(site of memory).” He collected over 130 specific objects, places, and concepts such as ‘Coffee’ and ‘Marcel Proust’, from a vast range of research and described cultural memory that support the values of modern France.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the memory structure is composed of multiple and coexisting memories rather than homogeneous and closed ones. Furthermore, he argued that ‘site of memory’ is actually nothing more than traces or remains of memory, and it definitely needs interpretations to get respective meanings. Pantheon in Paris, for example, can be a site of memory not simply because it is a historic place worth commemorating, but because it is a trace which has let the French cultivate the national memory for a long time. In other words, the site of

memory is the medium that evokes memories about the memory.

Yu Hong-joon, the author of the well-known series *My Cultural Heritage Explorer*, titled “Tales of Seoul Written with Pride and Love” to the preface of the recent book of the series, “Seoul.” As a Seoulite who was born and has lived his entire life in Seoul, he wanted to tell a story of his hometown and his life there, he said. That does not mean it is just all about bragging about Seoul. While defining it as “a city where the best and the worst coexist, accompanied by a lot of contradictions and disparities”, he still pursued to explain what could make Seoulites have common ground, and as an art historian, he found its answer in cultural heritage. Because Seoul is abundant in as many designers and researchers as any other major city and its citizens may enjoy plenty of design experiences as much, tales of Seoul can be told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culture as well.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heavy notion of ‘assets’,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assets have self-centered characteristics. Discovering the common ground of one’s community also means establishing its identity which is built on the basis of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tiations. That is, identification tends to result in including something and excluding others, and the sense of belonging to a certain community has a risk to create competing and discriminating relations to other communities eventually, only asserting its own superiority. As Montserrat Guibernau, the author of *Belonging*, also mentioned that belonging includes an emotional attachment to one’s unique landscapes, the foregoing attests that the sense of belonging attaches to a strong emotional dimension.

The Seoul Design Asset also has this aspect. Borrowing Yu Hong-joon’s expressions, it seems to be a tale of Seoul written “with Pride” but no “Love.” According to Guibernau, individuals who think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are collapsing, tend to lose their sense of belonging and are drawn to nationalism. Likewise, when the concept of Seoul Design is still unstable and the burden of capturing both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is quite heavy to bear, something that may promptly appeal to Others can be offered as a temporary solution. It is bound to have limitations to create a list of design assets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constant search and discovery of its meaning. That is, it is difficult to imagine something which makes people share a sense of belonging as long as they do not acknowledge the “contradictions and disparities” of their community.

In order to reconsider this issue, it might be helpful to draw on philosopher Gaston

Bachelard’s notion, “space of heart” and “placeness of heart.” He challenged the traditional historicity based on time, saying, “In order to know intimacy, localization within the space of our intimacy is more urgent than finding out the date.” In addition, he argued that a place does not have to be physical, if not, it can still be regarded as a place.

Bachelard signified a place involved in a certain image a “felicitous space”, which is the “space we love” in contrast with the “indifferent space” of a surveyor. As a result, it provides us with “topophilia(love of space)” that often appears in the study of the sites. Since the love for imagery goes hand in hand with the analysis of the space, the tales of Seoul, Seoulseong, and the Seoul design should be accompanied by analyses of Seoul as a psychological space. The way some refined intellectual or some pundit monopolizes all that opportunities to select design assets is anachronistic. By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and design fields have accumulated experiences dealing with cultural heritage and design assets based on contemporary perceptions. It may be more important to keep track of what you remember, what you have in mind, and how much you understand its significance rather than to argue what is right or wrong.

If so, the concept of memories and assets which is given meanings and hierarchy will make a substantial archive of the time, then design stories of Seoul can be composed of it gradually and naturally. And, of course, people are willing to listen to those stories. Many scholars, including Pierre Nora, tried to develop a theory that established the foundation to describe history where various micro-memories coexist away from the idea that official history should integrate into one.

In the years to come, Seoul Design Assets may suggest a new list in a different way because frames of reference would change and the values of design would be rediscovered over time. If the story continues, however, reevaluating how the former list can be perceived in the light of new perspectives, various microscopic memories and contemporary design stories will still be able to gain sympathy. Discovering Seoul Design Assets is undoubtedly a meaningful work for both Seoul citizens and design experts. Like the stories of Seoul by historians and the stories of Seoul through literature, finding another dimension through design will help to portray the affluent and multi-layered features of Seoul. Just as any other public design project, this requires constant endeavors to seek and nurture the beauty of its community.

목차 Contents

010	머리말 Introduction: Seoul Design Assets: Rediscovering Seoul
014	서울 이야기 Seoul Design, Thoughts on Seoulseong

고궁 Palace

024	운현궁 Unhyeongung Palace
030	창경궁 Changgyeonggung Palace

건축 Architecture

038	63빌딩 63 Building
04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ongdaemun Design Plaza (DDP)
050	서울 구 공간사옥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Seoul
056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062	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068	김포국제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074	대한의원 Daehan Hospital
080	롯데월드타워 Lotte World Tower
086	명동예술극장 Myeongdong Theater
092	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098	전쟁기념관 War Memorial of Korea
104	정동교회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110	청와대 Cheongwadae
116	코엑스 Coex
122	한국은행 본관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128	환구단 Hwangudan Altar

마을 Village

136	남산골 한옥마을 Namsangol Hanok Village
142	돈의문 박물관 마을 Donuimun Museum Village
148	세빛섬 Sebitseom

거리 Street

156	덕수궁 돌담길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162	서대문 독립공원 Seodaemun Independence Park
168	서울숲 Seoul Forest Park
174	서촌 Seochon Village
180	익선동 Ikseon-Dong
186	정동 Jeong-dong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194	이순신장군동상 Statue of Admiral Yi Sun-sin
-----	--------------------------------------

시장 Market

202	남대문시장 Namdaemun Market
208	동대문시장 Dongdaemun Market
214	서울풍물시장 Seoul Folk Flea Market
220	서울약령시 Seoul Yangnyeongsi Market

교통 Transportation

228	남산 케이블카 Namsan Cable Car
-----	--------------------------

시각 Visual Feature

236	혜원풍속도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242	꽃담 Flower Walls

공연 Performance

250	송파산대놀이 Songpa Sandae Nori (Mask Dance Drama of Songpa)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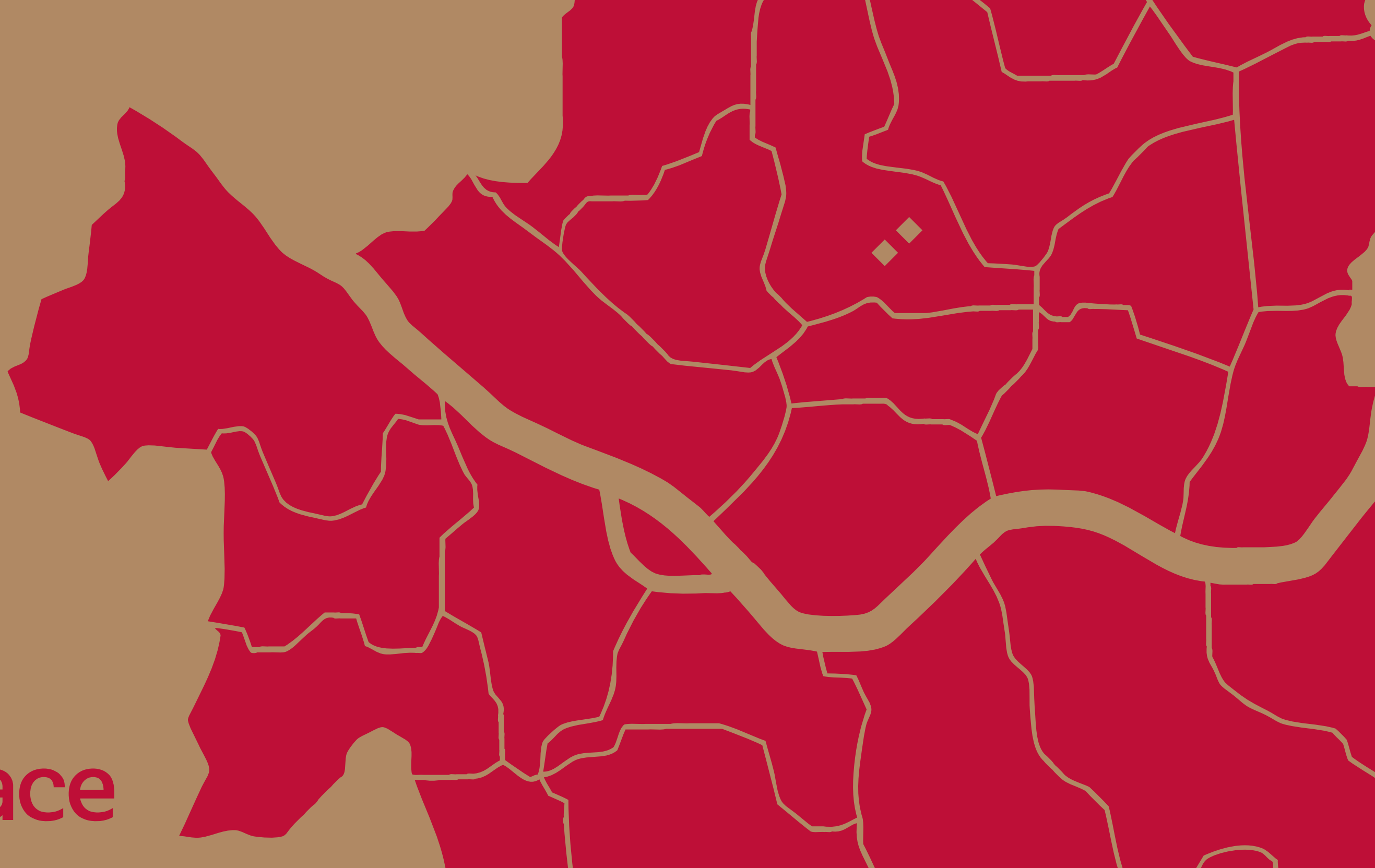
정보 Information

258	종묘의궤 The Royal Ancestral Shrine Rituals Of Jongmyo
264	규장각 Kyujanggak
270	성균관과 문묘 Munmyo Confucian Shrine and Seonggyungwan National Academy, Seoul
276	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290	2009 디자인자산 2009 Design Assets
296	색인 Index

고궁

Palace



고궁
Palace

Unhyeongung Palace

안현궁

조선 후기 전통 건축기술에 담긴 흥선대원군의 시간
Temporality of Heungseon Daewongun
in Traditional Architectural Techniqu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고궁 Palace 안현궁 Unhyeongung Palace



조선 후기 전통 목조 기술에 담긴 고즈넉한 아름다움

운현궁은 서울 도심에 자리한 넓은 한옥단지다. 4대 궁궐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만, 조선의 옛 정취와 함께 왕실 가문의 한옥의 소담함과 고매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의 사저였으며 대원군이 되어 섭정하면서 확장했고 그때 지어진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원군이 거쳐하던 노안당 앞에는 솟을대문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행랑채나 벽보다 대문의 높이를 더 높게 한 건축 양식으로 지체 높은 왕실 집안의 위엄을 드러낸다. 노안당에서는 지붕이 두드러지는데 큰 지붕과 작은 지붕이 어우러져 마치 검은 파도처럼 다이내믹하게 종과 횡으로 겹친다. 처마에 덧댄 차양(遮陽)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추운 겨울에는 햇빛이 깊게 들어오도록 한다. 난(蘭) 치기를 즐겼던 흥선대원군의 심미안을 드러내듯 운현궁 곳곳에서는 소담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안채인 노락당은 모든 자재를 자연으로부터 얻으며 기단에서 기와까지 하나하나 다듬어 조립한 한옥의 정수를 담았다. 더불어 겹처마 구조로 진중함과 깊이감도 더했다. 안마당을 품은 이로당은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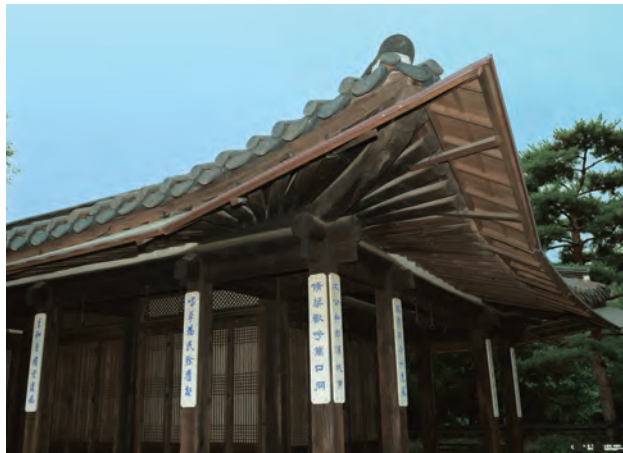
한옥이 가진 대칭의 형태 대신, 문이 설치된 행각의 높낮이를 달리 지은 비대칭 구조로 자유로움을 구한 고도의 건축미가 돋보인다. 문에 새겨진 당초문 조각 역시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 조선 왕실 가문의 품위와 궁으로서의 고매한 면모를 여실히 갖추고 있는 운현궁. 높은 권위를 상징했던 웅장하고도 과학적인 구조에서도 한옥이 갖는 소박함과 섬세함도 잃지 않으며,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정점을 드러낸다.

A Serene Beauty Embodied in Technology of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Unhyeongung Palace is a large hanok complex located in downtown Seoul. Although it is small in scale compared to the four major palaces in old Seoul, it fully embodies the modest and elegant taste of the Royal Family's hanok(Korean-style house) along with the old atmosphere of Joseon. It was the residence of

Lee Ha-eung(also known as Heungseon Daewongun), father of King Gojong, and expanded as he officially became King Gojong's regent. During the expansion, its main buildings, Noandang, Norakdang, and Irodang, were added. In front of Noandang, where Heungseon Daewongun resided, there is a tall gate, Soseuldaemun, which displays the prestige of the Royal Family with an architectural style that makes the gate even higher than surrounding walls or other servants' quarters, Hangnangchae. Noandang has outstanding roofs, of which large and small ones intersect vertically and horizontally, creating a dynamic flow like black waves. Shades can be installed over the eaves to create cool spaces in the summer and let in more sunlight in the cold winter. As if reminiscing the aesthetic sense of Heungseon Daewongun, who enjoyed drawing orchids, Unhyeongung Palace has several tasteful gardens here and there. Norakdang, the main house, was built entirely

with natural materials from the stylobate to the roof tiles. Its intimate connection with nature represents the essence of hanok. In addition, layered eaves make the building look even more gentle and dignified. Irodang, which embraces the courtyard, stands out for its asymmetrical structure full of free spirit, instead of the symmetrical shape of typical hanok, and presents a sophisticated architectural aesthetic. Engraved on the doors, Dangchomun (a kind of arabesque pattern) also creates a mesmerizing spectacle just like a fascinating work of painting. Unhyeongung Palace is a hidden treasure in the urban center of Seoul, holding the dignity of the Royal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the nobility of a palace. While its elegant and scientific structure symbolizes the majestic authority of royalty, it still holds the simplicity and delicacy of hanok at the same time, and consequentially reaches the pinnacle of Korean wooden architecture.





Daewongun, under the pretext of providing political assistance to King Gojong, who was pushed to the throne at such a young age. Heungseon Daewongun presided over the country's major policies for about 10 years before King Gojong formally succeeded to the crown, and at that time, Unhyeongung Palace held greater prestige than King's own palace. It was also used as an outpalace where wedding ceremonies were held for King Gojong and Queen Min, and it became the center of the bureau of royal household, where the budget of each palace was managed. However, in 1873(the 10th year of King Gojong), Daewongun was deposed due to Choi Ik-hyeon's appeal criticizing his misrule, and concurrently, the authority of Unhyeongung Palace was also lost. Since then, it has shared the political ups and downs of Daewongun until the end of his life, in the meantime, some of its buildings were demolished, reducing the area.

조선왕조의 마지막을 함께한 유서 깊은 장소

종로구 운니동에 자리한 운현궁은 개항기의 격변 속에서 독특한 역사적 위상을 지녔다. 이하응의 사저였던 운현궁은 후사 없이 사망한 철종의 뒤를 이어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국왕으로 등극하면서 국왕의 잠저가 됐다.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으로 봉직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에게 정치적 도움을 준다는 명분 아래 운현궁에서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하게 됐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10여 년간 이곳에서 나라의 주요

정책을 논의했으며, 이로서 운현궁은 한때 고종이 거처하는 궁궐보다 더 큰 위세를 누렸다. 운현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가 치러진 별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각 궁방의 조세가 모이는 종친부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최익현의 상소로 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운현궁의 권위는 실추되었다 이후 대원군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치적 부침을 거듭한 영욕의 세월을 함께 했고 일부 건물이 헐리면서 면적도 줄어들었다.

A Historic Place Accompanying the Joseon Dynasty to Its End

Unhyeongung Palace, located in Unni-dong, Jongno-gu, has a unique historical status amidst the upheaval in the Port-opening Period. It was first the house of Lee Ha-eung, but became the king's former residence as his second son ascended the throne after King Cheoljong had died without an heir. There, he began to be deeply involved in state affairs as an official regent, Heungseon



조선시대 궁궐
구분 사적 제257호 | 설립 조선시대 후기 | 규모 9,413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
Palace in the Joseon Dynasty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No. 257 | Age Late Joseon Period | Quantity 9,413m² | Address 464 Samildaero, Jongno-gu, Seoul

고궁
Palace

창경궁

Changgyeonggung Palace

아픈 역사를 품은 여성을 위한 궁궐
A Palace Embracing a Painful History for Women



자연 지세를 존중한 순리적인 건축디자인

창경궁은 우리나라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명정전이 남아 있는 곳으로 조선 중기 이전의 건축 디자인이 일부 남아 있는 중요한 궁궐이다. 성종이 당시 세 명의 대비, 곧 할머니인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 친어머니인 소혜왕후 한 씨, 작은 어머니인 예종비인 안순왕후 한 씨를 위해 마련했다. 왕비 등 왕실의 여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지어진 별궁이기에 남성 중심의 경복궁과 대비되며 외전에 비해 내전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또 창덕궁과 연결되어 동궐이라는 하나의 궁역을 형성하면서, 독립적인 궁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창덕궁의 모자란 주거공간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했다. 광해군 8년(1616)년에 증건된 명정전은 입면 구성을 활용해 전체적으로 단아한 맛을 자아내며, 알맞게 추켜올린 추녀의 곡선미, 가지런히 배열된 공포(棋包)의 역음새 등이 인상적이며, 꽃살창호의 화려함, 정면과 측면 툇간의 창호 밑에 튀어나오게 쌓은 전돌의 무게감 등이 어우러져 뛰어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지붕 위에는 마루를 높게 올렸으며, 마루 위에는 잡상과 선인을 각각 배열해 위엄을 더했다. 창경궁 명정전은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공포의 짜임새가 견실하면서 쇠서(牛舌: 목구조에서 소의 혀 모양으로 장식하여 오래된 부재)의 곡선이 힘차고 예리한 점, 첨차(檐遮)에 풀무늬를 새긴 수법이 세련된 점, 주춧돌에서 공포까지의 지지체(支持體)와 그 위에 얹은 지붕의 균형이 잘 조화된 점 등에서 조선 전기의 건축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Adaptive Architectural Design Respecting the Topography of Nature

Changgyeonggung Palace is very important in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because it still preserves some of the architectural designs before the mid-Joseon Period such as Myeongjeongjeon, the oldest hall among Korean palaces. King Seongjong had it built for three women:

Queen Jeonghui, his grandmother, Queen Sohye, his birth-mother and Queen Ansun, his aunt. Since it was built as a living space for royal women, including the queen, it features relatively wider inner halls than the outer halls, compared to the male-dominated Gyeongbokgung Palace. In addition, it was connected to Changdeokgung Palace to form a single palace complex called *Donggwal* (the East Palace), playing the role of both an independent palace and supplementary residence of Changdeokgung Palace when it needs extra living space. Myeongjeongjeon Hall, which was reconstructed in the 8th year of King Gwanghaegun(1616), uses the elevation composition to create an overall graceful look. Specifically, it has slightly raised *chunyeo* (hip rafter) displaying the charm of curves, neatly arranged *gongpo* (complex brackets) creating the delight of weaves, gorgeous *kkotsalchangho* (windows and doors with floral patterned ribs), and solemn *jeondol* (customized bricks) stacked protruding under the windows of the front and side *toetgan* (wooden veranda) and so on. All of these come together to reveal the impressive and outstanding beauty of the building. Moreover, *maru* (ridge) on the roof is raised higher, and on the top of *maru*, various decorative statues including a statue of god are arranged to emphasize dignity. Myeongjeongjeon Hall in Changgyeonggung Palace is praised for inheriting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erms of its architectural style, in particular, the weaves of *gongpo* are sturdy, the curves of *soeseo* (an ox-tongue shaped component of wooden bracket structure, carved into the top of a pillar) are intense and sharp, the grass patterns on *cheomcha* (bracket arm) are delicate and sophisticated, and the supporter from the cornerstone to the roof and the roof itself are in exquisite harmony.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한 서울 시민의 산책길

창경궁은 왕들의 효심과 사랑, 왕비와 후궁의 갈등, 왕과 세자의 애증 등 왕실 이야기가 풍부한 현장이다. 정조는 홀로 된 어머니 혜경궁 홍 씨를 위해 창경궁에 자경전을 지었으며,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굶어 죽는 비극을 겪은 혜경궁은 회갑이 되던 1795년(정조 19)부터 이곳에서 〈한중록(閑中錄)〉을 집필하였다.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던 1865년(고종 2)에 창경궁 자경전 건물은 경복궁으로 옮겨졌는데, 이후 1873년(고종 10) 경복궁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처럼 창경궁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수모의 역사를 거친 사연 많은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창경궁(昌慶宮) 안의 전각들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지었다. 언덕과 뜰에 벚나무를 심고 놀이공간으로 개방했으며, 1911년에는 이왕가박물관 건물을 세우고 명칭도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하였다. 1924년 봄에는 창경원에 처음으로 색등을 밝히고 밤 벚꽃놀이가 벌어지는 등 점차 원래의 궁의 모습을 잃어갔다. 1983년에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회복했고 1986년부터 동물원과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옛 모습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어 현재는 창경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2010년부터 진행한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 사업이 완공되어 90년 만에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연결되었으며, 서울시는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여 340m의 산책로를 냈다.



A Promenade for Seoul citizens which overcame the painful histor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gyeonggung Palace is a site rich in royal stories, such as the filial piety and love of kings, the fierce conflicts between the queen and the concubine, and mixed feelings of love and hatred of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King Jeongjo built Jagyeongjeon Hall in Changgyeonggung Palace for his widowed mother Hyegyeonggung Hong, who suffered the tragedy of her husband Crown Prince Sado being trapped in a rice chest and dying of starvation. She had written *Hanjungnok* there from 1795 (the 19th year of King Jeongjo) when she turned sixtieth. In 1865 (the 2nd year of King Gojong), while King Gojong rebuilt Gyeongbokgung Palace, the Jagyeongjeon Hall was moved there, but unfortunately, it was later destroyed by a fire in Gyeongbokgung Palace in 1873 (the 10th year of King Gojong). As such, Changgyeonggung Palace has numerous stories created through harsh twists and turns in the course of histo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alace buildings were demolished, then a zoo and botanical garden were built instead, cherry blossom trees were planted all over, and in 1911, Yiwangga Museum (Yi Royal Family Museum) was established. Furthermore, it was opened to the public as a leisure space, and the name of the palace was at last downgraded to Changgyeongwon (“won” means an amusement park, not a palace). In the spring of 1924, Changgyeongwon was lit up with colored lanterns for the first time, and the cherry blossom festival took place at night, gradually losing its original feature



of the palace. As the name Changgyeonggung Palace was restored in 1983 and the zoo and amusement park facilities were demolished in 1986, a great deal of efforts to regain the palace to its former glory began. The work of restoring Changgyeonggung Palace consistently continues ever since. In 2022, the “connection restoration From Changgyeonggung Palace to Jongmyo” project, which had been in progress since 2010, was completed, and finally, Changgyeonggung Palace and Jongmyo were reconnected after 90 yea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de Yulgok-ro underground and developed an urban greenery on it to create a 340-meter-long-promenade for the public.



조선시대 궁궐
구분 사적 제123호 | 설립 조선시대 성종 14년(1483) | 규모 21만 6,774㎡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Palace in the Joseon Dynasty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123 | Age the 14th year of King Sejong of the Joseon Period(1483) | Quantity 216,774㎡ | Address 185, Changgyeonggung-ro, Jongno-gu, Seoul

건축

Architecture



건축
Architecture

63빌딩

63 Building

한국의 마음속 가장 높은 마천루
The Highest Skyscraper in the Hearts of Koreans





한국 고층 건축물의 효시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63빌딩이었다. 지상 60층, 지하 3층을 갖춘 이 황금빛 건물은 오랫동안 서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만큼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여의도의 아이콘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를 설계한 미국의 SOM사와 박춘명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으며, 전체 높이 274m, 구조물 높이 249m, 해발 264m의 건물로, 해발 265m인 남산의 정상보다 불과 해발 1m가 낮게 완성됐다. 63빌딩의 가장 큰 특징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외관이다. 전체 창문만 1만 3,516장으로 이중 반사유리를 활용한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졌다. 63빌딩은 이를 통해 30%의 열에너지 절약효과를 누리고 있다. 더불어 높은 반사율과 투과율을 갖춰 태양의 각도에 따라 은색과 노란색, 황금색, 적색으로 변화한다. 38층부터 위쪽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육면체이지만 그 아래로는 점점 바닥이 넓어지는 스커트 형태인데 이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일 뿐 아니라 커튼월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날렵한 상승감을 준다. 63빌딩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엔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쓰였다. 1995년에는 직장인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의 건물로 꼽히기도 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불꽃축제의 화려한 풍경에 꼭 등장하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The Beginning of Skyscrapers in Korea

Until the early 2000s, the tallest building in Seoul was 63 Building. With 60 floors and 3 basement floors, this golden building has long been the tallest in not only Seoul but the entire Korea. As such, it has become a symbol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the icon of Yeouido. It was designed by SOM, an American design firm that designed Burj Khalifa, the world's tallest building, with architect Park Chun-myung. It is a building with a total height of 274m, a structure height of 249m, and an altitude of 264m, which is only 1m lower than the summit of Namsan Mountain, whose altitude is 265m. The biggest feature of 63 Building is its shiny golden exterior. The whole building is clad in 13,516 windows, built with a curtain wall method using double reflective glass which saves 30% of the thermal energy consumption. Owing to its high reflectance and transmittance, it changes to silver, yellow, gold, and red depending on the angle of the sunlight. From the 38th floor, the upper part is a hexahedron that extends in straight lines, but the lower part gets gradually wider in the form of a skirt. This shape is not only structurally stable but also gives a sense of agile ascent instead of the monotony of the curtain wall. The 63 Building served as the foremost landmark of Seoul during the Seoul 1988 Olympic Games attesting to “the Miracle on the Hangang River.” In 1995, it was ranked as the most favorite building in Seoul by businesspeople, and it is also one of the impressive features that creates a splendid spectacle in the World Fireworks Festival in the 2000s.



서울의 정신에서 모두의 문화공간으로

63빌딩의 정식 명칭은 ‘대한생명 63빌딩’으로 출발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이 해체되며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빌딩의 이름은 ‘한화63시티’를 거쳐 현재 ‘63스퀘어’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인식 속에 이 빌딩의 이름은 ‘63빌딩’이다. 서울을 찾는 이들의 노스텔지어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으며,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60층의 ‘63아트’는 서울에서 국내외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전시 공간이 됐다. 지하 2층에 자리한 대형 수족관

아쿠아플라넷 역시 1985년 개장해 현존하는 국내 아쿠아리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61층 위에 있다고 알려진 방공포대는 2012년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해 자취만 남겨놓은 상태다. 63빌딩 꼭대기에서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좋다면 인천 앞바다와 개성의 송악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명성은 사라졌지만, 오랜 상징성을 바탕으로 63빌딩은 여전히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건물로 남아있다.



From the Spirit of Seoul Cultural Space for Everyone

The original official name of 63 Building was

“Daehansaengmyeong 63 Building (63 Building of Daehan Life Insurance Inc.).” Later, as its parent company, Shindonga Group was disband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Hanwha Group took it over, the name of the building also has been changed to “Hanwha 63 City” and then to “63 Square.” However, the building is still engraved on Seoul citizens’ minds as “63 Building”, and it has always been the symbol of nostalgia for visitors to Seoul. 63 Art on the 60th floor, which offers panoramic view of Seoul as something lavish extra, has become the most visited exhibition hall in Seoul by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Aqua Planet, a large aquarium on the second basement floor which opened in 1985, and is highly regarded for its longest history among existing aquariums in Korea. There used to be an air defense battery on the 61st floor, but it was moved to another nearby building in 2012 and now there are only traces left. From the top of the 63 Building, you can see most of Seoul. On a clear day, one can see far ahead to offshore Incheon and even Mt. Songak in Gaeseong. Although the throne as the tallest building in Seoul has been handed over to others, the 63 Building still remains a beloved landmark in Seoul and the tallest building in the hearts of citizens, since it has served as a symbol of Seoul for a good while.



한국 고층 건축물의 기원

구분 복합문화공간 | 설립 1985년 7월 27일 | 규모 연면적 16만㎡, 249.6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The Archetype of Skyscraper in Korea
 Classification Multi-cultural Complex | Age July 27, 1985
 | Quantity Gross area 160,000㎡, 249.6m | Address 50, 63-ro, Yeongdeungpo-gu, Seoul

건축
Architecture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ongdaemun Design Plaza (DDP)

동대문에 착륙한 미래로부터 온 디자인
Distinctive Design Landed
at Dongdaemun from the Future

비대칭과 비정형의 미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는 대한민국 최첨단 건축 공법의 집약체다. 세계 최고 규모의 3차원 비대칭, 비정형 건축으로, 전체 면적이 축구장의 3.1배에 달하고 외관은 저마다 모양이 다른 4만 5,133개의 알루미늄 패널로 이루어졌다.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했으며 ‘환유의 풍경(Metonymic Landscape)’이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동대문과 서울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의 요소를 통합해 하나의 풍경으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DP는 아트홀, 뮤지엄, 디자인랩,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네 가지 공간으로 나뉘며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총 높이 29m에 이르지만, 외관 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가늠하기 어렵다. 층과

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하나뿐이고 기둥과 직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공간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흐르는 듯하다. 이 같은 비대칭과 비정형 구조는 DDP를 미래주의 건축 작품의 반열에 올렸다. 자하 하디드의 영감은 삼우설계와 삼성물산의 기술적 시도를 통해 가능했다. 3차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파라메트릭(Parametric)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신속한 설계 피드백 반영이 이루어졌으며, 자동차 및 선박 제작 기술도 접목됐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교량 등의 큰 구조물에 들어가는 메가트러스(Mega-Truss)를 활용하여 대형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상부에서 당겨주는 힘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3차원 배열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 구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실내 기둥만으로도 안전하고도 특별한 공간감을 구현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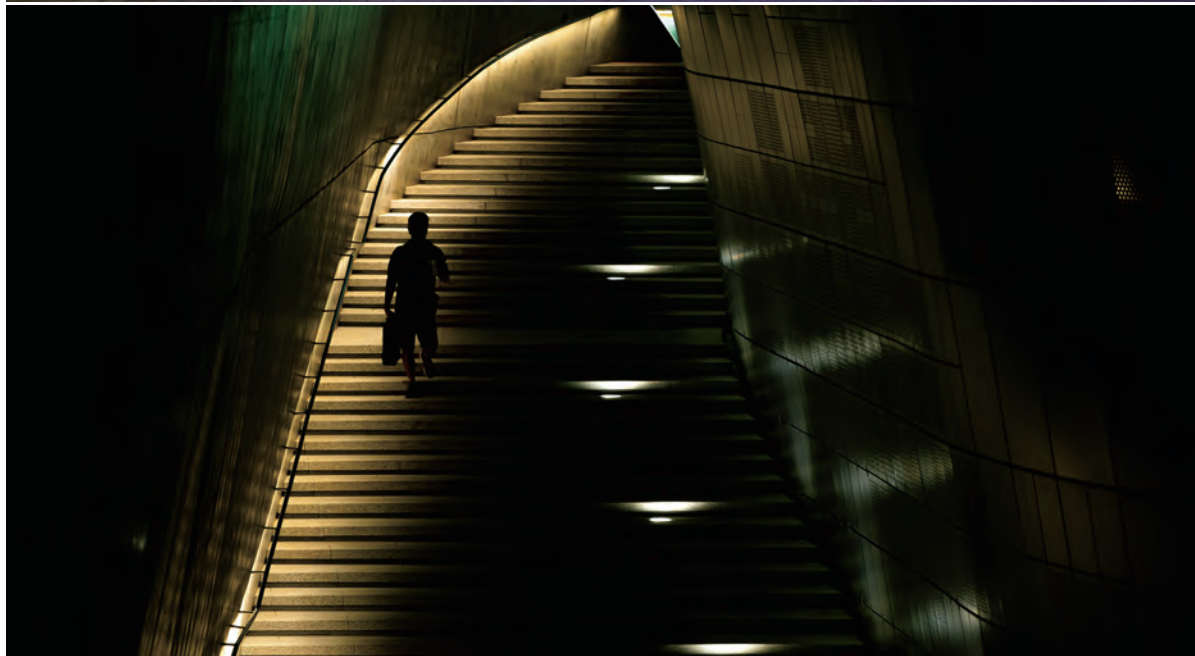
건축 Architecture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ongdaemun Design Plaza (DDP)



The Aesthetics of Asymmetry and Atypicality

Dongdaemun Design Plaza (DDP) is the aggregate of cutting-edge architectural techniques in Korea. It is the world's largest three-dimensional asymmetric and amorphous architecture with a total area 3.1 times larger than a soccer field, and its exterior is made up of 45,133 aluminum panels, each with a different shape. It was designed Zaha Hadid, who is the first Pritzker Prize winner as a female architect. She suggested “Metonymic Landscape” as the key concept of DDP, which was interpreted as recreating a piece of the landscape by integrating various elements such as history, culture, society, and economy of Seoul with Dongdaemun. DDP has four floors and three basement floors, reaching a total height of 29m, and consists of four sections: *art hall*, *museum*, *design lab*, and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is structure from the outside, because it has only one staircase that connects the floors, and has almost no columns and straight lines. Full of fluent curves, its space seems to flow like a living organism. Such asymmetry and atypical structures have placed DDP in the ranks of futuristic architectural works. Zaha Hadid's inspiration was realized through technical attempts by Samwoo Design and Samsung C&T. Design feedback was able to be executed promptly, using 3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parametric design technique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of automobiles and ships were also incorporated. Moreover, Mega-Truss, which is normally used for larger structures such as bridges rather than average buildings, was applied to support DDP's expansive interior space, and also a three-dimensional space frame structure that sustained



the building pulling it from the top, creating a safe and special sense of space with minimal indoor columns.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디자인 랜드마크

DDP는 본래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디자인 산업을 지원하고자 설립됐다. 이후 동대문운동장 철거 과정에서 이간수문, 한양성곽을 포함한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과거의 시간을 담은 역사 문화 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DDP는 운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문화 선도,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가치 공유 확산이라는 전략목표가 담긴 공간이다. 디자인뮤지엄에서는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민참여문화행사와 디자인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에 디자인 지식 문화를 확산한다. 연말에는 서울라이트라는 대형 라이트 쇼를 통해 지역상생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디자인 행사를 개최하며 서울디자인어워드를 통해 사람과 사회, 환경,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디자이너 또는 단체를 시상한다. 이처럼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의 노력을 통해 DDP는 서울 시민의 문화공간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Seoul's Design Landmark, where the Past and the Future Coexist

DDP was originally established to improve old facilities near Dongdaemun Stadium and support the design industry. As relics of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Igansumun* (the watergate of Hanyang City) and *Hanyangseonggwak* (Hanyang City Wall) were excavated in the process of demolishing Dongdaemun Stadium, it was reborn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park that preserves the memory of the past. DDP is a space

that contains the strategic goals of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ts operating institution, such as leading a design culture,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design industry, and promoting design value sharing. The Design Museum organizes various exhibitions, citizen participatory cultural events, and design forums to spread knowledge on design and culture to citizens. At the end of each year, it contributes to local coexistence and tourism revitalization through a large light show called "Seoul LIGHT." In addition, DDP holds diverse design events every year, including Seoul Design Award, which celebrates designers or design organizations contributing to forming harmonious and sustainable relationships among people, society, the environment, and nature. Through such efforts to promote the design industry and spread design culture, DDP has become a significant cultural place for Seoul citizens and an iconic landmark of Seoul.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플랫폼

구본 복합문화공간 | 설립 2014년 3월 21일 | 규모 대지면적 6만 2957m², 건축면적 2만 5008m², 연면적 8만 5320m²(지하 3층, 지상 4층)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The Design Platform Representing Seoul

Classification Multi-cultural Complex | Age March 21, 2014 | Quantity Site area 62,957m², Building area 25,008m², Gross area 86,574m² (3 stories under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 Address 281, Eulji-ro, Jung-gu, Seoul



050 051

건축 Architecture 서울 구 공간사옥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Seoul

건축
Architecture

서울 구 공간사옥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Seoul

벽돌 건물에 담긴 한옥의 미학, 한국 건축사를 품다

Aesthetics of Hanok in Brick Building Embraces

Korean Architectural History



한국적 공간 특징을 유기적으로 구현한

근대 건축 디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의 구 공간 사옥은 검은색 벽돌 건물과 현대식 통유리 건물, 나지막한 한옥이 모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국의 1세대 건축가인 김수근이 설계한 대표적인 건물이다. 구 공간 사옥은 김수근의 집 자리에 처음에 지은 구관과 이어서 지은 신관을 일컫는다. 현재는 미술 전시관과 레스토랑·카페 등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건축사무소이자 건축 문화예술 잡지 <공간>의 사무실로 지어졌다. 구 공간 사옥은 김수근의 핵심 건축철학인 ‘공생’을 잘 드러낸다. 설계 당시부터 인근의 고궁 및 한옥과 어우러지도록 기와장 느낌의 검은 벽돌을 주재료로 삼았고, 담쟁이 넝쿨이 자연스럽게 건물에 기대도록 했다. 대지의 경사를 살려 바닥을 반 층씩 어긋난 높이로 설계하는 스킵플로어(skip floor)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형식상 4층 건물이지만 층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인간의 몸 크기를

기준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휴먼스케일(human scale)’도 적용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계단은 좁은 골목길을 돌아서 집이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적 골목길을 수평·수직으로 구현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내부에 한옥 구조를 도입해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만들어 같은 공간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한국의 공간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전통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이며 독특한 공간감은 오직 구 공간 사옥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김수근 건축의 진가인 셈이다.

Modern Architectural Design Organically Embodies Korean Spatial Characteristics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in Yulgok-ro, Jongno-gu, Seoul creates a unique atmosphere with a black brick building, a modern glass building, and a low hanok. They are representative buildings designed by Kim

Soo Geun, a first-generation Korean architect.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refers to two buildings, the old one was built on the site of Kim Soo Geun’s house and subsequently the new one was built right next to it. The architectural design office of the Space Group and the publishing office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and art magazine *Space* used to reside there, but currently, there are art exhibition halls, restaurants, and cafes. These buildings clearly show Kim Soo Geun’s core architectural philosophy, “symbiosis.” From the design stage, black bricks similar to *Giwa* (roof tiles of hanok) were used as the main material to harmonize with nearby palaces and hanoks, and ivy vines were planted to reach up the building naturally. Although it is a four-story building,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each floor because it used a skip floor method, that utilizes the slope of the site and

stacks floors by half a layer. A human scale method, which designs spaces in the building based on the size of the human body, was also applied. In addition, The meandering staircase is highly acclaimed because its horizontal and vertical movements embody the traditional Korean village alley where houses appear when you turn a corner of a narrow alley.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is connected without obstruction by applying a hanok structure, so even in the same space, you can see a completely different scenery depending on the viewing position. Such diverse Korean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ese buildings are the result of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paces, and this unique sense of space is the true value of Kim Soo Geun’s architecture, which can only be encountered in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서울 근대 건축 문화의 공간

옛 공간 사옥은 여러 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1971년 착공에 들어간 건물을 구관, 1975~1977년 완공된 건물을 신관이라 부르며, 브리지(bridge)로 연결된 구관과 신관을 합쳐 구 사옥이라 칭한다. 이후 김수근의 뒤를 이어 공간의 제2대 소장인 장세양 건축가가 지붕과 바닥을 제외한 모든 면을 유리로 설계한 신 사옥이 1998년에 완공되었고 3대 소장인 이상림 건축가가 구 사옥과 신 사옥 사이 한옥을 매입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 각각의 특성을 가졌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 사옥의 세 건물은 공간은 물론 한국 현대건축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1970년대부터 30여 년 넘게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 오랜 기간 명성을 이어온 공간 사옥은 2013년 경영난으로 부도를 맞이했으나, 아라리오그룹의 인수로 2014년 8월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로 재탄생한다. 현재 구사옥은 예술작품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품 전시에 필요한 펜스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공간 사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시민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The Foundation of Modern Architectural Culture in Seoul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consists of several buildings, one that began to be built in 1971 is called the old building and another completed in 1975~1977 is called the new building, and these two are connected by a bridge. Architect Jang Se-yang, the vice director of the Space Group following Kim Soo Geun, designed the new building covered with glass on all sides except the roof and floor. It was completed in 1998, and architect Lee Sang-rim, the third director, purchased a hanok between the old and new buildings to achieve its current

formation. These three buildings, which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but are organically connected, have kept their status as a symbol of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as well as the identity of Space Group,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1970s.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which has been renowned for a long time, went bankrupt in 2013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but was reborn as Arario Museum in Space in August 2014 with the acquisition of the Arario Group. Especially, the old building is now used as an art exhibition hall. Except for the fences to guard displayed art works, the appearance of Former Building of Space Group remains intact and offers an art space that citizens can enjoy anytime.



한국의 근대 건축물
구분 국가등록문화재 제586호 | 설립 1977년 | 설계 김수근
규모 660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19
Modern Architecture of Korea
Classification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586 | Age 1977 | Design Kim Soo Geun | Quantity 660m²
| Address 219 Wonseo-dong, Jung-gu, Seoul

건축
Architecture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건축, 시대의 거울을 담다
Architecture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Intersect,
Capturing the Reflection of the Era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담긴

건축 디자인

건축가 이희태가 1967년에 '동양 최대 규모 국립극장 설립'을 목표로 설계한 국립극장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회전무대와 슬라이드 무대 시설을 갖추고, 경희루 처마를 닮은 넓고 굴곡진 지붕을 얹어 완성한 작품이다. 장충단공원을 거쳐 남산순환도로를 따라 걷는 동안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국립극장 건물은 진입로를 들어서서 순간 대극장 전면을 드러내며 관객을 맞이한다. 1,300m²의 규모뿐 아니라 경험 측면에서도 몰입감과 극적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건물 벽체 앞에 서서 기둥을 받치고 있는 열주 역시 우리 궁궐 건축 양식에서 기인했다. 이희태는 “나는 우리의 전통을 국립극장 건축 양식에 표현하는데, 외형적인 모방이나

확대가 아닌 어디까지나 내재적인 전통의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극장 형태를 제안하였고, 이것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즉 전통적인 기주(基柱), 주랑(柱廊)의 아름다움의 현대화가 바로 그런 것의 하나다.”라며 설계 의도를 전했다. 건물의 높이와 폭의 안정적인 비례 역시 아름다움을 더한다. 20m:65m 비례의 대극장과 10m:30m의 비례를 갖춘 소극장은 높이와 폭이 1:2의 뛰어난 비례미를 가진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극장은 2017년 10월,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쳤다. 기존의 돌계단을 없애는 대신 열린 공간으로서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1,563석 규모에서 1,221석의 중대형 규모로 객석수를 줄이는 대신 관람 집중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n Architectural Design That Embraces a Modern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iming to “establish the largest national theater in the East”, National Theater of Korea was designed by architect Lee Hee-tae in 1967 and completed with curved roofs reminiscent of the eaves of Gyeonghoeru Pavilion, as well as an innovative revolving stage and slide stage facilities at the time. The building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which does not appear in sight until visitors pass through Jangchungdan Park and walk along Namsan Beltway, finally greets them by revealing the front of the Grand Theater the moment they enter the driveway. Therefore, they can feel the sense of immersion and dramatic grandeur not only in the huge scale of the 1,300m² building but also in the very experience of visiting the theater. Architect Lee Hee-tae explained the design intention as follows. “When expressing our tradition in the architectural style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I decided that we should embody the intrinsic aspect of tradition rather than external imitation or exaggeration, so I proposed the current form of theater, which I firmly believe it expresses our unique beauty of Korean tradition. The modernization of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pillars and colonnades is one of the clear examples.” The harmonious proportion of the height and width of the building even enhances its beauty. The Grand Theater with a ratio of 20m:65m and the small theater with a ratio of 10m:30m are praised as architectural structures with excellent proportional beauty as the small theater is designed to be half the size of the Grand Theater, and accordingly, their height and width

are in a ratio of 1:2. In October 2017, National Theater of Korea underwent facility maintenance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work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opening. By removing the previous stone steps, the inclusivity and accessibility of the theater as an open space were reinforced to become. In addition, the Grand Theater, which had had 1,563 seats in the past, was reduced to a mid-to-large size with 1,221 seats, focusing on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the audience.



서울을 주무대로 한 한국 근현대 극장문화의 산실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1945년 광복 후 연극인들이 국립극장 설립 운동을 시작한 이유 역시 시대 정신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간절한 염원 끝에 1949년 1월 대통령령 제47호 ‘국립극장 설치령’이 공포되고, 1950년 4월 29일 마침내 국립극장이 부민관(현재 서울시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문을 열었다. ‘국립극장 설치령’ 제1조는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극장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국립극장은 개관 58일 만에

대구문화극장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명동 시공관(현재 명동예술극장)을 사용하다가 1967년 장충동 신축 극장 설립 계획 끝에 1973년 10월 17일, 지금의 국립극장이 문을 열었다. 개관 후부터 국립극장은 전통예술을 동시대적 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공연예술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대극장과 소극장은 현재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악사 양성소는 별오름극장으로 변경되었다. 국립극장은 우리 전통공연예술을 새롭게 창조하여 세계에 내놓는 국내 유일한 제작극장으로 근현대 극장문화의 명맥을 유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The Birthplace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Theater Culture, Proudly Based in Seoul

Art is a mirror of the times.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the reason why theatrical artists started the movement to establish National Theater of Korea was also that they needed a vessel to contain the spirit of the times. After ardent requests, “the 47th Presidential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heater” was promulgated in January 1949, and on April 29, 1950, National Theater of Korea finally opened at Bumgwan (current Seoul Metropolitan Council building). Article 1 of the Presidential Decree stated, “The National Theater is establish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rt, the improvement of theater culture, and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Unfortunately, however, as the Korean War broke out, National Theater of Korea had to be relocated to the Daegu Cultural Theater only after 58 days of opening. Subsequently, after staying at the Myeongdong Municipal Residence (current Myeongdong Theater) for a while, and the present National Theater

finally opened on October 17, 1973, according to the plan to establish a new theater in Jangchung-dong in 1967. Since its opening, National Theater of Korea has taken the lead in sublimating traditional art into contemporary art, inheriting the history of Korean performing arts. The Grand and small theaters have been renamed to *Haeoreum* (sunrising) Grand Theater and *Daloreum* (moon-rising) Theater, and Gugaksa Yangseongso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al institution) has been changed to *Byeoloreum* (star-rising) Studio.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the only production theater in Korea that creatively innovates and presents our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o the world, and is also a space that maintains the legacy of modern theater culture.



한국의 국립극장
구분 극장 | 설립 1973년 | 규모 건축면적 1,300㎡ | 설계자 이희태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National Theater of Korea
Classification Theater | Age 1973 | Quantity 1,300㎡ | Design Lee Hee-tae | Address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건축
Architecture국회의사당
National Assembly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
The Symbol of South Kore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which respects the will of the people



현대식 건축 양식과 전통미의 조화

국회의사당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석조 건물로 서양 고전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한국 전통 건축의 분위기를 담은 특징적인 건물이다. 국회의사당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제일 아래는 화강암으로 된 너비 50m의 대계단이 자리하고 기단 위에는 높이 32.5m의 대열주(大列柱) 24개가 세워져 있다. 이 대열주는 경회루의 석주를 본뜬 것으로 24절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상징한다. 전면에서는 8개의 대열주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팔도강산을 의미한다. 밑지름 64m의 돔은 원만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의회 정치의 본질을 상징하며 건물에 안정감과 웅장미를 더한다. 중앙 원형홀 바닥은 석굴암 천장 무늬를 본뜬 대리석 모자이크로, 건물 앞에 배치된 암수 한 쌍의 해태는 화기를 막고 국회를 사기(邪氣)로부터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회의사당의 설계자는 김정수, 이광노, 안영배의 공동작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현상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을 내지 못하고 건축가들의 중지를 모은 절충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부터는 국회의사당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멀리서 봐도 밝고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물 전면에 대형 그릴 LED판을 부착해 국회 회기나 국경일에 태극기나 무궁화 등 다양한 국가 상징물이 연출된다.

Harmony Between Modern Architectural Style and Traditional Beauty

National Assembly is a stone building with six floors above ground and two floors underground, and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imply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based on Western classical architecture. Looking at National Assembly from the front, there is a 50-meter-wide grand staircase made of granite at the bottom of

the building, and 24 large colonnades with a height of 32.5m are built on the stylobate. These colonnades, inspired by the stone pillars of the Gyeonghoeru Pavilion, stand for the 24 solar terms as well as the divers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front side, there are eight large colonnades lined up, which means Paldogangsan (meaning all the rivers and mountains throughout Korea). The domed roof with a diameter of 64m symbolizes the essence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pursuit of well-rounded consensus and adds a sense of stability and grandeur to the building. The floor of the central hall features a marble mosaic design modeled after the ceiling pattern of Seokguram Grotto, and in front of the building, a pair of male and female *Haetae* (an imaginary animal believed to prevent fires) are placed to guard National Assembly from fire mishap or other evil spirits. The design of National Assembly was recorded as a joint work of architects Kim Joung-su, Lee Gwang Noh, and Ahn Youngbae because its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could not find a winning design and ended up using a cooperative plan compromising these three architects' ideas. Meanwhile, night scenery lighting was installed in National Assembly since 2007, so that the entire building can be seen brightly and distinctly even from afar. A large grill LED board is attached to the front of the building to display various images of national symbols such as *Taegeukgi* (the national flag of Korea) and *Mugunghwa*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during National Assembly sessions and national holidays.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상징

국회의사당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제정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1948년 국회 개원과 함께 경복궁 내 중앙청에서 출발했으나, 중구 태평로에 자리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후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지금과 같은 국회의사당이 탄생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자리잡게 된 것은 서울의 도시 확장 계획에 따라 여의도비행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단지, 금융단지가 국회의사당과 함께 복합 기능을 갖추게 하는 초안은 건축가 김수근이 주축이 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수립했다. 국회의 역할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입법을 통해 국민 생활을 위한 법을 제정하며, 재정 역할을 수행해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한다. 이렇듯 국회의사당은 1975년부터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로 50여 년 가까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The Emblem of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for Nearly 50 Years

National Assembly is an institution in charge of enacting laws in Korea as a part of state power consisting of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es. The relationship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se three powers is helpful to achieve proper democracy. When National Assembly was officially launched in 1948, it was located in Capitol Hall in Gyeongbokgung Palace, and the current main build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on Taepyeong-ro, Jung-gu, was also used. After six years of construction, current National Assembly



민민의 전당이자 삼권분립의 중심
구분 건축물 | 설립 1975년 8월 | 규모 부지 33만 580㎡, 건물면적 8만 1,442㎡ | 설계자 김정수, 이광노, 안영배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he Hall of Public Opinion and the Center of the Separation of Powers
Classification Architectural Structure | Age August 1975 | Quantity Site area 330,580㎡, Building area 81,442㎡ | Design Kim Joung-su, Lee Gwang Noh, Ahn Youngbae | Address 1 Ul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building was unveiled to the world in 1975. The reason why National Assembly was located in Yeouido was that the site for the Yeouido airfield became available according to Seoul's urban expansion plan. The draft for developing the multi-functional complex consisting of a residential district, a financial, district and National Assembly was established by the 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 (KECC), led by architect Kim Soo Geu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reefold. Firstly, it enacts laws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secondly, it deliberates on the budget and reviews the settlement of accounts regarding national finance. Lastly, it checks and supervises the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of the government. As such, National Assembly has served the people faithfully as the base of parliamentary democracy for nearly 50 years since 1975.



건축
Architecture

김포국제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위한 서울의 하늘문
The Sky Gate in Seoul for the Best Air Travel Services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세심한 공항으로의 변모

김포국제공항은 1958년에 공식 지정된 대한민국의 첫 공항이다. 1980년에 국제선 1청사,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는 국제선 2청사가 완공되어 오랜 시간 서울의 하늘문 역할을 했다. 2001년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겨간 후에는 국내선에 집중해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성능 저하,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단체 여행객 증가 등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뉴얼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8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이 사업에는 간삼건축 등 다수의 건축사무소들이 참여했다. 김포국제공항의 디자인 철학은 ‘쉽고 편리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빠르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수하물 처리 시설과 시스템을 교체해 수하물 처리 시간을 15분에서 최대 5분 이내로 줄이고 보안검색대 증설, 탑승교 추가 설치 등 편의를 강화했다. 터미널 양측 뒀지역에는 총 533m의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출발대합실을 확장하는 등 동선의 편리도 고려했다.

기호와 아이콘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역시 김포국제공항을 관통하는 철학이다. 외국인이나 정보약자 등 문자를 모르는 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했으며, 흩어진 공항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정보 집중화 구역’으로 집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더불어 기존의 낮은 천장고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됐던 사인 높이를 최대한 높게 조정해 시각적 안정감을 더했다. 그 결과 2020년 미국 공간경험디자인협회(SEGD)에서 길 찾기(Wayfinding) 부문을 수상했다.

Transformation into a Faster, More Convenient, and More Attentive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first official airport in Korea, designated in 1958. With International Terminal



1, completed in 1980, and International Terminal 2, completed in 1988, the year of the Seoul Olympics, it has served as the sky gate of Seoul for a long time. After the international flights were transferred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2001, Gimpo International Airport has been focusing on offering domestic flight services. In 2009, the renewal project was initiated to respond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such as the aging and malfunction of the buildings, the growth of low-cost airlines, and the increase in group travelers. Numerous architectural firms, including Gansam Architecture, participated in this ten-year project until 2018. The

design philosophy of Gimpo Airport is based on “easy and convenient experience.” To create a fast and convenient airport, it upgraded baggage handling facilities and operating systems, reducing processing time from 15 minutes to 5 minutes or less, and also increased the number of security screening stations and installed additional boarding bridges to improve user convenienc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irculation, a total of 533 meters of moving walkways were installed in the wing areas on both sides of terminals, and also the departure waiting rooms were expanded. Another core philosophy that runs through Gimpo

Airport is “Universal design” using symbols and icons. It focuses on intuitive designs to ensure that even foreigners or information-disadvantaged people do not feel uncomfortable and provides one-stop service by integrating scattered convenience facilities and services into the “INFO-HUB ZONE.” In addition, the height of signs, which was difficult to see due to low ceilings, was adjusted as high as possible to strengthen visual stability. As a result, it won an award in the Wayfinding category from the Society for Experiential Graphic Design (SEGD) in 2020.

국내선을 중심으로 새롭게 비상하다

김포국제공항의 역사는 1939년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에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하며 시작됐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군용 비행장으로 기능을 유지하다, 민간항공기 운행과 함께 195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58년에 대통령령으로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고, 1971년 여의도비행장이 폐쇄되고 김포국제공항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여객과 화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몇 번의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2001년 4월에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을 오가던 국제선 비행기는 모두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만 오가는 공항으로 변화하였으나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 간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2003년부터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선이 일부 김포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인천국제공항 신설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으나 국내선 운항은 매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한 시발점이라는 상징이 크며 서울 시민의 세계로 향하는 관문으로 든든히 자리잡고 있다.



A Fresh Takeoff, Focusing on Domestic Flights

The history of Gimpo International Airport began in 1939 when the Japanese Army constructed runways in Bangwhwa-ri, Yangseo-myeon, Gimpo-gun, Gyeonggi-do. During Korean War, it continued to function as a military airfiel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long with the operation of civil aircraft started in 1954, Koreans were able to use runways at times. In 1958, it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Gimpo International Airport by presidential decree, and began to take on its complete shape when Yeouido

Airport was closed and integrated there.

To meet the growing demands for passengers and cargo, several expans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However,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pened in Yeongjong-do, Incheon in April 2001, all international flights that previously operated at Gimpo were transferred to Incheon. Consequently, Gimpo International Airport was briefly changed to a domestic-only airport, but from 2003, some international flights connecting Japan and China started operating there again, becaus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much farther from downtown Seoul than Gimpo one. While international flights have definitely de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 opening of Incheon airport, domestic flights at Gimpo airport are growing every year. Above all, it is a significant place as the starting point that elevated Seoul to a global city, and a familiar and reliable gateway to the world for Seoul citizens.



서울 국제화의 시발점
구분 공항 | 설립 1958 운항, 1958년 공항건물 신축 | 규모 부지면적 730만㎡, 여객터미널 4만 3,600㎡, 화물터미널 1만 1,900㎡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The Starting Point Globalizing Seoul
Classification Airport | Age Operation 1958, Airport Building Reconstruction 1958 | Quantity Site area 7,300,000㎡, Passenger terminal area 43,600㎡ Cargo terminal area 11,900㎡ | Address 112 Haneul-gil, Gangseo-gu, Seoul

건축
Architecture

대한의원 Daehan Hospital

바로크 양식으로 세워진 최초의 공공병원
The first public hospital built in Baroque style





대한제국 시대의 건축 디자인 유산

서울 대한의원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근대 병원 건축물이다. 지금의 서울대학교병원 자리에 부지 3만 평에 병원과 의학교 기능이 복합된 본관, 7개의 병동과 부속시설이 들어섰는데, 당시 한반도 건축 공사비의 10%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초대형 건축 사업이었다. 대한의원은 설계 당시 도쿄의학과 본관을 모델로 삼았으나, 목조가 아닌 빨간 벽돌건물로 설립됐다. 본관은 지금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아치형의 현관과 건물 곳곳의 태극문양, 지붕 위의 액세서리 조형물까지 대한제국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축미를 담았다. 건축 양식은 영국 바로크 건축을 기초로 하여 빅토리아 고딕, 신고전주의 등의 여러 양식을 혼합한 절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의 공통된 특성인데 장식적인 면에서는 네오 바로크가 두드러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계탑으로, 개원 이후인 1908년 5월에 완공되었다. 근대화가 늦어 시계가 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도록 3면으로 제작되어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았다. 본관의 지붕은 앞면에서 봤을 때 사다리꼴 모양을 한 우진각 지붕으로 시계탑과 어우러져 본격적인 서양식 건축물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건물의 구조는 지상 2층으로 현관을 중심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로 직접 현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현관에 차 대는 곳을 만들어 정면 입구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Architectural design heritage from the Korean Empire

Daehan Hospital in Seoul is the earliest modern hospital building in existence. On the site of about 10,000m² whe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now located, a main building combining functions of the hospital

and the medical school, seven wards and auxiliary facilities were built. It was a super-large construction project at that time, which required more than 10%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on the Korean Peninsula. Daehan Hospital was modeled after the main building of Tokyo Medical School at its design stage but was constructed as a red brick building instead of a wooden one. The main building has still remained almost the same since its construction with the arched entrance, Taegeuk patterns throughout the building, and accessory sculptures on the roof, containing the nostalgic architectural beauty of the Korean Empire. Its architectural style is an eclecticism that blends various styles such as Victorian Gothic and Neoclassicism based on British Baroque architecture. These characteristics are common to buildings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Neo-Baroque stands out in terms of decoration.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clock tower, which was completed in May 1908, after its opening. It was designed with three faces so that it could be seen from everywhere at a time when watches were scarce due to late modernization and was appreciated by the Seoul citizens. On a trapezoidal-shaped hip roof of the main building, there is the clock tower in the middle which is a typical element of the baroque style. They show that this building pursues a genuine Western style. The building has two stories and is flawlessly symmetrical with the entrance at the center, and also it distinctively emphasizes the front entrance by creating carriage porches so that one can directly enter the front door by car.

서울에 자리한 대한제국 시대의 의료 중추기관

대한의원은 1907년에 대한제국 내부 소관의 서양식 병원인 광제원, 경성의학교 부속병원, 적십자병원을 통합해 설립되었다. 이것이 근현대 최초의 국립병원인 대한의원이며 의정부 직속으로 운영된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원이 되었다가 경성제국대학에 편입되었지만 대한의원은 제증원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서양식 의료근대화정책의 연장선인 셈이다. 개원 당시부터 당대 동아시아 전역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했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등 전문 분과별로 나뉘진 명실상부 근대적 종합병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부학교실 등 세분화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4년제 의학교육을 실시해 매년 꾸준히 전문 의료 인력을 배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없던 상황에서 전염병 방역 등 보건위생행정을 담당했고, 빈민층 무료진료도 공공기관으로서 대한의원의 몫이었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본관으로 쓰이던 대한의원은 1970년대 말, 병원이 새 건물을 증축하며 지금은 한국 근현대 의학과 서울대학교병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학박물관으로 거듭났다. 매년 학생을 초대해 의료 역사에 대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최초의 공공병원이자 가장 오래된 시계탑 건축물로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The Medical Institution in Seoul Which Was Vital in the Korean Empire

Daehan Hospital was established in 1907 by integrating three Western-style hospit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Empire: Gwangjewon Hospital, the Affiliated Hospital of Gyeongseong Medical College, and Red Cross Hospital. Daehan Hospital was the first national hospital in modern times, operated directly under Uijeongbu, and the best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as wel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aehan Hospital initially served as the Governor General Hospital, then was incorporated into the University of the Gyeongseong Empire. However, it still can be considered as an outcome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modernize the medical system to Western style, starting with Jejungwon. Since its opening, it has boasted one of the best scales and facilities in East Asia at the time. It was undoubtedly a modern general hospital with specialized departments such as internal medicine,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and dentistry. Moreover, it had consistently conducted a four-year

medical education with a detailed curriculum such as anatomy classes, and trained medical professionals every year. On account of the abs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t was in charge of health and hygiene administrative tasks instead, such as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nd free medical treatment for the poor was also its duty as a public medical institution. After libe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ad used it as the main building, then moved out to new buildings in the late 1970s. Now Daehan Hospital is reborn as a medical museum that introduces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medicine of Kore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very year, it invites students to continue education on medical history, and consistently sustains its history as the first public hospital and the oldest clock tower building.



근현대 최초의 국립병원
구분 사적 제248호 | 설립 1907년 3월 10일 설립 | 규모 5,091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1번지
First National Hospital in Modern Times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No. 248 | Age Established March 10, 1907 | Quantity 5,091m² | Address 185, 28-21, Yeongeon-dong, Jongno-gu, Seoul

건축
Architecture

롯데월드타워 Lotte World Tower

전통의 곡선미가 더해진 21세기 서울의 랜드마크
21st-Century Landmark in Seoul with
the Beauty of Traditional Curves



한국 전통의 곡선미를 모티브로 한 세계 5위 초고층 빌딩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서도 조망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국내 초고층 건물의 대표 주자로 손꼽힌다. 완공 당시 세계 5위로 출발한 압도적인 높이는 물론 한국적 곡선미를 담고 유려한 자태와 미감을 자랑한다. 도자기와 붓의 형상을 모티브로 설계되었으며, 위로 향할수록 끝이 점점 좁아지는 원뿔 형태는 한국 전통의 오브제와 단순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부드러운 곡면 외관은 첨단 초고층 건축 기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외관을 표현하기 위한 2만 1,000개의 커튼월과 4만 2,000여 장의 유리창을 갖췄다. 타워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두 줄의 노치(notch) 구간은 타워의 날렵함을 돋보이게 만들며 한강과 남산, 서울의 중심부를 향하고, 밤이 되면 LED 조명을 밝히고 은은한 야경을 한껏 드러낸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한옥 처마의 곡선미와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하였다. 타워 상층부인 435m의 107층부터 123층에서 55m의 최상부 첨탑 구조물에 달하는 총 120m 구간에는 철골 자재를 반복 사용한 다이아그리드(dia grid) 공법을 적용해 독특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The World's Fifth Tallest Skyscraper Inspired by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Curves

Lotte World Tower, which can be seen from Incheon and some parts of Gyeonggi, is one of the leading skyscrapers in Korea. Ranked the world's fifth tall at the time of completion, its overwhelming height presents not only a grand sight but also the graceful streamlined silhouette inspired by the beauty of Korean curves. Designed with motifs of pottery and brush, its conical shape which gradually narrows as it rises, encapsulates the minimal and moderat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objects. The gently curved exterior is also the outcome of advanced skyscraper construction technology. 21,000 curtain walls and 42,000 glass windows were mobilized to complete the sophisticated exterior design. The two rows of notches across the center of the tower highlight its sleekness, facing Hangang River, Namsan Mountain, and the center of Seoul, and light up the LED lights creating a subtle night view. The interior design was also developed with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smooth curve and structural texture of traditional hanok eaves. This unique landmark was completed by applying the diagrid method, which repeatedly uses steel frames for a total of 120m of the upper part of the tower, from the 107th floor which is 435m high, through the 123rd floor, the highest floor, to the 55m-long top spire.





최초의 기록으로 남은 서울 건축 기술의 집약체

롯데월드타워의 무게는 서울 시민 전체를 합한 무게와 같다.

무게를 충분히 지지하기 위해 땅속 38m 깊이의 단단한

암반층에 직경 1m, 길이 30m의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시공해 지반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했다. 기초 시공에 사용된

고강도 콘크리트는 8만 톤에 이르며 초고층 건축을 위해

콘크리트를 500m 상공까지 엄청난 압력의 펌프로 쏘아

올리는 '수직 압송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롯데월드타워는 한국의 첨단 건축 기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집약체다. 두바이의 부르즈할리파보다 55m나 더

긴 세계 최장 길이의 초고속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전망대까지 60초 안에

도달한다.

롯데월드타워의 가장 높은 곳인 117층부터 123층까지는

전망대인 '서울 스카이(Seoul Sky)'가 들어서 있다. 타워

486m의 120층에 마련된 야외 테라스로 나가면 외부 공간에서

서울의 경치를 두루 감상할 수 있으며, 상부 전망대인

118층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로 된 스카이드েক가 있어

478m의 아찔한 높이에서 발 아래로 서울과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45mm 접합 강화유리로 제작된 세계 초고층

빌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데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명실상부 서울 시민이 추억을 공유하는 새로운 초고층

랜드마크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또 2017년에는

100층 이상 건물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에서 골드 등급을 인정받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더했다.

The Integration of Seoul's Architectural Technology, Holding Several First-Ever Records

The weight of Lotte World Tower is the same as the

total weight of Seoul citizens. In order to firmly support

the weight, 108 concrete piles with a diameter of 1m

and a length of 30m were constructed on a hard rock

layer 38m deep underground to strengthen the ground

even further. 80,000 tons of high-strength concrete was

used in the foundation construction, and the "concrete

pumping technology"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hich shoots concrete up

to 500m in the sky with an enormous pressure pump,

for high-rise construction. As such, Lotte World Tower

is the integration of Korea's cutting-edge architectural

technologies. The world's longest ultra-high-speed



21세기형 수직 도시 건물

구분 복합문화공간 | 설립 2016년 12월 22일 | 규모 연면적 42만 310㎡,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 555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21st Century Urban Skyscraper

Classification Multi-cultural Complex | Age December 22, 2016 | Quantity Gross area 420,310㎡ (123 stories above ground, 6 stories underground) Height 555m | Address 300 Olympic-ro, Songpa-gu, Seoul

double deck elevator, which is 55 meters longer than Burj

Khalifa in Dubai, reaches the observatory in 60 seconds,

six times faster than regular elevators. From the 117th

floor to the 123rd floor, the highest part of the tower,

there is an observatory called "Seoul Sky." Visitors can

go out to the outdoor terrace on the 120th floor, which

is 486m high, and enjoy the scenery of Seoul from the

outside, to be exact, from the air. On the 118th floor, the

upper observatory, there is the world's highest glass sky

deck, made of 45mm laminated tempered glass, where

visitors can overlook the scenery of Seoul and Hangang

River under their feet from a dizzying height of 478m. It

was also list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the highest deck among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Today, Lotte World Tower is undoubtedly writing history

as a new high-rise landmark to share special memories

with Seoul citizens. In addition, in 2017, it was the first

building with more than 100 floors to receive a gold rating

from the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LEED), and uses 15% of its total

energy consumption as eco-friendly energy, adding value

as a sustainable asset in Seoul.

건축
Architecture

Myeongdong Theater

명동예술극장

The Origin of Seoul's Culture and Arts Contained in Modern Theater Culture

근대 극장문화에 담긴 서울 문화예술의 발원





옛 명동국립극장의 외관과 현대적인 무대 시스템

1920년대부터 명동을 중심으로 퍼진 문화예술의 부흥은 1934년 바로크 양식의 명동예술극장이 들어서며 절정을 이뤘다. 다마타 기쓰지(玉田橘治)가 설계하고 미키 합작회사가 시공한 명동예술극장은 17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건축 양식을 차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극적인 공간 표현과 풍부한 장식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1975년 매각되었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매입하면서 옛 극장으로의 기능 변경을 주제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2009년 리모델링을 담당한 삼우건축은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극장 외부는 페인트와 회벽을 제거한 후 최대한 보존하고 일부는 다시 복원했다. 내부로 들어서면 배우들의 소품, 의상, 사진 등 명동예술극장의 역사가 전시된다. 공연 공간은 가마의 불길 속에서 탄생한 도자기의 형상으로 구상되었다. 건물 외부는 낮이면 보존 벽체의 배경으로서 명동 거리를 투영하고, 밤에는 공연 시작과 함께 빛을 발산하며 거리의 중심으로

되살아난다. 정적인 외관이 아닌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명동의 풍경을 담아내는 유동적인 외관으로 디자인됐다. 객석에도 연극적 특성에 맞는 변화를 꾀했다. 객석의 시각적 사각을 없애고 음향 시설 또한 연극뿐 아니라 음악 공연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복합 예술 장르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무대는 정면과 좌우가 객석으로 둘러싸여 관객과 배우, 관객과 관객의 친밀감(intimacy)을 높이고 연극 전용 극장으로서 음이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했으며, 관객에게는 공연의 일체감과 충만감을 준다.

The Exterior of Old Myeongdong Theater and the Modern Stage System inside

The revival movement of culture and art, which had spread around Myeong-dong since the 1920s, culminated with the opening of the Baroque-style Myeongdong Theater in 1934. Myeongdong Theater, designed by Kitsuji Tamata

and constructed by the Miki Joint Venture, borrowed 17th-century European architectural style, drawing huge attention at the time for its dramatic spatial expression and splendid decorations. However, after being sold in 1975, it was acqui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gain, and faced a new challenge with the theme of finding desirable functions as an old historical theater. Samoo Architects, which was in charge of the remodeling project in 2009, preserved the antique exterior of the baroque-style theater as much as possible and partially restored it after removing paint and plaster. Inside the building, the history of Myeongdong Theater is displayed, including the actors' props, costumes, and photos. The performance venue was conceived as a pottery shape born from the kiln's fire.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was designed in a way that emphasizes

fluidity capturing the changing scenery of Myeong-dong over time, rather than a static appearance. During the day, the preservation wall of the theater becomes the background reflecting Myeong-dong streets, and at night when the performance begins, it is revived as the center of the street by radiating light. The audience seats were also renovated to reflect the theatrical characteristics. By eliminating blind spots in the audience seats and installing sound facilities that can be used not only for plays but also for music events, it has become able to accommodate a wide range of art genres. The stage is surrounded by seats from the front, left and right to bring up intimacy between audiences and actors, as well as among audiences, and it is designed to transmit sound clearly, as a theater dedicated to plays, in order to convey the audience a sense of unity and satisfaction.

근대 극장문화의 산실이자

서울 문화예술 공간의 발원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에 위치한 명동예술극장은 일제강점기 때에 메이지자(明治座)로 불렸다. 도쿄 극장을 모방한 메이지자는 콘크리트 건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를 자랑했다. 관객 수용 인원도 총 1,178명에 달했다. 광복 이전에는 주로 일본 영화를 상영하다가, 1961년까지 시공관으로 활용되면서 수많은 연극과 오페라 등이 공연되었고, 당대의 극작가와 연출가, 스타 배우들이 활동했다. 1962년 국립극장으로 활용되던 당시에는 명동의 예술 르네상스를 이끌었으나, 국립극장의 남산 이전으로 산하 예술극장이 되었고, 1975년 국립극장 신축비용 문제로 대한투자금융에 매각되었다가 시민과 문화예술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 다시 건물 매입을 결정했다. 시민과 예술인이 직접 되찾은

서울 문화예술 공간인 셈이다.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극장 중 유일하게 1930년대 당시의 외관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문화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도 지녔다. 현재는 국립극단 전용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명동 거리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며 시민에게 다양한 연극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The Birthplace of Modern Theater Culture and the Basis of Cultural and Artistic Space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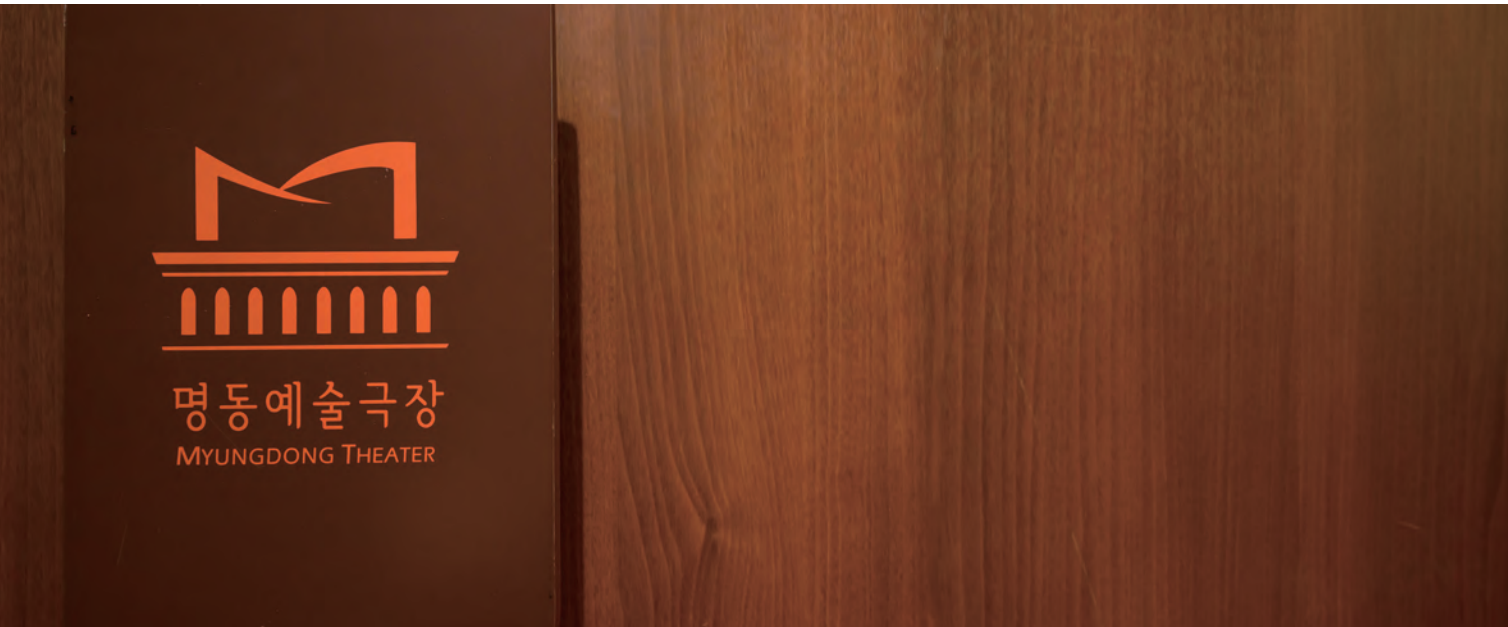
Myeongdong Theater, located in Myeongdong 1-ga, Jung-gu, Seoul, was called *Meijiza* (明治座)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ijiza*, which imitated Tokyo Theater, was a grand concrete building with 4 stories and 1 basement floor, and also could accommodate

audiences of up to 1,178 at the maximum. Although Japanese films were mainly screened before liberation, as the city of Seoul took over the theater and used it as *Sigonggwan* (a civic theater), numerous plays and operas were performed, and playwrights, directors, and star actors of the time displayed their talent until 1961. While it was used as National Theater in 1962, it was the frontier of the art renaissance in Myeong-dong. As National Theater moved to Namsan, however, it became an affiliated art theater, then sold to Daehan Investment & Finance in 1975 to secure the cost of building National Theater. Nevertheless, the theater was brought back in 2004 through the efforts of citizens and cultural and artistic groups. In other words, Seoul citizens and artists

have reclaimed this valuable place for the culture and art of Seoul on their own. Myeongdong Theater is the only theater in downtown Seoul that preserves its exterior from the 1930s, which means it has historical value that vividly shows the early modern architectural culture of Seoul. Currently, it is used as a theater exclusively for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it still presents various theatrical works to citizens to this day, lighting up the streets of Myeong-dong.



명동의 연극 전문 공연장
구분 복합문화예술센터 | 설립 1934년 10월 7일 | 규모 연면적 4,923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35
A Theater Specialized in Plays in Myeongdong
Classification Culture and art complex | Age October 7, 1934 | Quantity Gross area 4,923m² | Address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한옥의 회랑과 안마당을 도입한 현대적 건축 양식

광화문 광장을 향해 활짝 열린 계단과 서양의 신전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넓은 기단, 웅장한 열주에 길게 엮은 기와집 형태의 처마 지붕까지. 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시민의 열린 쉼터이자, 대한민국 주요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서울의 사랑방이다.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인 엄덕문이 설계했으며, 서양식 건축 기법에 한옥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차용해 색다른 운치를 자아낸다. 벽에 새겨진 문양 역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완자무늬와 격자무늬 장식을 갖추고 있다. 한편, 웅장한 고대 거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통을 모티브로 한 민족주의 성향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한국 전통 건축의 직설적 모방에서 벗어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옥의 지붕과 기둥, 기단의 형태는 살리되 서양 고전주의 분위기를 더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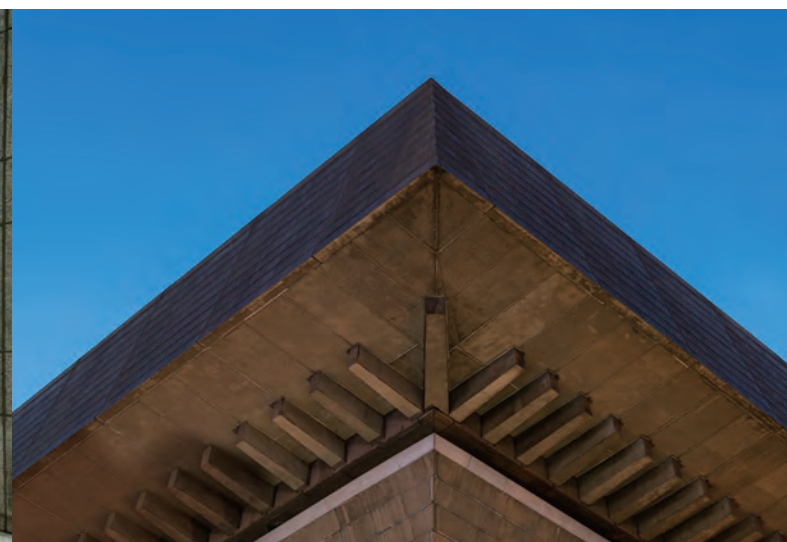
낸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향해 뻗은 계단과 이어지는 건물 뒤편 분수 광장은 ‘공연장’이 가진 열린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동시에 한옥의 화랑과 안마당 개념을 도입한 형태. 정면으로 보이는 양쪽 벽의 비천상 부조는 한국 고미술에서 영감을 얻은 엄덕문의 디자인이자 김영중 조각가의 작품이다. 넓고 웅장한 건축에 예술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뤄 서울 도심 세종로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다.

A Modern Architectural Style Combined with Korean Traditional Corridor and Courtyard

From the wide-open staircase toward Gwanghwamun Square, through the wide stylobate often found in Western temple architecture, and finally to the long eaves in the form of a tiled roof of hanok on the top of magnificent colonnades.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s an open lounge for Seoul citizens and a *Sarangbang* (a guest room) in Seoul where Korea's major performing arts take place. It was designed by Aum Duck Moon, a first-generation Korean architect, and actively combines hanok motifs with the Western architectural style to create a unique taste. The patterns engraved on the walls are also designed a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 including swastika patterns and lattice patterns that can not be seen anywhere else in the world. Someone criticizes that its magnificent ancient megalithic structure shows a nationalism emphasizing the greatness of Korean tradition but it can be seen a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thout directly

imitating it. For example, the shape of the roof, pillars, and stylobate of hanok was employed as motifs, but it was reinterpreted in a way that integrates with a hint of Western classicism. The stairs leading toward Gwanghwamun Square and the fountain plaza behind the building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 space of a “concert hall” while introducing the concept of corridors and courtyards in hanok. The reliefs of *Bicheon* (flying devas) on both walls facing the front are the works of architect Aum Duck Moon and sculptor Kim Yeong-joong, inspired by Korean antiques. Sejong Center embraces the soft beauty of art while being a massive and grand building, making it a symbolic building in Sejong-ro, downtown Seoul.





서울에 소재한 대표적 공연장이자 공연예술의 중심지
세종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이다. 서울시가 주관한 1973년 현상설계로 채택되어 완공까지 5년이 걸렸으며, 개관과 동시에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종합문화공간이자 한국 공연문화의 산실이 됐다.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예술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1999년 더 많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재탄생했으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출범은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민간문화예술 활성화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공연장의 역할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관객이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예술이 움트는 인큐베이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 2007년부터 세종대극장 리모델링에 이어 세종체임버홀, 세종M씨어터, 예술동 증축, 세종미술관, 세종S씨어터 등 외적 확장을 진행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로 동행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서울시 문화예술 허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광화문 광장이 시민에게 개방되고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서면서 ‘세종’의 이미지가 두드러졌고 2022년부터 광장이 세종문화회관과 통합되도록 개편되어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A Representative Concert Hall and the Center of Performing arts Located in Seoul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was esta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ion in Seoul. Its design was adopted through a design competition in 1973 hel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t took five years to complete. Upon opening, it became a favorite cultural space for Seoul citizens and the cradle

of Korean performance culture. Every year, major art performances leading Korean culture are presented at the Sejong Center. In 1999, in order to reach even more Seoul citizens, it was reborn as a form of foundation, which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to activate private culture and art emphasizing creativity and self-reliance. By the 2000s, it has grown into a cultural space where artists and audience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s well as a performance venue, expanding the scope of its role to an incubator that nurtures art. In addition, Since 2007, it has carried out external expansions, including remodeling of Sejong Grand Theater and extension of Sejong Chamber Hall, Sejong M Theater, Sejong Museum of Art, Sejong S Theater, and art buildings, and held various cultural events for citizens such as art outreach programs to fulfill its role as a hub for culture and art in Seoul. As Gwanghwamun Square was opened to the public and the Statue of King Sejong was installed, the image of ‘Sejong’ was emphasized further, and the square has been adjusted to connect to the Sejong Center from 2022, even increasing accessibility of the center.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문화공간
구분 북합문화예술센터 | 시대 1978년 4월 14일 설립 | 규모 건축면적 53,202㎡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Multi-cultural Complex Representing Seoul
Classification Culture and art complex | Age April 14, 1978 | Quantity Building area 53,202㎡ | Address 175 Sejong-daero, Jongno-gu, Seoul

건축
Architecture

전쟁기념관

War Memorial of Korea

평화와 신념을 기억하는 숭고한 기념 건축
Sublime Architectural Monument Remembering Peace and Faith



전쟁의 교훈을 담은 장중한 건축미

전쟁기념관은 민족의 호국전쟁과 관련한 유무형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 영구히 보존할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은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공간에 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주변이 자연녹지임을 고려하여 공원에 위치한 기념관이 되도록 자연경관과 조화시켜 전체 대지를 쾌적한 도시고원으로 만든다는 전제를 세웠다. 기념관 입구에서 마주하는 원형광장은 전면 차로보다 2.4m 높게 설계해 실제보다 더 멀고 더 높아 보인다. 건물 2층에 있는 중앙홀도 자연스럽게 6m 더 높아지는데 공간적 수직 이동에 따라 관람자의 감정도 이에 비례하여 고조시키려 했다. 전체적으로 서구 고전주의를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기념비적인 성격의 건축물답게 엄숙한 느낌으로 설계됐다. 전쟁기념관으로서 지녀야 할 상징성과 기념성을 조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방향이 정면성을 지니면서 중심축에 대해 좌우대칭이 되도록 배치하여

경건함과 장엄함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방문객은 정문에서 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건물의 정면과 마주한다.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사자 명비가 새겨진 거대한 열주는 기념관은 기념관 내부로 도달하기까지 회랑 좌우로 이어져 있다. 이것은 그리스 신전의 열주 양식을 가져왔고 중앙홀부터 호국추모실, 살수대첩실까지 연속적인 공간 처리는 이집트 신전의 진입 공간을 가져온 것이다. 광장과 건물, 주변의 도로와 외부 공간을 연계하는 캐노피는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형상화했다.

Solemn Beauty of Architecture Which Contains the Lessons from the War

The War Memorial of Korea was designed to provide an exhibition space to discover and collect tangible and intangible materials related to national wars of patriotism and preserve them permanently. The architects in

charge of the design focused on giving this building the meaning of remembering the war and longing for peace. Moreover, considering the natural green landscape, they set the premise of harmonizing the memorial with its surroundings, making the whole site a pleasant urban plateau and the building appear to be in the park. The circus, facing the entrance is designed to be 2.4m higher than the road in front, making it look farther and higher than it actually is. The central hall on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is also naturally higher by 6m, which is intended to heighten visitors' emotions along their vertical movement. Overall, it is based on Western classicism as a motif and tries to highlight a solemn feeling to suit the monumental character of the building. In order to express the significance and compassion that a war memorial should have and to convey reverence and solemnity through the compositions of the building, two wings of the building are arranged symmetrically, facing the front. Therefore, visitors face the front of the building continuously from the main gate to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Huge colonnades engraved with the names of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are lined up on both sides of the corridor until enter the memorial building. These were inspired by the colonnade style of Greek temples, and the continuous flow from the central hall through the Memorial Hall to the War History Room borrowed the entry space of Egyptian temples. The canopy that connects the circus, the memorial building, nearby roads, and the outside area embodies Admiral Yi Sun-sin's *Geobukseon* (Turtle Ship), which is well known in the history of the world's naval warfare.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서울의 상징

전쟁기념관은 1990년 9월 옛 육군본부 자리에 착공하여 1993년 12월 완공했으며, 1994년 6월 10일 개관했다. 연건평 2만 5,000평 규모에 호국추모실을 비롯해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다. 호국추모실은 역대 수많은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선열들의 호국 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민족 자존의 혼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16만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 명부가 봉안되어 있다. 한국전쟁실에는 북한의 남침 배경, 전쟁의 경과, 휴전협정 조인까지의 과정과 전시 국민 생활 등 총체적인 전쟁의 실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쟁 당시의 상황을 생생한 디오라마 모형으로 구현해냈다. 이 밖에 통일신라 때부터 베트남전쟁, 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병에 이르기까지 총

12회의 해외 파병 관련 의의, 한국군의 활약상과 성과 등이 기록·전시되어 있고, 국군발전실에는 한국군의 창군에서부터 오늘날의 국군으로 발전하기까지 군사제도, 무기 및 장비, 복식과 교육훈련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다.

The Symbol of Seoul Wishing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Construction of the War Memorial of Korea began in September 1990 on the site of the former Army Headquarters, was completed in December 1993, and it opened on June 10, 1994. With a total floor area of about 82,600m², it consists of six exhibition rooms, including Memorial Hall, War History Room, Korean War

Room, Expeditionary Forces Room, ROK Armed Forces Room, and The Exhibition of Large Military Equipments. The Memorial Hall is a space to honor the patriotic spirit and achievements of the ancestors who defended fatherland in numerous wars and to show the spirit of national independency. Also, the list of about 160,000 war dead is enshrined there. In the Korean War Room, the overall truth of the war is demonstrated, including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invasion, the timeline of the war,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armistice agreement, and people's lives during wartime. In the Expeditionary Forces Room,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to the Vietnam War and the dispatch of the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Force, the significance of 12 overseas dispatches along with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ROK military are archived and displayed. The ROK Armed Forces Room show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army from the time of its founding to today's armed forces through the military system, weapons, equipment, uniform and the course of field training.



우리나라 전쟁사 종합박물관
구분 기념관 | 설립 1994년 6월 10일 | 규모 10만 5,000m² | 설계자 이성관, 곽홍길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War History Museum of Korea
Classification Memorial hall | Age June 10, 1994 | Quantity 105,000m² | Designer Lee Sung-gwan, Kwak Hong-gil | Address 29 Itaewon-ro, Yongsan-gu, Seoul

건축
Architecture

정동교회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고딕 양식에 절제미를 더한 한국 기독교의 효시
The Beginning of Korean Christianity with
a Moderate Gothic Style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에 보존된 고딕건축

정동제일교회는 '한국 감리교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곳으로 한국에 전래된 개신교의 살아있는 역사다. 교회 정문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뱀엘예배당이 눈에 띈다. 교회가 설립되던 1898년 당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통적 라틴십자형 고딕 양식을 갖추고 있어 단연 장안의 명물로 손꼽혔다. 정동제일교회의 외부는 고딕 건축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내부는 간결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딕 양식을 가져오되 과도한 장식과 육중함은 배제하고 신앙의 높은 권위는 함축적으로 담았다. 돌을 다듬어 반듯하게 쌓은 기단은 조선시대 목조 건축의 솜씨도 엿볼 수 있다. 붉은 벽돌로 마감한 예배당 외부는 견고함을 상징하고, 내부의 흰 회벽은 거룩함과 깨끗한 신앙심을 드러낸다. 15m 높이 네모난 종탑은 유럽 전원풍 복고 양식을 담아 지금까지 이어진다.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구성하면서도 창과 기둥에는 적절하게 장식이 더해졌다. 특히 창틀은 뾰족 아치를 변형하여 클로버 형태의 삼엽형을 기본 형태로 삼았다. 이 같은 정동제일교회의 양식은 명동성당과 더불어 이후 한국 교회의 전형으로 자리 잡는 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 또 일본 요코하마에서 만들어 들어온 강단 성구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것으로 이후 모든 교회들이 같은 형태의 성구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1918년 한국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으며, 1977년 문화공보부에 의해 19세기 건축물인 붉은 벽돌 예배당이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되었다.

Gothic Architecture Preserved in the First Protestant Church in Korea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is called “the Mother Church of Korean Methodism” and is a living history of Protestantism in Korea. Entering the main gate of

the church,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visitors’ eyes is the Bethel Chapel. At the time the church was founded in 1898, it received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was a traditional Latin-cross-shaped Gothic church that had a large scale that could accommodate 500 people. The exterior of church follows the tradition of Gothic architecture, but the interior creates a neat and elegant atmosphere. When the Gothic style was applied to the building, the focus is to implicitly express high authority of faith rather than excessive decorations or overwhelming scale. The stylobate, which was carved out of stones and piled up neatly, shows the skills of wooden architec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exterior of the chapel, which is finished with red bricks, represents solidity, and the white plastered walls of the interior reveal holiness and pure faith. The 15-meter-high square bell tower features the European rustic retro style. While the tower was constructed concisely using red bricks, proper decorations were added to the windows and columns. In particular, for its window frames, a trilobed shape reminding a clover was taken as the basic pattern by modifying the pointed arch. As such, the style of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along with Myeongdong Cathedral, pioneered church architecture in Korea as a model of Korean churches. For example, Chungdong Church was the first Korean Protestant to introduce a pulpit in its chapel, which was imported from Yokohama, Japan, and since then, all churches produced and used the same type of pulpit. In 1918, the first pipe organ in Korea was installed there, and in 1977, the 19th-century red brick chapel was recognized for its architectural design value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and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256.



근대 초기의 서울을 담아낸 유산이자 종교공간

정동제일교회는 1898년 준공한 한국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건축물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교회다.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했으며 정동제일교회가 자리한 곳은 미국공사관, 이화학당, 배재학당과 인접했던 곳으로, 기독교 전파와 교육 사업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립 당시에는 창문을 통해 예배 모습을 비롯한 구경꾼들로 혼잡을 빚었다고도 전해진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혼례도 이곳에서 열렸다. 예배당이 건립된 이듬해인 1899년 7월 14일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학생 두 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리며, 서울의 신식결혼 문화를 주도했다. 또한 벨엘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정동거리는 당시 문학예술의 주요 활동처로, 근대 서울의 풍경을 묘사하는 소설에서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곤 했다. 벨엘예배당은 1916년 복원을 증축한 데 이어 1926년 1,500명 수용 규모로 60평을 증축하면서 원래의 라틴십자가형에서 지금의 사각형으로 변했다. 한국전쟁 당시엔 폭격을 받아 예배당의 절반 가량이 무너져 내렸으며, 1977년 문화재로 지정된 뒤 1987년 화재로 소실된 내부 보수와 1990년 종탑 보수, 2001년 건물붕괴 우려에 따른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종교적 공간인 동시에 광복이전과 이후, 서울의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A Historical Heritage and Religious Sanctuary Reflecting Seoul in the Early Modern Era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completed in 1898, is the first Protestant church building in Korea and the representative church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Established by American missionary Appenzeller, it was located next to the U. S. Legation, Ewha Hakdang (Ewha Girls' School), and Baejae Hakdang (Baejae Boys' School), and so it carried out Christian propagation and education projects centered on this area. It is said that just after its establishment, it was crowded with onlookers peeping at the worship service through the windows. Korea's first Western-style wedding ceremony was also held here. On July 14, 1899, the year after the chapel was built, two pairs of students from Baejae Hakdang and Ewha Hakdang held a joint wedding ceremony, leading the new wedding culture in Seoul. In addition, since Jeong-dong Street, centered on Bethel Chapel, was the heart of literature and art at the time, it often appeared as a major background in novels depicting the scenery of modern Seoul. The Bethel Chapel was expanded in 1916 on the north side, followed by an extension of about 200m² to accommodate up to 1,500 people in 1926, changing the form of the building from the original Latin cross shape to the present square shape. During the Korean War, about half of the chapel collapsed due to bombing, but after being designated as Historic Site in 1977, several repair works were carried out such as fire damage repair in 1987, the bell tower repair in 1990, and a collapse preventive repair in 2001, resulting in its present state.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is not only a religious space but also a space that has experienced social changes in Seoul from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

구분 사적 제256호 | 설립 1897년 12월 26일 | 규모 1,133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2-2

The First Protestant Church in Korea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No. 256. | Age December 26, 1897 | Quantity 1,133m² | Address 32-2 Jeong-dong, Jung-gu, Seoul

건축
Architecture

청와대

Cheongwadae

한국 정치의 심장에서 시민의 품으로
From the Heart of Korean Politics to the Arms of citizens





현대기술로 재현한 전통 건축

북악산을 등지고 앞에는 경복궁, 양옆으로 낙산과 인왕산을 끼고 지어진 청와대 본관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높아진 한국 위상과 민족정기의 맥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아 1991년 9월 4일 완공됐다.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물이다. 춘추관의 뒷면에는 수려한 경관의 북악산이, 그리고 전면에는 서울의 청계천과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의 어울림을 극대화했다. 묘하게 끝이 곡선으로 말려 올라간 지붕선과 짙은 청색의 기와로 마감된 지붕 색감은 주변의 궁궐경관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했다. 짙은 청색 기와로 마감된 지붕 색감은 금강송을 끼고 펼쳐진 넓은 잔디 마당과 함께 전통 건축의 맛을 더한다.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은 한옥의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건물의 규모와 안전성을 고려해 국내산 철골과 콘크리트, 신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청와대 본관의 화려한 팔작지붕은 청기와 15만 장을 구워 올린 결과물이다. 이외에도 곳곳에 전통 한옥의 상징이 드러난다. 지붕 중앙 마루인 옹마루 양 끝에는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난간대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계단 옆을 구름과 태극무늬로 장식한 소맷돌은 경운의 상서로운 기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창덕궁 주합루 월대 계단 소맷돌을 복여냈다. 본관 문살도 궁궐에서 쓰는 꽃무늬 살대로 쇠 소재로 복원해 덧댔다. 또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마당에는 소나무 22그루를 심어 공식 행사가 열리던 궁궐의 품위를 재현했다.

Traditional Architecture Reproduced with Modern Technology

Built with Bugaksan Mountain at its back, Gyeongbokgung Palace in front, Naksan Mountain and Inwangsan Mountain on both sides, the main building of Cheongwadae was completed on September 4, 1991, to revive Korea's status and national spirit, which had elevated since the 1988 Seoul Olympics. The main building of Cheongwadae and the Chunchugwan(press center) are buildings that pursue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t the back of Chunchugwan is Bukaksan Mountain with beautiful scenery, and at the front

is Seoul's Cheonggyecheon Stream and Hangang River, maximizing harmony with nature. The rolled-up roof line with a subtle curve and the color of the roof finished with dark blue roof tiles were designed to get along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including old palaces and nature. The color of the roof finished with dark blue roof tiles accentuates the charm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long with a wide lawn with Geumgangsong pine tree. The main building and Chunchugwan took the hanok motif in terms of design, but in terms of materials, domestic steel frames, concrete, and new materials were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and safety of the buildings. The gorgeous hipped-and-gable roof of the main building is a masterpiece completed by arranging 150,000 pieces of dark blue roof tiles. Besides, various symbols of traditional hanok are found everywhere. At both ends of *Yongmaru* (the main ridge) in the center of the roof, as in Geunjeongjeon Hall in Gyeongbokgung Palace, dragons are ascending to heaven holding *yeouiju* (mythical marbles) in their mouths. The handrail was inspired by Geunjeongjeon Hall as well. The stone railings standing on the edges of the stairs and decorated with clouds and *Taegeuk* patterns borrowed from the stone railings of Woldae stairway of Juhamnu Pavilion in Changdeokgung Palace, which represents the mysterious energy of mystic clouds excellently. Muntins of the main building were also used by transforming the wooden ones with floral patterns used in palaces into metal. Also, in the yard leading from the main gate to the main building, 22 pine trees were planted to reproduce the dignity and authority of the palace where official events were held.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이자 국민의 쉼터로

과거 청와대는 시민이 진입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심장이자 권력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온전히 국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과 상춘재까지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청와대의 완전한 개방으로 광화문에서 북악산까지 이어지는 길은 국민의 쉼터이자 서울의 새로운 문화 관광지로서 재탄생했다. 개방 이후 하루 평균 2만 4,000여 명의 시민이 오가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근대 역사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청와대답게, 살아 숨 쉬게, 국민 속 더 깊게'라는 콘셉트로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자연수목, 전통문화재 등 다채롭고 풍부한 전시, 공연, 체험이 포함된 연중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역사 문화공간으로서 면모를 확장하고, 관람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환경도 대폭 강화하는 청와대는 'K-관광의 랜드마크'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A New Cultural Tourist Attraction in Seoul and a Haven for the People

In the past, Cheongwadae was the heart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center of power, which was greatly difficult for citizens to enter. However, as the presidential office was moved to Yongsan on May 10, 2022, Cheongwadae was completely reborn as a public space. The main building, Yeongbingwan (guesthouse), Nokjiwon Garden and Sangchunjae (reception room) have all been transformed into spaces that can be enjoyed by everyone. With the complete opening of Cheongwadae, the road from Gwanghwamun to Bugaksan Mountain has been reborn as a resting place for the people and a new cultural tourist attraction in Seoul. Since its opening, an average of 24,000 citizens have visited there every day,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internally examining plans to reconstitute Cheongwadae into a modern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 that navigates its historical contex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so presents a year-round planning program that includes a variety of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participatory activities, such as presidential history, culture and arts, natural trees, and traditional cultural assets, under the slogan of “Like Cheongwadae, Living and Breathing, Deeper into the People.” Cheongwadae, which is strengthening its aspect as a global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 visit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and significantly improving its guidance system, convenience facilities, and environment to respond to visitors' curiosity and interest, is now making a new history as a “landmark of K-tourism.”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실이었던 건축물
구분 집무실 | 설립 1961년 1월 1일 | 규모 대지면적 25만 3,505㎡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Buildings That Used to be the Official Residence and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lassification Office | Age January 1, 1961 | Quantity Land area 253,505㎡ | Address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건축
ArchitectureCOEX
코엑스K-콘텐츠와 함께 각광받는 대한민국의 마이스(MICE) 산업의 리더
A Leader in MICE Industry in Korea Which is in the Spotlight with K-Content

우리 디자인과 세계 디자인이 만나는 허브

별마당 도서관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동선 체계를 가진 코엑스는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대표적인 전시시설이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중추적인 장소다. 서울 디자인 아트페어를 비롯한 다양한 디자인 전시가 코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한국종합무역센터는 1979년부터 한국종합전시관으로 운영되던 곳을 규모와 기능을 국제화하기 위해 대단위 국제 시설단지로 조성한 것이다. 일본의 니켈 세케이 사무소가 설계하고 원도시건축과 정림건축이 참여하여 1987년에 완공되었다. 2000년 5월 아시아 최대의 지하 쇼핑 공간으로 문을 열었으며 2006년 리모델링을 통해 상업시설로의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복합 지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코엑스의 디자인 콘셉트는 The Unfolding Sky, 그리고 The Urban River. The Unfolding Sky는 지하 상업시설과 지상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업시설 유형이다. 지하철역 부근에 새로 구축된 넓은 아트리움 공간을 구축해 상업 활동을 통한 공용 공간으로 디자인했으며, 이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인 삼성동의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와 연결된다. The Urban River는 비위계적인 도시 경험을 촉발하는 공간적인 장치이다. 리모델링된 코엑스몰은 총 13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이는 주변의 도시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006년 4월에 개관한 코엑스아티움도 아이스 큐브(Ice Cube) 디자인을 형상화한 외관으로 이목을 끌었다.

The Hub Where Korean Design Meets the Global Design

COEX, which has a radial circulation system centered on the Starfield Library, is a representative exhibition facility with 4 floors above ground and 4 floors below ground, and is a key plac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promote them to the world. Various design exhibitions, including the Seoul Design Art Fair, are held at COEX. Korea Exhibition Center, which had been in operation since 1979, was expanded into a large-scale international trade complex to internationalize its size and function, hence, the current Korea Trade Center Seoul was established. It was designed by Nikken Sekkei LTD. in Japan and completed in 1987 with the participation of Wondoshi Architecture and Junglim Architecture. It opened in May 2000 as Asia's largest underground shopping mall, and through remodeling in 2006, it was reborn as a new underground multi-cultural complex, breaking away from its former image as a commercial facility. The design concept of the new COEX is "The Unfolding Sky" and "The Urban River." The Unfolding Sky is a new type of commercial facility that connects underground commercial facilities with above-ground spaces. A new broad atrium space was placed near the subway station to utilize it as the common space for commercial activities, and this design is associated with the dynamic urban atmosphere of Samseong-dong, the center of finance and trade. The Urban River is a spatial device that provokes a non-hierarchical urban experience. The remodeled COEX Mall has 13 entrances, which organically connect it to the surrounding urban areas. COEX Artium, which opened in April 2006, also attracted attention with its distinctive exterior that embodies the Ice Cube design.





대중문화 콘텐츠가 교류하는 서울 최대의 종합전시관

1979년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전시장의 건설이 추진되었고 코엑스는 그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그때부터 여러 전시와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 월드컵 미디어센터,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2013년 UFI 총회,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총회, 2022년 세계산림총회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코엑스몰과 코엑스아티움의 증설로 문화 예술로도 그 영역을 확장했다.

코엑스는 편리한 교통과 통신, 여기에 첨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두루 갖춰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카로 손꼽힌다. 연간 200회 이상의 국내 전시회와 2,500회 이상의 국제회의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코엑스는 K-팝, K-아트 등 K-콘텐츠의 부상과 더불어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Seoul's Largest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Where Pop-culture Content Interacts

In 1979, as part of the government's export promotion policy, the construction project of a trade exhibition center was advanced, and COEX was introduced in that procedure. Since then, it has held various exhibitions and

conferences and established itself as an influential hub, for example, the 2000 Asia-Europe Meeting(ASEM), the 2002 World Cup Media Center, the 2010 G20 Leaders' Summit,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the 2013 UFI Global Congress, the 2014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2022 World Forestry Congress, and so on, a number of significant events were successfully held at COEX. By adding COEX Mall and COEX Artium, it has expanded its scope to culture and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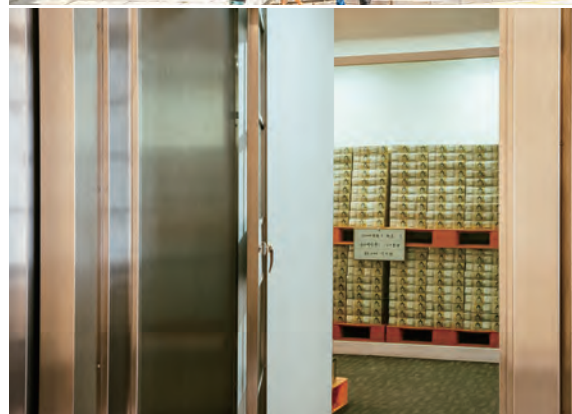
COEX is regarded as a mecca for global business, with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cutting-edge business infrastructure. Coex, which hosts more than 200 domestic exhibitions and more than 2,500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events annually, is expanding and diversifying its programs and services along with the rise of K-content such as K-Pop and K-Art.



서울 최대의 무역전시장
구본 종합전시관 | 설립 1979년 3월 | 규모 3만 6,364㎡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Seoul's Largest Trade and Exhibition Center
Classification Exhibition Center | Age March 1979 | Quantity 36,364㎡ | Address 513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건축
Architecture한국은행 본관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한국 화폐의 디자인 창고
A Design Treasure House of Korean Currency



종합 예술품인 화폐 디자인의 생산지

화폐는 그 나라의 정서와 기술의 집약체다. 고유한 디자인 뿐 아니라 첨단 기술과 용지, 잉크, 인쇄 장치의 최적 조합을 빚어내는 정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나라의 은행권을 자국 인쇄시설에 의해 제조하는 국가는 40여 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은행권 인쇄는 물론 인쇄용지를 자체 해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1909년 최초의 은행 건물로 문을 연 한국은행 본관은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한국 화폐 디자인의 역사를 비추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초기 근대 건축물로서 유구한 역사성과 건축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1년 국가중요문화재(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다쓰노 긴고(辰野金呉)가 설계한 한국은행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19세기 네오 바로크를 중심으로 북유럽 르네상스 등 여러 양식을 혼합한 절충주의 건물로서 실용성과 견고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외관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물 정(井)’자 모양이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석조건물의 이미지인데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이며 외벽은 동대문 밖에서 채석한 화강석으로 마감되었다. 이 건물에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화강암이 지닌 견고하고 육중한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건립 당시 내부 바닥은 목재를 사용하고 천정은 석고로 마감했으며, 건물 지하에는 조선 최대의 대형금고가 있었다. 또한 1910년에 화폐를 운반하는 수압식 승강기가 설치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로도 알려졌다.

The Producing Center of Currency Design, a Comprehensive Work of Art

Currency is the condensation of a country's emotions and technology. Because it requires not only unique design, but also cutting-edge technology and precision



건축 Architecture | 건물 한국은행 본관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to create the optimal combination of paper, ink, and printing device, there are only about 40 countries worldwide that manufacture their own banknotes with their own printing facilities, and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not only prints banknotes but also produces printing paper on its own. Opened in 1909 as the first bank building, the main building of the Bank of Korea is now the Bank of Korea Money Museum, introducing the history of Korean currency design. It was also designated as State-Designated Heritage (Historic Site) in 1981 in recognition of its long history and architectural design value a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designed by Kingo Tatsuno, has one basement floor and two floors above ground. It is an eclectic building that mixes various styles such as

the 19th century Neo-Baroque and Northern European Renaissance, and is characterized by its notable practicality and solidity. When looking down from above,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is in the shape of the Chinese Character 井 (meaning “a well”), and when viewed from the front, it is symmetrical with the front door at the center. Overall, it has the style of a stone building, but the frame is ferroconcrete and the outer wall is finished with granite quarried outside Dongdaemun. The antique atmosphere of this building comes from the solid and massive character of granite. At the time of opening, the building had wooden floors, plastered ceilings, and the largest safe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basement. Also, in 1910, a hydraulic lift to transport money was installed there, making it known as the first building in Korea to have an elevator installed.



유구한 역사가 깃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한국은행 본관은 약 100년 전부터 서울에 자리해, 우리나라 경제생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됨으로써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 유적이기도 하다. 1907년 일본 제일은행의 경성 지점으로 설계되었으나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되었다.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창립되면서 한국은행 본점 건물이 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내부가 거의 파괴되어 1956~1958년 사이에 복구되었다. 1987년에 한국은행 신관이 지어지면서 본관은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01년 한국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화폐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은행 본관은 화폐 디자인의 역사를 담은 수장고이자, 화폐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복합공간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The Center of the Korean Economy with a Long History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has been located in Seoul for about 100 years and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Korean economic life. Currently used as a museum, it is also a modern architectural relic with high historic value. It was designed as a Gyeongseong branch of the First National Bank of Japan in 1907, but was completed in 1912 as the head office of the Bank of Joseon. On June 12, 1950, when the Bank of Korea was founded as the central bank of Korea, it became the head office building of the Bank of Korea, soon after, however, its interior was almost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nd was restored between 1956 and 1958. As the new building of the Bank of Korea was built in 1987, the main building underwent extensive repairs. In 2001,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Bank of Korea, it was converted into the Bank of Korea Money Museum. The main building of the Bank of Korea is a repository of the history of currency design, and is developing its potential as the only complex space where people can explore the economy and culture encountered at the intersection of currencies.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은행

구본 근대 건물, 사적 | 설립 1912년 | 규모 4,140㎡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7가)

Korea's First Central Bank

Classification Early Modern Building, Historic Site | Age 1912 | Quantity 4,140㎡ | Address 39 Namdaemun-ro, Jung-gu, Seoul

건축
Architecture

환구단

Hwangudan Altar

대한제국의 포문을 연 최초의 원형 제단
The First Circular Altar That Opened the Era of the Korean Empire



한국 전통 제례 디자인의 정수

환구단(圓丘壇)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지금의 소공동 자리에 조선 후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남별궁이 있었는데, 고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는 의식을 올리면서 환구단을 지었다. 1897년 10월에 완공된 환구단은 당시 왕실 최고의 도편수였던 심의석이 설계했다. 제사를 지내는 3층의 원형 제단과 하늘신의 위패를 모시는 3층 8각 건물 황궁우(皇穹宇), 돌로 만든 북과 문 등으로 되어 있었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단을 둥글게 쌓아 환구단은 화강암으로 된 3층의 단이며, 중앙 상부는 금색으로 칠한

원추형의 지붕이 있었다. 환구단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에 깃든 신을 모시고 주요한 절기에 하늘에 제를 드리는 제단으로 전통 제례 디자인의 고유성을 담고 있다. 환구단이 건립된 2년 후, 북쪽에 화강암 기단을 쌓고 팔각 3층 전각인 황궁우를 세우고 태조, 하늘, 땅 세 신위를 모셨다. 황궁우의 내부는 통층으로 개방하고 천장엔 발톱이 7개인 칠조룡을 조각해 황제를 상징했다. 건축적인 면에서 보면, 황궁우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형태도 특이하고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건축 양식이다. 3층 구성과 창 모양은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특히 검은 벽돌로 지은 아치형 삼문은 우리나라에 없던 양식이다.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Ancestral Ritual Design

Hwangudan Altar is where people hold a rite for the Heavens. There was Nambyeolgung Palace, which had served Chinese envoy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t the present Sogong-dong site. In order to overcome this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China, King Gojong built Hwangudan Altar and held a ceremony to ascend the throne as emperor there, proclaiming the Korean Empire in 1897. Hwangudan Altar was designed by Shim Eui-seok, the master royal carpenter, known as the greatest carpenter at the time, and completed in October 1897. It consisted of a three-story circular altar for ancestral rites, a three-story octagonal building for enshrining the memorial tablets of the God of Heaven, three stone drums, and gates. Hwangudan Altar, which is a three-tiered circular platform for offering worship to the sky, is made of granite, and has a conical roof painted in gold at the upper center. Hwangudan is an altar that enshrines the gods who dwell in heaven, earth, and all things and holds ceremonies to the sky on major solar terms, and it contains the unique design of traditional ancestral ritual. Two years after Hwangudan Altar was built, a granite base was established on the north side, and Hwangggungwu Shrine, an octagonal three-story hall, was built to enshrine the three gods: King Taejo, the first king of Joseon, God of Heaven, and God of Earth. The interior of Hwangggungwoo Shrine is void without distinction of stories, and a seven-toed dragon,



symbolizing the emperor, is carved on the ceiling. From an architectural point of view, Hwangggungwu Shrine is a rare architectural style in Korea that is not large in scale but has a unique structure and delicate decorations. The three-story structure and the shape of the windows were influenced by the Qing Dynasty. In particular, the arched three gates built with black bricks were a style that had not been seen in Korea until then.





서울의 현대적인 도심 빌딩들과 잘 어우러진

전통 구조물

대한제국은 환구단과 함께 역사적 좌절을 겪었다.

1913년 일제에 의해 환구단이 헐리고 그 자리에 총독부의

조선철도호텔(현재 조선폰텔)이 들어섰다. 3층 전각만

남았다가 환구단 대문이 해체되어 사라졌는데 2007년

우이동 옛 그린파크호텔 대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후 정문의 이전과 복원을 논의하여 현재의

위치에 복원했다. 환구단은 최초의 원형 제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13년간 잠시 지속된 대한제국의

포문을 연 상징이기도 하다. 현재는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황궁우만이 소공동 고층 호텔 건축물 사이에 소담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환구단 정문의 복원 위치 역시

더 많은 시민이 환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접근하도록

서울광장과 덕수궁이 마주 보는 환구단 시민 광장으로 위치를

정했다.

A Traditional Structure That Blends Well with Modern Downtown Buildings in Seoul

The Korean Empire suffered a historical setback along

with Hwangudan Altar. In 1913, Hwangudan Altar was

demolished by Japanese imperialists unfortunately, and

the Railroad Chosun Hotel (current Chosun Hotel)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built in its

place. With only the three-story hall remaining, even its

gate was soon dismantled and disappeared. In 2007,

it was discovered that the former Green Park Hotel in

Ui-dong had used the gate for its main entrance. After

several discussions on how to relocate and restore the

gate, it was revived in its current location. Hwangudan

Altar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circular

altar. It is also a symbol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which lasted for a short time of 13 years.

Currently, only the restored main gate of Hwangudan

Altar and Hwangungwu Shrine are modestly placed

among the high-rise hotel buildings in Sogong-dong.

When restoring and relocating the main gate, Wongudan

Plaza was created at the location where Seoul Plaza and

Deoksugung Palace are facing each other, and the main

gate was also restored there so that more citizens can

recognize and approach it.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내는 단
구분 유적건조물 | 시대 1897년(고종 34) | 규모 4,278㎡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06

An Altar for the Coronation Ceremony of King Gojong and the Ancestral Rites

Classification Historic architectural structure | Age

1897(the 34th year of King Gojong of the Joseon Period)

| Quantity 4,278㎡ | Address 106 Sogong-ro, Jung-gu,

Seoul



마을
Village

남산골한옥마을

Namsangol Hanok Village

도심에서 만나는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정수
The Essence of High-Class Houses of
the Joseon Period in Downtown Seoul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건축 양식과 주거 문화

높게 솟은 빌딩 숲 속 한가운데, 남산골한옥마을은 전통가옥의 고즈넉한 운치와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자리해 있다. 남산은 예로부터 높은 산세와 맑은 계곡, 유려한 경치로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를 시와 그림으로 노래하던 풍류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의 삶과 낭만을 건축 양식과 주거 문화로 보존한 문화유적이 바로 남산골한옥마을이다. 서울 곳곳에 따로 떨어져 있던 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했으며, 한옥에 살던 사람의 신분에 맞춘 가구와 살림을 배치하여 선조의 삶을 재조명했다. 사랑채와 안채, 별채로 구분되는 대갯집의 구조와 사당,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을 복원하고 전통정원 내에는 남산의 자연식생인 수종을 심었다. 계곡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고, 정자·연못 등을 복원하여 전통적인 양식의 정원으로 꾸몄다. 정원의 서쪽에는 물이 예스럽게 계곡을 흐르고, 주변에 있는 고풍의 정자에서 선조들이 유유자적 거닐던 남산 기슭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Architectural Style and Residential Culture of High-Class Houses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middle of a forest of tall buildings, Namsangol Hanok Village is located in the quiet atmosphere of traditional houses and beautiful gardens. Since ancient times, Namsan Mountain has been loved thanks to its high mountain range, clear valley, and beautiful scenery and has been the center of the enjoyment of art and nature, where ancestors built pavilions in each valley and appreciated the moral of nature with poems and paintings. Namsangol Hanok Village is a cultural relic that preserves the life and romance of yangban (the noble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form of architectural styles

and residential culture. Five hanoks of folklore materials, which were scattered throughout Seoul, were relocated to Namsangol, and the lives of ancestors were re-examined by arranging furniture and household items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of the people who lived in hanoks. The composition of *daegatjip* (a large mansion of a noble and wealthy clan), which consists of *sarangchae* (guesthouse), *anchae* (inner house), and *byeoldangchae* (annex) was restored and graceful roofs of shrines and hanoks were revived as well. Then, traditional trees, which are the natural vegetation of Namsan Mountain, were also planted in the antique garden. Valleys were created to allow water to flow naturally, and pavilions and ponds were restored to achieve the authentic style of the traditional garden. On the west side of the garden, there is the valley where water flows briskly, and nearby it, there is the classical pavilion where ancestors strolled in relaxed and delightful ways. Visitors are always welcome to enjoy these antique atmospheres at the foot of Namsan Mountain.





당시 선조들의 생활상을 녹여낸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

남산골한옥마을 부근은 본래 수도방위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군사 보호 구역이었으나, 1989년 서울특별시가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다섯 채의 한옥은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옥인동 윤씨 가옥이다. 이 중 건물 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낡은 옥인동 윤씨 가옥만 새 자재를 사용해 복원했고 나머지 건물은 종래의 집 부재를 그대로 이전했다. 한옥의 기원은 그대로 살리되 서로 이웃하도록 옮겨오는 일.

서울이 가진 한옥의 아름다움은 보존하고, 전보다는 발길이 닿기 쉽도록 한 것이다. 남산골한옥마을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관광객과 시민의 나들이 장소가 되었다. 한옥 실내에서는 계절마다 한복 입기, 한지 접기, 한글 쓰기, 전통차 마시기 등의 전통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주말에는 전통 혼례가 치러지며 체험도 가능하다. 마을 바깥에서는 짚공예 시연과 태권도 시범 공연, 제기차기, 윷놀이, 비석치기 등과 같은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오늘의 서울 시민이 옛 선조의 생활을 즐기고 누리며 당시의 풍류를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Seoul's Representative Hanok Village that Recreates the Lifestyle of Ancestors at the Time

The vicinity of Namsangol Hanok Village was originally a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zone where the Capital Defense Command was stationed, but in 1989,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rchased the site as part of the “Namsan Rehabilitation Project” and it became what it is today. The five hanoks are master carpenter Yi Seung-eop's house in Samgak-dong, General Kim Choon-yeong's house in Samcheong-dong, Min Family's house in Gwanhun-dong, Yun Taek-yeong's Jaesil in Jegi-dong, Yun Family's house in Ogini-dong. Among them, only the Yun family's house in Ogini-dong, which was too old to relocate, was restored using new materials, and the rest of the houses were relocated as they were. The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is gathering them close to each other so that people can reach them easier while keeping the essence and the beauty of hanoks as it is. Now Namsangol Hanok Villag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and a beloved leisure space for both tourists and Seoul citizens. Inside the hanok, visitors can participate in Korean traditional cultural programs such as wearing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ing), folding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writing in *Hangeul* (Korean letters), and drinking traditional tea according to the season. On weekends,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are held, allowing visitors to participate in a part of it. Outside the village, they can enjoy various Korean folk games and educational performances such as straw craft demonstrations, Taekwondo demonstrations, *Jegichagi* game (shuttlecock kicking game), *Yutnori* game (traditional board game), and *Biseokchigi* game (stone hitting game) and so on. Namsangol Hanok Village is growing into a space where today's Seoul citizens can experience and appreciate the life of ancestors and enjoy their aesthetics intact in the heart of the global metropolis.



서울의 전통문화 예술공간
구분 전통가옥, 전통정원 | 시대 1998년 4월 18일 설립 | 규모 대지면적 7,934㎡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번길 28
A Space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rt in Seoul
Classification Traditional house, Traditional garden | Age Established on April 18, 1998 | Quantity Site area 7,934㎡ | Address 28 Toegye-ro 34-gil, Jung-gu, Seoul

마을
Village

Donuimun Museum Village

돈의문 박물관 마을

옛것의 그리움이 풍기는 서울 시민의 기억 보관소
An Archive of Memories of Seoul Citizens,
Bearing Nostalgia of the Past

마을 Village 돈의문 박물관 마을 Donuimun Museum Village





골목 대중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탈바꿈시키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새문안 동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재탄생시킨 곳이다. 한옥과 목조주택, 골목이 공존하던 동네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묘한 조화를 자아낸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들어서면 과거로 돌아간 느낌을 준다. 옛날 영화 간판이 걸린 극장 건물, 음악다방, 학교 앞 분식집 그리고 여관 건물 등이 마치 시간여행 속 풍경처럼 다가온다. 마을 안에 자리한 돈의문역사관은 1960년대 가정집으로 지어진 건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한정식집 등 식당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땅 속에서 경희궁 궁장이 발견되어 현장 그대로를 보존해 놓았는데 돈의문 일대의 역사와 문화, 건축,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크게 마을전시관, 마을창작소, 교육체험관, 편의시설, 기타시설로 나누어 공간 전체가 디자인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도시 재생 사례로서 무형의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Turning Pop-Culture of Village Alleys into Tourism Content

Donuimun Museum Village was reborn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preserve the historical value of Saemunan village. In this village where hanok, wooden houses, and alleys coexist, various buildings are huddled together to form a peculiar harmony. As soon as entering the village, visitors feel transported back to the past. For example, theater buildings with old movie signboards, music cafes, snack bars in front of a school, and small and shabby inn buildings unfold like a scene from time travel. Among all these familiar buildings in the village, there is Donuimun History Museum, which was built as a family home in the 1960s and operated as several types of restaurants such as Italian or Korean from the 1990s to the late 2000s. As the fence walls of Gyeonghuigung Palace were discovered in the ground, Donuimun neighborhood has been preserved as it is, so visitors can check the history, culture, architecture, and storie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at area. Donuimun Museum Village is largely divided into village exhibition hall, hanok experience center, 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this spatial composition itself has design value. Moreover, it also has intangible value as a successful example of urban regeneration.

서울의 100년 이야기를 담은 역사적인 문화공간

한양도성의 서쪽 큰 문,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돈의문은 1396년 처음 세워졌으나 1413년 경복궁의 지맥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가 1422년에 다시 세워 새문이라 불렀다. 돈의문 안쪽 마을은 새문안골 혹은 새문안 동네로 불렸는데, 지금까지도 새문안 상호를 붙인 가게가 즐비하다. 1915년 일제가 도로 확장을 위해 돈의문을 철거한 이후에도, 도성 근처로 집과 건물이 들어서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과외방이 성행하는 골목으로 유명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새문안 도로변 빌딩이 들어서며 식당이 많아졌고, 2000년대 이후 서울 도심 개발 붐으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자리한 동네는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발 계획과 맞물려 돈의문 마을은 근린공원으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는 돈의문 인근 동네가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간직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 허물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들을 보수해 돈의문 박물관 마을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박물관 마을이란 명칭에 걸맞게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모두 서울의 생활상 100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시민의 추억을 보듬는다. 골목 곳곳에는 예전 국가 시책을 느끼게 하는 표어들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간판들도 붙어 있다. 현재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전시와 공연, 교육, 모임을 통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돈의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돈의문 전시관,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 있는 아날로그 감성 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A Historic Cultural Space Telling the 100-Year Story of Seoul

Donuimun, which is more familiar with the name of Seodaemun, was a large gate in the west of the Hanyangdoseong (Seoul City Wall). It was first built in

1396, but closed in 1413 for damaging the good energy of earth toward Gyeongbokgung Palace, then was rebuilt in 1422 and called “Saemun.” The village inside Donuimun was called *Saemunangol* village or *Saemunandongne* neighborhood, and there are still plenty of shops putting “Saemunan” in their name. Even after Donuimun Gate was demolished by the Japanese in 1915 to expand the road, houses and buildings continued to be built around the city wall, and in the 1960s and 70s, it was famous for so many tutoring rooms housed in every alley. Since the 1980s, large business buildings have been built along Saemoonan-ro road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were also increased. Since the 2000s, due to the urban a development rush in Seoul, development plan called “Donuimun New Town” was decided for the neighborhood including the site of Donuimun Museum Village.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plan, Donuimun

Village was to be transformed into a neighborhood park. However, in 2015,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preserve it instead of tearing it down because it has considerable historical value in that it retains the appearance of modern and contemporary Seoul. Then existing buildings were renovated and reborn as Donuimun Museum Village. As a type of museum, various exhibitions and experiences are held here and there, all of which contain 100 years of life in Seoul and cherish nostalgic memories of citizens. Throughout the alleys, old-fashioned signboards give visitors a glimpse of life back in the old days and bold slogans vividly remind them of old national policies. Currently, Donuimun Museum Village is a historical and cultural space where people can personally experience the story of 100 years of Seoul through exhibitions, performances, education, and group activities, providing nostalgic and historic memories that can be sympathetic across generations. Through the Donuimun Exhibition Hall, which introduces the history and regeneration of Donuimun area, a hanok facility where people can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and an analog space where reminiscences of people from their 40s to their 60s are alive, Donuimun Museum Village, which preserv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100 years of time, has become a model that focuses on preservation, not development.



서울의 도시 재생 박물관
구본 박물관 | 설립 2017년 9월 | 규모 대지면적 9,770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A Urban Regeneration Museum in Seoul
Classification Museum | Age Founded September 2017
| Quantity Site area 9,770m² | Address 14-3 Songwol-gil,
Jongno-gu, Seoul

마을
Village

세빛섬
Sebitseom

세계 최초 수상박물관공간 세 개의 빛, 세 개의 섬
World's First Floating Cultural Complex: Three Lights, Three Islands

마을 Village 세빛섬 Sebitseom



세계 최초, 부채 위에 지어진 플로팅 건축

세빛섬은 서울의 중심인 한강에 색다른 수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부채 위에 건물을 짓는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이다. 해안건축과 미국의 H아키텍처가 설계한 이곳은 축구장 1.4배 규모로 설계 당시 지난 200년간의 홍수 빈도를 분석해 구조물이 최대 16.11m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계류 시스템으로 비가 많이 와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했다. 공간을 형태적으로 보면 씨앗에서 꽃봉오리로,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취지에 걸맞게 활짝 핀 꽃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재생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사방에 두루 퍼져 나가는 문화의 등불로서 서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세빛섬은 물과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을 닮은 빛을 찾고자 노력한 공간이기도 하다. 알루미늄 메탈 패널 외벽을 둘러 281조의 무한한 색채가 표현 가능한 RGB LED 모듈을 사용하였고, 더 다양한 색채 구현을 위해 화이트 계열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디지털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자연과 가까운 느낌의 색을 구현하기 위해 쪽빛 바다색 등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색을 구현해 경관조명으로 사용했다. 특히 빛을 산란시켜 원하는 면적에 빛과 색채를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1,900개의 도광판 기술은 국내 최초로 사용된 조명기술로,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

World's First Floating Structure Built on Floating Bodies

Sebitseom is a cultural complex where people can enjoy a unique waterside culture in the Hangang River, the center of Seoul, and is the world's first floating structure built on floating on the water. This large island, which is 1.4 times the size of a soccer

field, was designed by H Architecture in the U.S. and Haeahn Architecture. At the time of design, the flood frequency over the past 200 years was analyzed and the mooring system was applied to allow the structure to rise up to 16.11m so that it would not be submerged even in heavy rain. Reflecting the purpose of the ‘Hangang Renaissance Project’ promo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hape of this island embodies the image of regeneration, suggesting the transformation from a seed to a bud and finally a flower in full bloom and also represents Seoul as a beacon of culture that spreads throughout. Sebitseom tries to develop a lighting system close to natural light by considering the affinitive relationship between water and natural space. Around the outer wall of the aluminum metal panel, RGB LED modules capable of expressing 281 trillion infinite colors were used, and white was also added to realize more diverse colors. In order to eliminate previous cold and artificial nuance and realize colors even close to nature, colors that have not been realized before, such as indigo blue sea color, were implemented and used as landscape lighting. In particular, 1,900 light guide plate technology, which scatters light and directs light and color in a certain direction to a desired area, is the first lighting technology used in Korea, and plays a role in beautifully illuminating the night of Seoul. Moreover, the 1,900 light guide plate technology, which directs light and color in a certain direction to a desired area by scattering ligh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is illuminating the night of Seoul beautifully.





서울 시민에 의한, 서울 시민을 위한

세빛섬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처럼 세 섬이 조화를 이뤄 서울을 빛내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 반포대교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인공섬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활기찬 하루를 여는 찬란한 ‘채빛’, 한낮의 해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비추는 ‘솔빛’, 해질녘 노을처럼 하루의 끝을 우아하게 갈무리하는 ‘가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미디어아트갤러리인 ‘예빛’이 더해져 비로소 하나로 완성된다. 활짝 핀 꽃을 형상화한 제1섬 채빛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제회의,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컨벤션홀과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꽃봉오리를 형상화한 제2섬 솔빛은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 행사와 콘퍼런스나 세미나 등을 유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씨앗을 형상화한 제3섬 가빛은

2층으로 이루어진 레저 공간이다. 또한 초대형 LED와 수상 무대를 갖춘 미디어아트갤러리는 각종 행사를 위해 다용도로 활용된다. 세빛섬은 서울의 중심인 한강에서 서울 시민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은은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마블 코믹스의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촬영지로 소개되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기도 했다.

By the Seoul Citizens, for the Seoul Citizens

Sebitseom contains the wish that the three islands, like the three primary colors of light, red, green, and blue, will harmonize and brighten Seoul.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Banpo Bridge, this artificial island consists of three islands named after three lights: brilliant ‘Chaevit’ that



starts the day vigorously like the sun rising in the east, ‘Solbit’, which climbs to the highest point and illuminates all over like the midday sun, and ‘Gabit’, which gracefully ends the day like the sunset. And here, the media art gallery ‘Yebit’ is added to complete the whole. The first Island Chabit, which is in the shape of a flower in full bloom, has a three-floor building, and convention halls for various events such a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receptions and auxiliary facilities including restaurants are located there. Solbit, the second island in the form of a flower bud, is used as a space to attract cultural events such a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s well as conferences and seminars. Gabit, the third island in the form of a seed, is a two-story leisure space. In addition,

the media art gallery equipped with a super-large LED panel and floating stage provides space for various events. Sebitseom metaphorically expresses the lives of Seoul citizens centered on the Hangang River, the heart of Seoul, and sheds its misty light. In 2015, it was introduced as a filming location for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film, *Avengers: Age of Ultron*, and displayed its beauty to audiences around the world.



색다른 수변 문화를 즐기는 랜드마크

구분 수상 복합문화공간 | 설립 2011년 | 규모 연면적 9,995㎡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A landmark that presents a unique waterside culture

Classification Multi-cultural complex | Age Founded in 2011 | Quantity Gross area 9,995㎡ | Address 2085-14 Olympic-daero, Seocho-gu, Seoul

거리
Street

덕수궁 돌담길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추억과 낭만을 품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The Most Beautiful Road in Seoul,
That Holds Everyone's Memory and Everyone's Romance

거리 Street 덕수궁 돌담길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정비한 최초의 사례

덕수궁 돌담길은 길 자체로서 이야기성을 가진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이다. 중구 정동과 서소문동을 지나는 코스로 흔히 정확한 위치보다는 덕수궁 돌담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돌담은 현재 1만 8,000평의 덕수궁을 둘러싸고 있는데 10여 채의 전각들과 서양식 건물들이 모인 석조전 구역, 정전인 중화전 등이 있는 전통 궁궐 구역으로 나뉜다. 원래 덕수궁은 현재보다 3배 이상 넓어 옛 경계여고 터와 정동극장, 예원학교 자리까지 선원전 구역, 수옥헌 구역이 있었다. 현재의 돌담길은 총 길이 928m에 이르며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정비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기존 도로의 교통 흐름을 최소화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보행자를 위해 보도와 차도

공존도로를 만들고 푸르름이 가득한 가로 공간인 녹도 개념을 복합적으로 도입했다.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굴곡형 차선을 만들고 차도에 석고석 포장을 했으며, 점토 블록을 설치해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했다. 또 보행자가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느티나무 외 2종 130주를 식재하고 평의자 20개도 설치했다. 이렇듯 덕수궁 돌담길은 인간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바뀌었다. 주변에 위치한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으로 연계해 걸을 수 있도록 동선에도 이야기를 담았다. 가을이 되면 노랗고 붉은 단풍과 함께 분위기가 한층 더 깊어지며, 이문세의 노래 '광화문 연가' 한구절을 절로 흥얼거리게 한다. 덕수궁 돌담길이 추억과 낭만이 담긴 곳이자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이유다.

The First Case of Pedestrian-Centered Road Renovation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is a representative promenade in Seoul full of stories as the road itself. Technically, this road is the course from Jeong-dong to Seosomun-dong in Jung-gu, but it is not limited to an exact area and often refers to walking along the stone walls of Deoksugung Palace itself, regardless of which part it is. This stone wall surrounds Deoksugung Palace, which is currently about 60,000m², and is composed of the Seokjojeon area with more than ten Western-style buildings and the traditional palace area with Junghwajeon Hall. Originally, Deoksugung was more than

three times larger than the present one, including the site of the old Kyeonggi Girls' High School, Jeongdong Theater, and Yewon School, and there used to be the Seonwonjeon Hall area and the Suokheon area. The current 928-meter-long walkway is the first example of a pedestrian-centered road reorganization. It minimizes the flow of traffic on the existing road and improves it so that pedestrians can walk safely and comfortably. For pedestrians, shared roads, which both pedestrians and cars can use, were created, and the concept of “greenway” was also introduced to fill the walking space with lots of plants and trees. In order to reduce vehicle speed, curved lanes were created and gypsum stones were paved on the driveways, and also clay blocks were installed to maximize pedestrian safety. In addition, 130 trees of three types, including zelkova, were planted and 20 benches were installed so that pedestrians could rest comfortably. In this way,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uman-friendly and nature-friendly street that people always want to walk on. This road still has abundant stories to tell, so people are encouraged to stop by Deoksugung Palace, Seoul Museum of Art, and Seoul Museum of History while walking. In autumn, the cozy atmosphere deepens with the yellow and red leaves, and one phrase from famous Korean pop-song Gwanghwamun Yeonga (meaning “Love song in Gwanghwamun”) is spontaneously hummed.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is a place filled with memories and romance of Seoul citizens, so has long been loved as the most beautiful road in Seoul.



서울의 정취가 담긴 서울 시민의 상징적 만남의 거리

1984년 행정 지명상 덕수궁길은 덕수궁 입구에서 대법원을 경유해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지나 신문로1가 112번지 새문안길에 이르는 도로였다. 그러나 구간 조정을 거쳐 2005년 현재와 같이 덕수궁 입구에서 정동교회 앞 사거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덕수궁 돌담을 끼고 미국대사관저 앞을 거쳐 새문안길에 이르는 경로로 변경되었다. 한편, 일제가 경운궁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같은 길이 형성이 되었는데, 경운궁의 70%를 분할 매각해 그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중간에 길을 내서 담을 쌓은 것이 덕수궁 돌담길이 되었다. 덕수궁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담장과 도로를 설치한 건, 1920년 즈음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인이 함께 이 길을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속설이 서울 시민에게 알려졌지만 호젓한 분위기 덕분에 여전히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덕수궁 돌담길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궁궐의 돌담을 바라보며 서울의 주요 건축물 사이를 거닌다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덕수궁과 정동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과 문화공간이 집약된 곳이기도 하다. 덕수궁은 궁궐 체제가 파편화되었지만 서울 시내 중심에서 근대 건축물 사이를 거닐며 사색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궁궐 공원으로 남아있고 덕수궁 돌담길은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The Symbolic Meeting Spot of Seoul Citizens with Seoul's Unique Atmosphere

In 1984,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Deoksugung-gil was a road from the entrance of Deoksugung Palace to Saemunan-gil, 112, Sinmun-ro 1-ga, via the Supreme Court, and Ewha Girls'

High School. However, after section adjustment, the route was changed to the current route in 2005, from the entrance of Deoksugung Palace via the intersection in front of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along the stone walls of Deoksugung Palace to the right, and through the front of the US Embassy to Saemunan-gil. Meanwhile,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like today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damaging Gyeongungung Palace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70% of Gyeongungung Palace was divided and sold to greatly reduce the area, and a road and stonewalls were built in the middle of the site to become Deoksugung stonewall road. Presumably, it was around 1920 when the stonewall and road dividing the Deoksugung area into north and south were installed. An urban myth that couples will break up if they walk this road together is well-known to Seoul citizens, but it is still preferred as a date course thanks to its calm and romantic atmosphere. The reason why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feels so special is also the luxury of walking among the major buildings in Seoul while looking at the stone walls of the palace. Deoksugung Palace and Jeong-dong are places where important architectures and cultural spaces of Seoul are packed. Although the organic palace system has been fragmented, Deoksugung Palace remains as a palace park where you can enjoy contemplation and relaxation while strolling among early modern buildings in the center of Seoul.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continues to write its history as a beautiful spot where each visitors can make their own mem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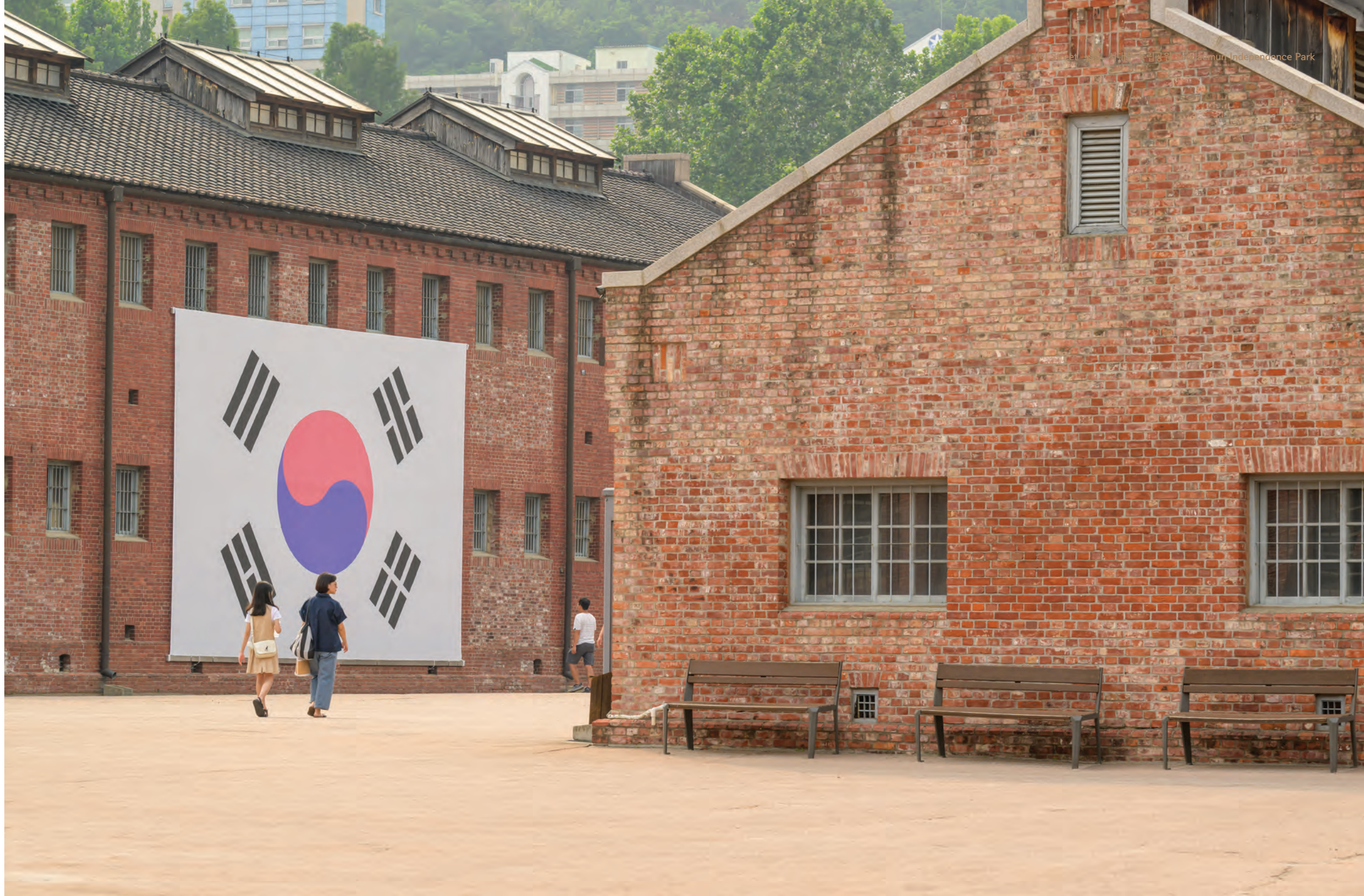


시민들의 휴식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구분 도로 | 설립 1900년대 | 규모 총 길이 928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A Resting Place for Citizens, a Dating Place for Couples
Classification Road | Age 1900s | Quantity Total length 928m | Address 99, Sejong-daero, Jung-gu, Seoul

거리
Street

서대문 독립공원
Seodaemun Independence Park

독립 운동의 정신을 담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Taking a Rest in Independence Spirit in Seoul





일제강점기 시대의 수난과 독립 정신을 담은 상징적 장소

1992년 8월 15일 개원한 서대문 독립공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를 치렀던 애국지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됐다. 서대문 독립공원은 여러 애국지사를 비롯한 시국사범이 갇힌 서울구치소가 있던 곳이다. 독립문을 비롯 순국선열추념탑, 3.1 독립선언기념탑, 서재필 박사 동상 등이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에 자리해 있다. 독립문은 1897년 11월 20일 준공된 탑으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떠 만든 15m 높이의 석조문이다. 독립협회가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영은문을 철거한 자리에 세웠다. 당시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은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독립문을 세웠으며, 공사 총괄은 유명한 건축가사였던 심의섭이 맡았다. 독립문은 좌우에 화강석 돌기둥이 있고 중앙에는 홍예(아치의 한국어로 '무지개'를 뜻함)가 있는 구조로, '독립문'의 한글과 한자 현판이 앞 뒤로 걸려있으며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긴 화강석이 있다. 또 독립공원에는 독립문과 함께 독립관이 있는데, 독립문 자리에 영은문이 있었다면 독립관 자리에는 영빈관의 하나인 모화관이 있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독립협회에서 독립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애국 토론회, 자주·민권 강연회 등을 개최했던 장소다. 구 서울구치소는 경성감옥, 서대문형무소, 서울형무소 등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1986년에 의왕시로 이전했고 현재는 서대문구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A Symbolic Place Containing Both the Spirit of Independence and the Trace of Suffer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daemun Independence Park, which opened on August 15, 1992, was created to remember the spirit

of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patriots who were imprisoned for fighting due to their figh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Seodaemun Independence Park is where the Seoul Detention Center used to be that took a number of patriots and other political criminals in custody. It includes Dongnimmun Arch (Independence Gate), the Monument to the Patriotic Martyrs, the 3.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Monument, and the statue of Dr. Seo Jae-pil. Dongnimmun Arch is a tower completed on November 20, 1897, and is a 15m-high stone gate modeled after the Arc de Triomphe in France. Independence Club erected it to commemorate the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interference of the Qing Dynasty at the site where the Yeongeunmun Gate was demolished. At that time, Independence Club built the Dongnimmun Arch with voluntary donations from the people who expressed their strong eagerness for independence, and Sim Ui Sup, a famous architect,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Dongnimmun Arch has a structure with giant granite stone pillars on the left and right and a *hongye* (meaning 'rainbow') in the center, and stone tablets with the words "Dongnimmun"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respectively hang on the front and back of the arch, and on the left and right of each tablet are Taegeukgi engraved. In addition to Dongnimmun Arch, there is Dongnipgwan Hall (Independence Hall) in the park. If there was Yeongeunmun in the place of Dongnimmun Arch, there was Mohwagwan Hall in the place of Dongnipgwan Hall. After the Gabo Reform, in 1894, Independence Club changed the name of Mohwagwan to Dongnipgwan,

and held patriotic discussions and lectures, lectures on autonomy and civil rights there. The former Seoul Detention Center was renamed Gyeongseong Prison, Seodaemun Prison, and Seoul Prison, then its building is currently managed and operated by Seodaemun-gu as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after the institution was moved to Uiwang-si in 1986.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이자 서울 시민의 쉼터

서대문 독립공원의 정식명칭은 독립근린공원이다. 오랜 시간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공원입구에 주택·상가지역이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주요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2007년 4월 16일부터 추진한 독립공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 2009년 10월 28일 재개장했다. 이로써 서대문 독립공원은 독립문, 역사관,

독립관, 순국선열추념탑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 철거하려던 것을 학계와 민간단체 등이 반대운동을 벌여 핵심 시설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해오던 독립문이 서대문 독립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11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이후 독립공원은 현재까지 역사의 현장임과 동시에 서대문구 주민들의 포근한 쉼터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연 속 휴식처 어울쉼터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생동하는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A Fron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a Shelter for Seoul Citizens

The official name of Seodaemun Independence Park is Independence Neighborhood Park. Although it has been



거리 Street 서대문 독립공원 Seodaemun Independence Park



operated as a space to remember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a long time, many citizens suffered inconvenience because houses and shopping areas were located in disorder and major facilities were dispersed. So it was reopened on October 28, 2009 after reorganizing through the Independence Park reconstruction project promoted from April 16, 2007. As a result, Seodaemun Independence Park now organically connects Dongnimmun Arch, Dongnipgwan Hall, History Hall, the Monument to the Patriotic Martyrs, and so on. At first, the entire park was to be demolished, but it was possible to preserve the core facilities after intense protests by academics and private groups. Dongnimmun Arch which had been restricted from public access, was

finally able to open to citizens after 112 years through the reconstruction project. Since then, Independence Park has served as a historical site and a cozy resting place for the public, including Seodaemun-gu residents. At Eoul Shelter, a resting place in nature, people can use various sports facilities and enjoy their leisure time. It is also a vibrant educational place where children can learn history with their parents in a supportive environment.



애국지사들 기리는 서울의 공원
구분 공원 | 설립 1992년 8월 15일 | 규모 11만 3,021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A Park in Seoul Honoring Historical Patriots
Classification Park | Age Established August 15, 1992 | Quantity 113,021m² | Address 251, Tongil-ro, Seodaemun-gu, Seoul

거리
Street

서울숲
Seoul Forest Park

서울 시민이 함께 일궈낸 생명의 터전
Field of Life Cultivated by Seoul Citizens Altogether





숲과 강이 생동하는 서울의 대규모 시민친화형 자연숲

2005년 개장한 서울숲은 시민이 조성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공원이다. 시민 사회가 도시숲 만들기를 제안하고 2003년 서울시에서 독섬 서울숲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조성 과정에서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5,000여 시민의 기금과 봉사로 만들어졌다. 서울숲은 새로운 공원을 표방하는 독섬의 새 이름인 동시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동하는 터전이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생명의 토대이자 본래 독섬이 가진 물과 땅이 만나는 지역의 생태를 복원하고, 고유의 식생 구조를 확보해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되었다. 고정적인 시설이 아닌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숲의 운영 철학은 시민이 적극적 참여로 다양한 정원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이 밖에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4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공원 부지는 경마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기존의 트랙을 살려 산책길로 재탄생했다. 체험학습원의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은 예전 정수장 건물을 활용했으며, 갤러리정원은 정수장 침전조의 구조물을 그대로 남겨 갤러리의 오브제처럼 보이게 조성했다. 성동구의 생활하수가 모이는 유수지인 습지생태원도 기존의 부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로 상수리나무와 느릅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를 비롯해 350여 종의 나무와 꽃이 자라고 있으며, 숲 곳곳에 자리한 벤치는 시민이 직접 입양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Seoul's Extensive, Citizen-Friendly Natural Forest Where Woods and a River Thrive

Opened in 2005, Seoul Forest Park is the first public park in Korea created by citizens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After civil society proposed the creation of urban forests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Ttukseom Seoul Forest creation plan in 2003, the Seoul Green Trust movement was launched and raised funds and volunteers from 5,000 citizens to create the park. "Seoul Forest" is a new identity for Ttukseom that claims to be a new type of park,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fertile land where nature and culture

harmonize. Ttukseom, the foundation of life that breathes with nature, has become a habitat for various creatures by restoring its original ecology and securing the unique vegetation structure of the estuary where water and land meet. The management philosophy that the forest should be renewed constantly through human participation rather than be fixed by physical facilities, has created various garden designs through active engagement of citizens. In addition, there are four spaces where citizens can participate: culture & art park, eco-forest park, educational experience park, and wetland ecological field. The site of the culture & art park used to be a

racecourse, and was reborn as a promenade by making use of the existing track. The insect botanical garden and butterfly garden in the educational experience park used the former water treatment facility, and the gallery garden accommodated the structure of the sedimentation tank at the water treatment facility as it was to make it look like an object of a gallery. The wetland ecological field also retains the original site of the reservoir where sewage from Seongdong-gu used to be colle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over 350 species of trees and flowers are growing, including oak, elm, zelkova, and metasequoia. And benches located throughout the forest are being adopted by citizens themselves and store their valuable stories inside. Various activities like the above are making the park a space for everyone.

성수동 지역 고유의 역사성이 담긴 현대적인 공원

1990년대, 서울숲 부지는 개발의 최대 관심지역이었다.

오래전에는 임금의 사냥터였고 1908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였으며, 이후 경마장, 골프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동안 돔구장을 비롯해 복합문화관광타운 건설

등 수조원의 이익을 예상한 다양한 개발이 서울숲 부지에 제안되었으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녹색복지, 녹색권리를 위해 개발 대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을 선택했다.

서울숲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혁신기업이 분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 내 구성원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공공의 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소셜벤처가 밀집해 있는 서울숲공원 인근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원에서 하루 일하는 날인 '아웃도어 오피스(Outdoor office)'를 운영하거나, 시니어와 주부, 은퇴자를 위해 300여 명의 도시숲 리더를 배출했다. 서울숲 어린이정원 조성에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등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반영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현대적 공원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숲은 이제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고 한강-용산-남산-청계천-서울숲-한강으로 연결되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지 축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생명의 숲, 시민들이 함께 만든 참여의 숲, 숲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녹색쉼터가 되었다.

A Modern Park with the Unique History of the Seongsu-dong Area

In the 1990s, Seoul Forest Park site was the area of greatest interest for development. Long ago, it was a hunting ground for kings, and was the first water source in Seoul established in 1908, and was later used as a racetrack and golf course. In the meantime, various development plan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dome stadium or a cultural and tourism complex, have been proposed for the Seoul Forest site with the expectation of trillions of won in profi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owever, chose an 'Urban Forest' that everyone can enjoy instead of development, responding to citizens' demands for green welfare and green rights. Seoul Forest Park has played a role as a public venue where local members can communicate and socialize with each other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hosting social innovation companies in various fields. Considering numerous social venture companies in the neighborhood, it provides an 'Outdoor office' program, which is a day of working in the park. Moreover, it instated about 300 urban forest leaders for seniors, housewives, and retirees, and created Seoul Forest



Children's Garden in cooperation with local childcare communities. As described above, Seoul Forest Park is a space that reflects the unique history of the reg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odern park that grows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Now, Seoul Forest Park is the place where Hangang River and Jungnangcheon mee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one of the axis of greenery that runs through downtown Seoul, connecting Hangang-Yongsan-Namsan-Cheonggyecheon-Seoul Forest-Hangang. Consequently, It has become the forest

of life that breathes with nature, the forest of participation created by attentive citizens, and the representative green resting place in Seoul where the forest harmonizes with culture.



서울의 대표적인 녹색 쉼터
구분 공원 | 설립 2005년 6월 18일 | 규모 115만 6,498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Seoul's Outstanding Green Shelter
Classification Park | Age Established June 18, 2005 | Quantity 1,156,498m² | Address 273, Ttukseom-ro, Seongdong-gu, Seoul

거리
Street

서촌

Seochon Village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공존 삶 그리고 사람들
Life, People, and Harmonious Coexistence of Past and Present

거리 Street 서촌 Seochon Village



여러 시대 건축 양식이 모인 자생적 도시 재생지

서촌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를 뜻한다. 이곳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북촌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북촌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중심지로 왕족이나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 사대부 옛 모습을 간직한 한옥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그런데 서촌은 그에 비하면 소박하다. 조선시대 역관이나 의관 등 전문직인 중인들이 이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이들은 과시보다는 내실을 추구했던 것. 이제 그때의 한옥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집터를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서촌은 물길을 따라 집을 지었다. 양쪽 처마가 닿을 듯 골목이 좁은 이유는 바로 물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촌은 당시 인위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촌의 주거 건축은 다채로운 시대와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1910년대 이후 주택 계획에 의해 대량으로 지어진 개량 한옥부터 적산가옥, 1990년대 말 건축 규제 완화로 들어선 빌라까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골목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 통인시장과 금천시장과 함께 오래된 가옥을 변화시켜 만든 갤러리와 카페 등 과거와 공존해 조화롭게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일상 단면을 엿볼 수 있다.

A Self-sustaining Urban Regeneration Area with Diverse Architectural Styles from Different Eras

Seochon Village is a name that refers to the area between Gyeongbokgung Palace and Inwangsan Mountain, and ranges from Cheongunhyoja-dong to Sajik-dong. Compared to Bukchon Village between Gyeongbokgung Palace and Changdeokgung Palace, Seochon Village has clearly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Bukchon Village

is the center of Hanyang,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where many royalty and high-ranking officials resided, and their hanoks, which contain the old look of the noble's household, are preserved intact. But Seochon Village is quite simple compared to that. During the Joseon Dynasty, *Jungin* (middle-class people) who were mainly the professionals, such as interpreters or doctors, lived in this area, and they pursued practicality rather than vanity. Their hanoks have now disappeared, but traces of their lives can be found in the old house sites. In the past, houses in Seochon Village were built along the stream. The reason why the alleys are so narrow that an eave almost touches the opposite one is the narrow stream between them. In other words, Seochon Village was not developed artificially at the time, but was created naturally.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architecture in Seochon Village is a mixture of various eras and types. They range from improved hanoks built in large quantiti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housing plan after the 1910s, to Japanese-style houses, and to multi-family houses that were built according to the eased construction regulations in the late 1990s. However, the alleys remain as they were before, passing away its time slowly. There, modern citizens are living in harmony with the past, while enjoying galleries and cafes renovated from old houses as well as old marketplaces like Tongin Market and Geumcheon Market.



거리 Street ✨ 서촌 Seochon Village

서민의 삶이 묻어 있는 한옥 마을

서촌은 조선시대 시각 예술의 중심이었다. 겸재 정선과 송강 정철, 추사 김정희의 숨결이 이곳에 스며 있다. 인왕산의 백운동천과 옥류동천이 서촌의 물줄기를 이루고, 아름다운 산수 덕분에 시인을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을 불러들였다. 근대에는 화가 이중섭과 이상범, 시인 윤동주와 이상 등이 이곳에 거주했다. 예술가들이 살던 집은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노수 화백이 살던 집은 지난 2013년에 박노수미술관으로 개관했으며, 이상 시인이 20여 년간 살았던 집은 철거 위기를 겪었으나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보존재산으로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개방했다.

골목 구석구석 서촌은 천천히 둘러보기에 좋다. 집들은 나지막해 하늘을 가리지 않고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초록빛 산을 만날 수 있다. 골목이 좁은 듯해도 답답하지 않은 건 바로 이와 같은 여유로움과 개방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흔적과 기억에 현대의 시간이 조심스레 포개져 서촌은 오늘의 발자취를 만들고 있다.



Hanok Village, Where Lives of the Common People Are Hidden

Seochon Village was the center of visual arts in the Joseon Dynasty. The artistic spirit of Gyeongjae Jeongseon (a painter), Songgang Jeongcheol(a poet), and Chusa Kim Jeonghee (a calligrapher) permeates this place. The beautiful landscape created by the flows of Baegundongcheon Stream and Okryudongcheon Stream from Inwangsan Mountain into Seochon Village has fascinated poets and many other artists. In modern times, painters Lee Jungseop and Lee Sangbeom, and poets Yun Dong-ju and Lee Sang lived here. The houses where artists used to live have been transformed into cultural spaces, and many people are still visiting them. The house where artist Park No-soo had lived was opened as the Park No-soo Art Museum in 2013. Meanwhile, the house where poet Lee Sang lived for 20 years was in danger of being demolished, but in

2009,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purchased it as a preservation property and converted it into a cultural space. Seochon Village is a good place for slowly looking around every corner of the alley. Visitors can see the green mountains whenever they slightly raise their heads because low houses in Seochon are not obstructing the sky. Even though the alley seems narrow, it does not feel stuffy thanks to such a sense of space and openness. By carefully overlapping the traces and memories of the past with modern times, Seochon Village continues to create its own path.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서민의 생활상
구분 현대화된 한옥 주거지 | 설립 조선시대 | 면적 654ha(종로구 면적의 27.4%)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일대

Going Back in Time to Lives of the Common People

Classification Modernized hanok residential area | Age Joseon Dynasty | Quantity 6,540,000m² (27.4% of Jongno-gu area) | Address around Cheongunhyoja-dong and Sajik-dong, Jongno-gu, Seoul

거리
Street

익선동
Ikseon-dong

삶의 터전인 한옥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골목
Alleys Where Traditional Hanok and the Latest Trends Coexist





도심 속 한옥의 유구를 현대적 공간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자리한 익선동은 종로의 중심이자 오랜 시간 ‘한옥섬’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로 100년 역사를 바라보는 한옥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동쪽의 종묘, 서쪽의 인사동, 북쪽 창덕궁과 북촌, 남쪽 종로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해 있지만, 북촌이 관광지로 개발되고 종로 거리가 빌딩숲으로 변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옛 모습을 지켰다. 익선동은 1930년을 전후로 당시 ‘건축왕’으로 알려진 정세권이 설립한 건양사가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한옥주거지로 조성되었다. 서울에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시민에게 보급형 한옥을 지어 판 것이다. 이처럼 익선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주거단지이기도 하다. 개발 당시부터 서민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통 한옥과 달리 한옥과 양옥의 중간 단계, 즉 ‘도시형 한옥’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도시형 한옥은 기존의 한옥 문법에서 탈피해 그 형태도 다양하다. ‘ㅁ’자, ‘ㄷ’자 형태로 건물이 마당을 둘러싸기도 하고, 반듯한 ‘ㅡ’자형 한옥도 있다. 내부 구조도 다양해 집집마다 마당 너머를 구경하는 즐거움이 쏙쏙하다. 1997년에는 재개발 추진 구역으로 논의되고 2004년 재개발 바람에 휩싸여 사라질 뻔했으나 익선동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오랜 시간 고요하게 흘러온 익선동의 시간은 2010년대에 들어 새로운 활기로 넘실대기 시작했다. 익선동의 독특한 한옥을 재탄생시킨 카페와 레스토랑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것. 좁은 골목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여러 가게를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지형적 이점도 한 몫 했다.

Remains of Hanok in the Downtown Turned into a Modern Space

Located in Jongno-gu, Seoul, Ikseon-dong is the center of Jongno and has long been called “Hanok Island.” As the oldest hanok village in Korea, there is a good amount of hanok with a 100-year history huddled together in Ikseon-dong. It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Jongmyo Shrine in the east, Insa-dong in the west, Changdeokgung Palace and Bukchon Village in the north, and Jongno Street in the south, but kept its old appearance even while Bukchon Village was developed as a tourist spot and Jongno Street was turned into a forest of tall buildings. Around 1930, Ikseon-dong was an urban hanok residence, created as a part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of Geonyangsa, a real-estate development firm established by Jeong Se-gwon, known as the “king of construction.” As more and more people flocked to Seoul and the demand for housing increased, they built and sold affordable hanoks to citizens. As such, Ikseon-dong is also the first planned residential complex in Korea. Since it was designed for the common people from the time of development, the intermediate form between hanok and western-style house, or “urban hanok”, occupies the majority rather than traditional hanok. Urban hanok has a variety of shapes,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hanok norms. Some hanok, for instance, was built in the shape of a “ㅁ” or “ㄷ” shape surrounding the courtyard, and others were built in the shape of a straight “ㅡ.” The internal structure is so diverse as well, that it is a pleasure to look into each house beyond the yard. In 1997, it was examined

as a redevelopment promotion area, and was about to disappear indeed in 2004, but it managed to survive thanks to the citizens’ strong insistence that Ikseon-dong should be preserved. The time of Ikseon-dong, which had passed quietly for a long time, began to flow with new vigor in the 2010s because cafes and restaurants that renovated its unique hanoks began to open one after another. Narrow alleys remaining intact also served as a geographical advantage because it was rather easy to visit various stores.





전통 주거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의 대표 관광지

익선동의 변화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홍대 앞이나 서촌 등 비교적 개발의 물결이 일찍 스쳤던 지역을 떠난 젊은 예술가들이 임대료 부담이 적으면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익선동을 찾아 공방을 열었다. 한옥의 특성을 살려 생겨난 게스트하우스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 들고, 옛 정취를 느끼려는 중년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진다. 이로써 익선동은 현대적 한옥과 한국 전통의 골목 문화 위에 각종 레스토랑과 게스트하우스, 전통 찻집 등이 혼재한 이색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세기 도시형 한옥의 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 익선동 좁은 골목길에 밀집된 상가들은 큼직한 간판보다는 개성 넘치는 원도우사인이나 지붕 등에 포인트를 준다. 한옥과 어울리는 서체와 색상을 사용해 이색적이지만 지역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다. 공간 리모델링 역시 기존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살려 옛것의 미학을 고스란히 되살리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장소, 공간의 회복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익선동 한옥마을은 고유한 골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The Tourists' Favorite Spot in Seoul That Reinterprets Traditional Housing Culture in Modern Ways

Changes in Ikseon-dong were provoked voluntarily. Young artists who left Hongdae-ap (Hongik University Area) or Seochon Village, where the rush of development had hit relatively early, now open workshops in Ikseon-dong, whose location, the center of Seoul, is great, while the rent burden is still light. Guesthouses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hanok, are very popular among

foreign tourists and also loved by the middle-aged who seek out the nostalgic atmosphere. As a result, Ikseon-dong began to be reborn as a unique tourist destination where various restaurants, guesthouses, and traditional teahouses coexist on the ground of modern hanok and Korean traditional alley culture. Above all, it has high architectural and cultural value in that it does not lose its original appearance as 20th century urban hanok. The shops clustered in the narrow alleys of Ikseon-dong show their unique personalities with their witty window signs and roof decorations rather than large signboards. Especially, by using fonts and colors that go well with hanok, they are implementing designs that are distinctive but suitable for the village. Even when remodeling the space, the method of reviving the aesthetics of the past was preferred, which is utiliz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hanok. Ikseon-dong hanok village is creating a unique alley culture by sharing the past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ir space.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구분 마을 | 설립 조선시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
동 일대
The Oldest Hanok Village in Seoul
Classification Village | Age Joseon Dynasty | Address
Ikseon-dong, Jongno-gu, Seoul

거리
Street

정동

Jeong-dong

Pedestrian-friendly Street Rambling along the Essence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 건축의 정수를 따라 걷는 보행 친화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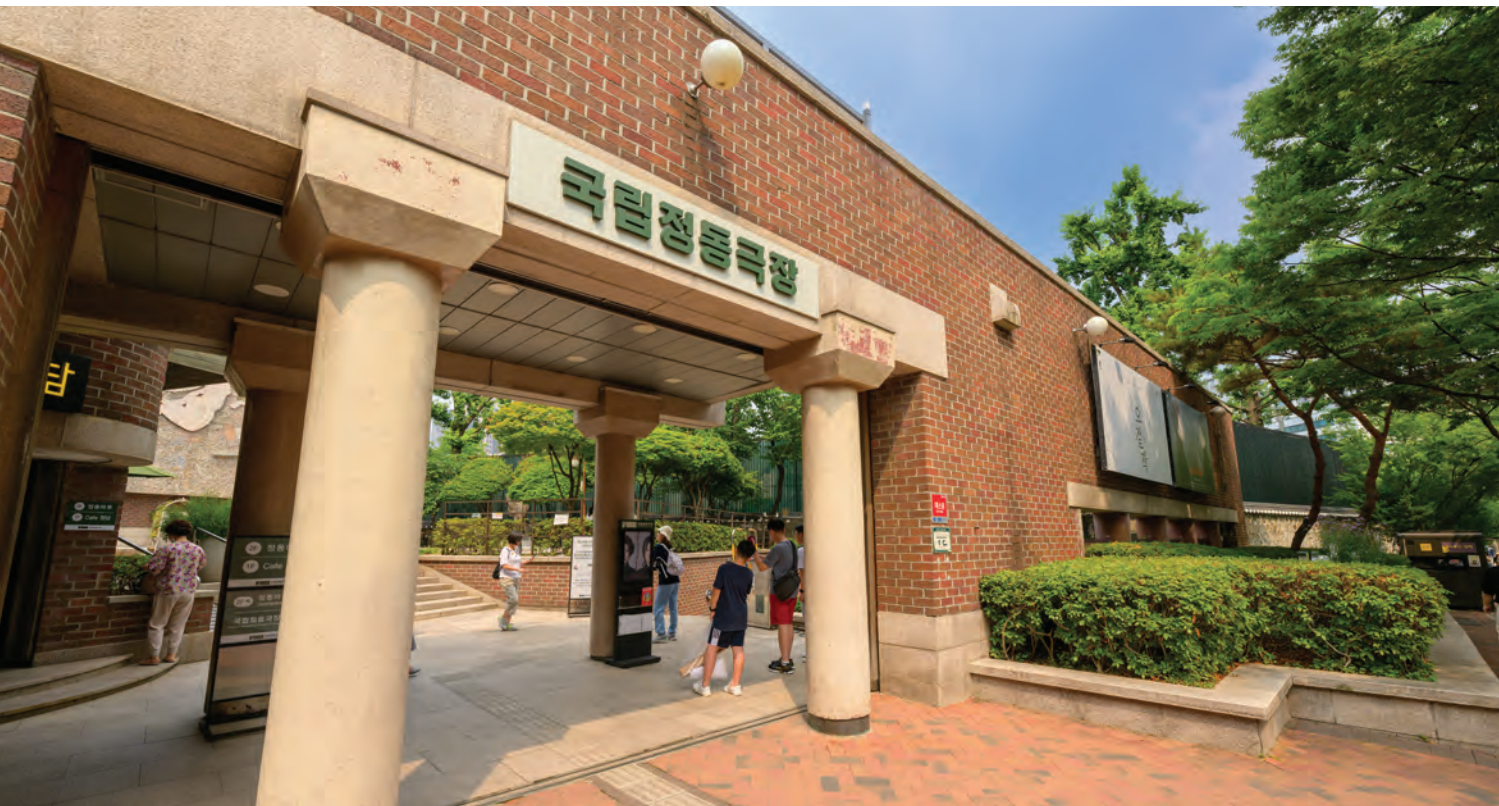
거리 Street 정동 Jeong-dong



서울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디자인 박물관

정동은 1396년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眞陵)이 도성 안에 조성되면서 생겨났다. 이후 정릉이 태종 시기 도성 밖으로 옮겨갔고, 정릉이 있던 곳이 지금의 정동(貞洞)이 됐다. 정동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1883년 미국공사관을 시작으로 1884년 영국, 1885년 러시아, 1889년 프랑스, 1891년 독일 등 각국의 대사관을 비롯하여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호텔과 커피숍까지 들어섰기 때문이다. 옛 대법원 건물을 미술관 용도에 맞게 재생한 서울시립미술관은 근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이자

정동의 역사적 문화 벨트를 잇는 공간이다. 1916년에 건립된 배재학당 역시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그 곁으로 1886년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자리했으며, 서울 최초 근대 건축의 풍모를 간직한 덕수궁 증명전이 있다. 서울시청에서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서울역사박물관과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이어지는 정동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탐방로가 된 그야말로 근대기 격동의 역사 현장이면서 서울의 근대 건축물이 밀집한 대규모 디자인 아카이브다. 여기에 더해 이화여고와 예원여고의 담장에는 공공 미술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고, 난타 전용관과 정동극장 등의 문화시설도 자리해 있다.



A Design Museum Concentrated with Myriads of Modern Buildings in Seoul

Jeong-dong was created in 1396 when Jeongneung, the tomb of Queen Shindeok (the consort of King Taejo) was built inside the capital of Joseon. Later, Jeongneung was moved outside the city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and the site where Jeongneung had been located became current Jeong-dong. Jeong-dong was also a representative place where Western culture was introduc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Starting with the US Legation in 1883, the Great Britain Legation in 1884, Russia Legation in 1885, France Legation in 1889, and Germany Legation in 1891, as well as Western-style hotels and coffee shops were located there for the first time in Seoul. The Seoul Museum of Art, which regenerates the old Supreme Court building for the museum, is a historic building that contains modern history intact and an important space

that connects the historical cultural belt of Jeong-dong. Baejae Hakdang, built in 1916, also has great historical value as a Western-style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 Next to it is Ewha Hakdang, Korea's firs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women founded in 1886, and Deoksugung Palace's Jungmyeongjeon Hall, which preserves the appearance of Seoul's first modern architecture. The area around Jeong-dong, which leads from Seoul City Hall through the Deoksugung Stonewall Walkway to the Seoul Museum of History and the Salvation Army Central Hall, has become a significant historical trail in Seoul and a historical site that went through the turbulent modern era, as much as a large-scale design archive where early modern buildings in Seoul are concentrated. In addition, the walls of Ewha Girls' High School and Yewon School show the beauty of public art, and influential cultural facilities such as Nanta Hall and Jeongdong Theater are also located there.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계획과 디자인으로 조성된 시민의 거리

정동길 산책은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에서 덕수궁 돌담을 끼고 시작하여 경향신문사까지 이어진다. 파란만장한 구한말의 역사를 지닌 근대유산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정동은 서울시 심장부인 세종대로의 고층빌딩 사이에서 묘한 고요함을 자아낸다. 시청 앞 광장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도심에서 자연으로 이동하는 타임캡슐과도 같다. 이는 자동차 대신 보행자 도로와 오래된 나무로 조성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계획으로 연출된 감각이다. 서울은 그동안 보행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보행이 편리한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다. 1997년부터 차도를 축소하여 제한 속도를 낮추고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던 도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한편 보도를 넓히는 보행자 거리 조성공사가 진행되었고 가로수와 화단이 조성된 ‘녹도’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2006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동길은 여전히 바쁜 도시인에게 한적한 산책로를 열어준다. 한국 최초의 커피숍이 들어선 거리답게 카페도 줄지어 성황 중이다. 주변 고층 건물과 대조적으로 돌담과 낮은 건물이 만들어내는 거리 풍경 역시 정동을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안식처로 존재하게 한다.

Citizen's Street Created with Pedestrian-centered Road Plan and Design

Jeongdong-gil promenade starts from Daehanmun Gate, the main gate of Deoksugung Palace, along the stone walls of Deoksugung Palace, and continues to the Kyunghyang Shinmun building. Jeong-dong, where people can stroll among the modern heritage retaining the chaotic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emits a mysterious silence among the skyscrapers of Sejong-daero, the heart of Seoul. It is like a time capsule that teleports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from fast to

slow, from the urban area to nature, leaving behind the bustle of the Seoul Plaza in front of City Hall. This is an experience produced by pedestrian-centered road plans, which focus on pedestrian passages and old trees instead of ca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to build pedestrian-friendly roads while advocating a pedestrian-friendly city. Since 1997, a pedestrian street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including reducing the speed limit by reducing the roadway, changing some sections of the road that used to be two-way cars to one-way traffic, and widening the sidewalk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greenway”, plenty of street trees and flower beds were adopted to the road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Jeongdong-gil was selected as one of the 100 most beautiful roads in Korea,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2006. Jeongdong-gil, where time seems to have stopped, still opens up a serene and secluded promenade to busy city residents. Furthermore, as the street where Korea's first coffee shop was built, chic cafes are also lined up. In contrast to the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s, the streetscape created by stone walls and low buildings also makes Jeong-dong a relaxing haven that seems to be in another world.



개항기의 외교와 정치의 중심지
구분 거리 | 설립 1900년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Center of Diplomacy and Politics in the Port-opening Period
Classification Street | Age Established in 1900s | Address Jeong-dong, Jung-gu, Seoul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이순신장군동상

Statue of Admiral Yi Sun-sin

서울 시민의 쉼터 지키는 한국인의 정신
Korean Spirit Protecting the Shelter of Seoul Citizens



한국인의 정신 충무공 이순신을 광화문 광장의 상징적 표상으로

많은 이들이 '광화문 광장'하면 우뚝 솟은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충무공은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이들에게 손꼽히는 민족의 영웅이자, 한국인의 자부심이다. 동상은 갑옷을 입은 이순신 장군이 땅에 꽂은 장검을 꽂아 움켜쥔 모습을 하고 있다. 몸과 칼이 나란히 수직으로 치솟아 엄숙한 느낌을 자아낸다. 칼을 빼는 모습이 아닌, 큰 칼을 내리누르듯 잡고 있는 모습은 이미 승리한 이후의 기백을 느낄 수 있다. 발 끝까지 길게 늘어진 갑옷 자락의 부드러운 주름도 고전미와 숭고미를 풍긴다. 표정부터 의복, 자세까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치던 모습을 형상화해 웅장하고 능률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듯 동상 앞에는 분수대가 넘실대는 파도의 모습을 재현한다. 나란히 위치한 세종대왕동상이 인자함을 나타낸다면, 이순신장군동상은 전장을 이끄는 장군의 용기와 기백을 표현하는 듯하다. 평화의 시대를 여는 당당함과 활력이 김세중이 조각한 이 상에 담겨있다.

Yi Sun-shin,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Becomes a Symbol of Gwanghwamun Square

When people hear “Gwanghwamun Square”, the first thing in mind for many of them will be the towering statue of Yi Sun-sin. He is the most respected national hero and the pride of Koreans. The statue depicts Admiral Yi Sun-sin clad in armor, tightly holding a long sword stuck in the ground with one hand. The body and sword soar vertically side by side, creating a solemn feeling. The statue appears to be pressing down his sword rather than pulling it out, so people can feel his confidence and dignity as if he has already won. The soft wrinkles of the armor that stretched all the way to the toes exude classic and sublime beauty. This statue expresses a magnificent and reliable feeling by embodying the appearance of defeating the Japanese army during *Imjin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rom the facial expression to the clothing and posture, and the fountain in front of the statue reproduces the waves rolling in, as if to honor his achievements of protecting the sea of the nation. If the statue of King Sejong next to it represents benevolence, the statue of Admiral Yi Sun-sin seems to express the courage and confidence of the general leading the battlefield. The dignity and vitality of opening an era of peace are encapsulated in this statue sculpted by Kim Se-joong.

문화 광장인 광화문 일대에 조성된 조각이자 서울의 상징적인 공공공간

이순신장군동상은 정부 산하 단체였던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의 공동주관으로 1968년 4월
27일 건립된 후 반세기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다.

일제에 의해 변형된 도시 중심축을 바로 세우고 도시의
기(氣)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건립된 동상으로, 1968년
조각가 김세중이 제작했다. 이순신장군동상이 자리한 광화문
광장은 해마다 새롭게 시민들의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 문화
광장이다. 때론 크고 작은 라이브 무대와 대형 LED 화면을
통한 생생한 공연장으로, 때론 다채로운 전시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동상 자체만
따지면 논란이 없지 않았다. 미술 비평뿐 아니라 얼굴, 칼,
갑옷 등 고증 문제와 정치적 문제까지 대두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에게는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 광장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게 되었다.

A sculpture Located in Gwanghwamun Square, the Cultural Place in Seoul, Creates a Public Space on Its Own

The statue of Admiral Yi Sun-sin was established on
April 27, 1968 under the joint supervision of National
Heroes Statue Committee, a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and Seoul Shinmun Daily, and has been
guarding Gwanghwamun Square for half a century. This
statue was built to straighten out the central axis of the
city that was deformed by Japanese imperialists and
to correct the energy of the city, and it was produced
in 1968 by sculptor Kim Se-joong. Gwanghwamun
Square, where the statue of Admiral Yi Sun-sin is
located, is a cultural square that is being reborn as a
resting place for Seoul citizens every year. Sometimes it
holds a vivid performance with various-sized stages and
huge LED screens, and some other times it becomes
a relaxing space where citizens can freely rest with
colorful exhibitions. The statue itself used to gather a
good amount of controversy. That included art criticism,
historical research issues on its faces, swords, and armor,
and even political issues. But over time, it has grown into
a symbolic image of Gwanghwamun Square, the center
of Seoul, in the minds of citizens.



조각가 김세중이 제작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구분 청동 입상 | 시대 1968년 4월 27일 건립 | 규모 전체 높
이 17m(동상 6.5m, 기단 10.5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대로 175

Statue of Admiral Yi Sun-sin by Sculptor Kim Se-joong

Classification Bronze Statue | Age Established April 27,
1968 | Quantity Overall height 17m(Statue 6.5m, Base
10.5m) | Address 175, Sejong-daero, Jongno-gu, Seoul



시장



Market

시장
Market

남대문시장 Namdaemun Market

서울 시민의 600년, 삶과 문화를 비추는 거울
600 Years of Seoul Citizen, a Mirror Reflecting Their Life and Culture



서울 시민의 삶을 투영한 유·무형의 디자인 가치
남대문시장을 두고 사람들은 ‘남대문시장에 없으면 서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다. 하루 평균 30만 명이 방문하는 최대 규모 종합 재래시장이자 600년 서울 시민의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도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 등 서울의 주요 건물은 물론, 정동길, 명동, 남산타워, 남산한옥마을 등과 인접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남대문시장에서는 아동·남성·여성 등 각종 의류를 비롯해 액세서리, 주방용품, 민속공예, 식품, 잡화, 농수산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1,7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다루는 상품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행동 패턴, 그 과정에서 독특하게 탄생한 사물과 공간 등 남대문시장 자체가 디자인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방문객의 취향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매대는, 지금 서울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적 취향을 가늠할 수 있다. 남대문시장은 이와 같은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MI(Market Identity)를 만들고 환경 개선 등 꾸준한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밤이면 화려한 야간조명도 길을 밝힌다. 또 남대문시장을 도심 관광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시장 환경 개선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Tangible and Intangible Design Values

Reflecting the Lives of Seoul Citizens

When it comes to Namdaemun Market, people say, “If it is not found in Namdaemun Market, it is not found anywhere else in Seoul.” This is because it is the largest general traditional market visited by an average of 300,000 people a day and a place where the 600-year-old tradition and present of Seoul citizens coexist. Geographically, it is a famous tourist attraction in Seoul, adjacent to major buildings such as Shinsegae Department Store and Bank of Korea, as well as Jeongdong-gil, Myeong-dong, Namsan Tower, and Namsangol Hanok Village. Namdaemun Market sells about 1,700 kinds of products necessary for daily life, including various clothing for children, men and women, accessories, kitchenware, folkcrafts, grocery, miscellaneous goods, an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Namdaemun Market itself shows a unique aspect of design culture, such as the wide range of products handled, the behavioral pattern occurring in the market, and the unique objects and spaces created in those processes. For example, display racks that rapidly change according to the tastes of visitors can gauge the design trend that Seoul citizens prefer the most right now. Based on thes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market, it creates an MI (Market Identity), continues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illuminates the road with colorful lights at night. In addition, it constantly tried to improve its environment to make Namdaemun Market into an urban tourism content.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마켓

남대문시장의 역사는 6,00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태조 이성계가 남대문 일대에 시전 행랑을 설치하며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개화기인 1897년 도시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선해청 창내장이 남대문시장의 직접적인 시초가 됐다. 1922년에는 일본인 회사가 운영권을 쥔 적도 있으나 광복 이후 남대문시장연합회가 본격적으로 꾸려졌으며, 1964년 건물주와 상인들이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어져 2014년 600주년을 맞이했다. 각 점포의 규모는 작지만, 각 점포에서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독립된 업체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구조를 갖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국 소매상들이 성시를 이루는

모습은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인의 성실과 근면을 비추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비롯해 1954년, 1968년, 1977년의 각종 크고 작은 화재 등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발 빠르게 회복하며 최고·최대 시장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The oldest design market in Seoul

The history of Namdaemun Market goes back 600 years ago. King Taejo installed the Building of Licensed Shops in the Namdaemun area and had commercial activities take place. Seonhyecheong Changnaejang(national permanent market), built as part of the urban

modernization project in 1897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became the direct beginning of Namdaemun Market. Seonhyecheong Changnaejang(national permernant market) built as part of the urban modernization project in 1897,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became direct former stage of Namdaemun Market. In 1922, a Japanese company took the right to operate it, but after liberation, the Namdaemun Market Trader Union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1964, the building owners and merchants jointly invested in it in the form of a stock company, and in 2014 it eventually celebrated its 600th anniversary. Although each store is small, it is an independent company that directly produces and sells products by itself, that is, it has established the simple and effective distribution procedure in which producers and consumers are directly connected. Also, the scene of retail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moving around in a rush from early dawn to late night is such an impressive spectacle that reflects the sincerity and diligence of Koreans, which is difficult to find anywhere else in the global village.

Unfortunately, there were difficulties such as several fire accidents in 1954, 1968, and 1977, not to menti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but they quickly recovered and maintained their position as the best and largest market.



서울 최대의 재래시장
구분 전통시장 | 시대 1964년 설립 | 규모 면적 약 66,116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The Largest Traditional Market in Seoul
Classification Traditional Market | Age Established 1964 | Quantity Approx. 66,116m² | Address 21, Namdarmunsijang 4-gil, Jung-gu, Seoul



시장
Market동대문시장
Dongdaemun Market대한민국 패션의 1번지에서 글로벌 패션 쇼핑 지구
From Korea's Fashion Central to a Global Fashion-Shopping District



생산과 소비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패션 디자인 단지 전통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혼재된 동대문시장은 31개 대형상가에 3만여 점포, 15만 명에 이르는 패션인이 종사하고 있다. 의류 재래시장을 넘어 국내 패션의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중국 광저우 도매시장, 미국 LA 자바시장, 인도 사다르 바자르, 브라질 브라스 도매시장과 함께 세계 5대 패션 클러스터 중 하나다.

동대문시장에서는 기획부터 생산,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중구 신당동과 종로구 창신동을 중심으로 봉제, 패턴, 완성 등 생산에 종사하는 장인의 기술과

동대문종합시장 상인의 원단개발 노력, 디자이너들의 탁월한 감각이 만나 지금의 패션타운을 완성했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전진기지로서 연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바이어가 찾는 세계적인 패션 상권이자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야간 운영이라는 특성도 동대문 패션 상권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현재는 온라인 패션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DDP 설립과 함께 패션 복합 문화기지로서의 확장도 꾀하고 있다.

Fashion Design Complex Wher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Carried Out in One Place

Dongdaemun Market, a mixture of traditional markets and modern shopping malls, has 30,000 stores in 31 large shopping malls and 150,000 fashion people are working there. Beyond traditional clothing markets, this place is regarded as the center of Korean fashion and is one of the world's top five fashion clusters along with Guangzhou Wholesale Market in China, LA Jobber Market in the US, Sadar Bazaar, India, and Brass Wholesale Market in Brazil. In Dongdaemun Market, planning, production, and sales are carried out in one place. In Particular, the skills of artisans engaged in production such as sewing, patterning, and finishing, centered on Sindang-dong, Jung-gu and Changsin-dong, Jongno-gu, the efforts of

merchants in Dongdaemun Market to develop fabrics, and the excellent senses of designers are combined to complete the current fashion town. Today, it has grown into a world-class fashion commercial district and tourist attraction visited by more than 8 million tourists and buyers annually, as an outpost from China, Japan, Taiwan, and Southeast Asia. In addition, the environment in which products reflecting the latest trends and consumers' needs can be quickly supplied and the unique advantage of night operation have also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ngdaemun Fashion District. Currently,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online fashion market, an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DDP, it is also seeking to expand as a cultural complex for fashion culture.





365일 멈추지 않는 패션 산업의 심장

동대문시장은 좁게는 종로5가의 동대문시장과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쇼핑타운 등 종로5가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게는 광장시장에서부터 종로5·6가 일대, 청계천 이남의 을지로 신당동 일대 신평화시장, 남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등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동대문시장의 시작은 한국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오개시장으로 알려졌던 동대문시장은 기와건물로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있어 영업이 끝나면 문을 닫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동대문시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한 피란민이 모여들어 생활 필수품을 팔거나 군용물자나 외래품 암거래를 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현대적 패션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트프라자, 누존, APM 등 현대식 도매상가들이 연속해서 세계 유일의 야간 패션 시장을 오픈하고, 경쟁적으로 디자인을 강조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을 국내외에 공급하여 동대문패션의 전성기를 열었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는 상권 서쪽에 밀리오레, 두타, 헬로APM과 같은 패션 전문 복합쇼핑몰이 문을 열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넘치는 문화공간 역할까지 맡고 있다.

The Heart of the Fashion Industry That Never Stops 365 Days a Year

Dongdaemun Market narrowly refers to the area from Jongno 5-ga to Dongdaemun, including Dongdaemun Market in Jongno 5-ga, Dongdaemun General Market in Jongno 6-ga, and Dongdaemun Shopping Town.

However, when thinking comprehensively, it also includes Gwangjang Market, Jongno 5 and 6-ga, and also Shinpyeonghwa Market, Nampyeonghwa Market,

Dongpyeonghwa Market, and Cheongpyeonghwa Market around Sindang-dong, Euljiro, and south of Cheonggyecheon.

The beginning of Dongdaemun Market goes back to before the Korean War. Dongdaemun Market, known as Baeogae Market at the time, was a roof-tiled building with door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so they were closed when the business was over. During the Korean War, Dongdaemun Market was completely destroyed, but as time passed, refugees from everywhere flocked to it, selling daily necessities or trafficking military or foreign goods illegally, then the market gradually regained its vibrancy. Modern fashion commercial districts began to form in the late 1950s, and in the 1990s, modern wholesalers such as Art Plaza, Nuzzon, and APM successively opened the world's only night fashion market, and opened the heyday of Dongdaemun fashion by competitively supplying fast fashion with edgy design at home and abroad. Since the late 1990s, fashion-specialized shopping complexes such as Migliore, Doota, and Hello APM have opened in the west of the commercial district, serving numerous events as cultural spaces.



서울의 대표적인 의류 전문 시장
구분 대한민국 패션의 메카 | 설립 1990년대 | 규모 58만 5,700㎡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6길 12
The Most Famous Clothing Market in Seoul
Classification Mecca of fashion in Korea | Age Established 1990s | Quantity 585,700㎡ | Address 12, Jongno 36-gil, Jongno-gu, Seoul

시장
Market서울풍물시장
Seoul Folk Flea Market세월의 가치가 깃든 마니아의 공간
Space for Maniacs Who Appreciate the Value of Time

시장 Market 서울풍물시장 Seoul Folk Flea Market



세월과 상품이 만나 장인을 탄생시킨 디자인 메카 '서울풍물시장'은 새것보다는 '헛것'을 다루는 시장이다. 낡고 헌 물건이 모이는 시장의 특성은 세월을 거둬들이며 무엇이든 고치고 보관하는 장인을 탄생시켰다. 서울풍물시장의 초기 형태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 후 고물상이 밀려들어오면서 갖춰졌다. 1973년 청계천 복개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인근 삼일아파트를 중심으로 중고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전국에서 수집된 물건 중에는 종종 진품도 나왔다. 소문을 타고 전국의 골동품상과 수집가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황학동 도깨비 시장은 한때 130여 개의 골동품상이 밀집한 거리로 번성했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중고품 상점의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의 근대화에 발맞춰 거대 물품을 변화시켜 온 서울풍물시장은 2003년부터 중고품 유통의 중심지이자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인근에 자리잡은 동대문시장이 대규모 상업지구로 성장했다면, 서울풍물시장은 중고품 거래라는 고유의 개성을 고집한다. 고서와 골동품을 중심으로 카메라와 전자제품의 판매와 수리까지. 옛것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아는 이들이 여전히 서울풍물시장을 찾는다. 서울풍물시장은 현대화를 거치며 찾는 이의 편의를 고려한 현대식 상가 건물로 재탄생했다. 내부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무지개 색으로 품목별 공간을 분리하여 누구나 한눈에 어디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현대화된 서울풍물시장의 디자인 모티브인 만국기는 축제의 상징으로 모든 물건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풍물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영속성에 있다. 옛 디자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회귀한다. 세월의 낡음을 매꾸는 장인의 손길로, 오늘도 새로운 부흥을 기다리는 오브제들이 서울풍물시장을 지킨다.



Design Mecca Where Products Meet Time to Create Artisans

Seoul Folk Flea Market is a market for old things rather than new o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here all kinds of old and worn things gather brought out artisans who repair and store anything over the years. The early form of the Seoul Folk Flea Market was developed in the early 1950s, as second-hand dealers flocked in after the Korean Wa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vering Cheonggyecheon Stream project in 1973, a second-hand market was formed around the nearby Samil Apartment, and priceless items were often found among items collected from across the country. After hearing the words, antique dealers and collectors from all over the country continued to visit there.

Thus, Hwanghak-dong Dokkaebi Market once prospered with over 130 antique shops, but by the 1980s, the proportion of second-hand shops had increased. Since 2003, the Seoul Folk Flea Market, which has changed its trade items in line with the modernization of Seoul, has established itself as a tourist destination as well as a center for used goods distribution. If Dongdaemun Market, located nearby, has grown into a huge-scale commercial district, Seoul Folk Flea Market insists on its unique personality of trading second-hand goods. From collections of old books and antiques to sales and repairs of cameras and electronic products, those who know the potential value of these things still love to visit this place. Seoul Folk Flea Market has undergone modernization

and has been reborn as a modern shopping mall on account of the convenience of visitors. Inside, the space for each item is color-coded with rainbow colors of red, orange, yellow, green, green onion, indigo, and purple so that anyone can easily distinguish where and what products are sold at a glance. In addition, Mangukgi (flags of all nations) is the design motif of the modernized Seoul Folk Flea Market and it signifies a place where all objects are gathered as well as the festival. Above all, its potential lies in its permanence. In this market, old designs never goes away forever, but rather goes back in time. With the hands of artisans who make up for the wear and tear of the years, objects waiting for its second life still protect the market today.

서울의 과거 문화와 현대 산업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서울풍물시장은 많은 이름을 가진 시장으로 손꼽힌다.

벼룩을 잡듯 희귀한 물건을 모으거나, 물건에서 벼룩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는 의미의 '벼룩시장',

오래되고 망가진 물건도 감쪽같이 새것이 되는 '도깨비

시장', 구식이 되어버린 물건이 마지막으로 오는 '마지막

시장' 등. 그만큼 희귀한 고서나 음반, 각종 군사용품,

백색가전 등 쉽게 구하기 어려운 중고품이 눈에 띈다.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한 자리에서 수십년간

물건을 팔아온 상인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를

이어간다. 이처럼 서울풍물시장은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시장이자, 우리 고유의 정서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시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록됐다. 동묘라고 줄여서 부르는 동관왕묘

앞 벼룩시장도 가까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주말이면

입구부터 늘어난 좌판과 시장 골목 사이를 수많은 인파가

가득 채운다. 문화와 세월이 켜켜이 쌓여 형성된 도심 속의

독특한 문화장터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Market Where Seoul's Old Culture and New Industry Are Exchanged

Seoul Folk Flea Market is famous as a market with so many nicknames. “Flea market” means that people can catch rare items out of nowhere just like catching fleas, or items are so old that fleas are about to come out at any moment. The meaning of “*Dokkaebi* (goblins) Market” is that no matter how old and broken items are, they will magically become new there. “The Last Market” means that it is the last stop for outdated items. There, people can find rare old books, records, various military items, and used goods that are now hard to obtain, such as white goods. Those who know the genuine value of discarded items continue to trade based on credit with merchants who have been selling items for their whole lives in the very one place. As such, Seoul Folk Flea Market was registered as a Seoul Future Heritage

in 2013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a market with a unique atmosphere that sells eccentric products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markets, and a market with an important identity expressing Korea's unique emotions and footsteps. Because another flea market in front of Donggwanwangmyo, which is called *Dongmyo* for short, is also nearby, even now, on weekends, the crowds fill the alleys of the market from its entrance and can never find a moment to stop for a rest. It continues to live its life as a unique cultural market in the center of city which is form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ulture and time.



서울의 전통 시장

구분 전통 시장 | 설립 1950년대 초 | 규모 연면적 7,941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Traditional Second-hand Market in Seoul

Classification Traditional Market | Age Established Early 1950s | Quantity Gross area 7,941m² | Address 21, Cheonho-daero 4-gil, Dongdaemun-gu, Seoul

시장
Market

서울약령시

Seoul Yangnyeongsi Market

전통 한의학 명맥을 잇는 전국 최대 규모 한약재 유통 허브
The Largest Herbal Medicines Distribution Hub in Korea,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시장 Market 서울약령시 Seoul Yangnyeongsi Market



전통 의로 문화의 대중화를 열다

서울약령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재 유통시장이자 오감을 어루만지는 감각의 공간이다. 세계에서 한 점뿐인 고려불화가 전시되어 있는 거창박물관을 품고 있으며, 한의약 복합문화 체험시설로 박물관, 한방카페, 보제원, 족욕체험장, 한방뷰티숍, 약선음식체험관 등 건강을 테마로 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한약을 유통하는 시장에서 건강을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보제원은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한의사의 건강상담, 침 등 이동진료와 한방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약령시의 기원은 조선시대의 보제원에서 찾을 수 있다. 보제원은 대문 바깥에 위치해 관리들과 여행자들의 숙소로 활용되었던 사대원 중 하나였다. 사대원은 서대문 바깥의 홍제원, 남대문 바깥의 이태원, 광희문 바깥의 전관원, 그리고 동대문 바깥의 보제원을 말한다. 보제원(普濟院)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관이었다. 이곳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진료하고 약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보제원 주변에는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한약재를 가져와 파는 상인들이 많았다. 보제원을 염두해 두었기도 하고 동대문과 가까워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기 때문에 한약재 관련 인구가 모인 것이다. 이렇게 한약재를 파는 이들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이것이 서울약령시의 기원이 되었다.

Starting the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Medical Culture

Seoul Yangnyeongsi Market is the largest Korean medicine distribution market in Korea and a sensory space that stimulates the five senses. It embraces the Geochang Museum, which displays the only Goryeo Buddhist painting in the world. Also, as a complex

cultural experience facility for Korean medicine, it offers various health-themed entertainment, such as a museum, Korean herbal medicine cafe, foot bath experience room, Korean herbal medicine beauty shop, herb meal restaurant, and Bojewon. I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pace to enjoy healthy activities from a simple marker that distributes Korean herbal medicine. Among them, Bojewon has been an institution to help the poor since ancient times, and is currently being used as a space for health consultations by doctors of Korean Medicine, mobile medical treatment including acupuncture, and experience programs of Korean medicine. The origin of Seoul Yangnyeongsi Market can be found in Bojewon in the Joseon Dynasty. Bojewon was located outside the major gates of Gyeongseong city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one of Sadaewon which means the four major halls used as accommodations for officials and travelers. Sadaewon includes Hongjewon outside Seodaemun gate, Itaewon outside Namdaemun gate, Jeongwanwon outside Gwanghuidmun gate, and Bojewon outside Dongdaemun gate. As the name Bojewon (普濟院, meaning an institution rescuing the public) suggests, this was an institution for relieving the poor, so it offered medical services and distributed medicines for them. Consequently, many merchants brought herbal medicines from Gyeonggi-do or Gangwon-do and sold them around Bojewon. Moreover, it was a place where a lot of people came and went from the beginning since it was close to Dongdaemun. In this way, the herbal medicine sellers gathered and formed a market, then it became the origin of Yangnyeongsi in Seoul.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다

1960년 6월경 동대문구 제기동에 경동시장이 개설되었다. 시장 이름 그대로 서울의 동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주민의 농수산물들이 주로 거래되었지만 한약재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청량리역을 이용해 모여 들면서 한약재 시장이 경동시장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기존에는 경동시장 한약거리로 불리다가 1995년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약령시(전통 한약시장 지역)로 지정되고, 2005년 7월 2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국내 한약재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약령시는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 한약재 도소매점, 한약재 수출업체, 탕제원 등 1,000여 개의 한약 관련 업체와 노점상들이 운집해 운영되고 있다. 취급되는 한약재의 종류만도 약 250종으로 시중보다 20~40% 저렴한 시세로 거래된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이곳은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한약시장으로 꼽힌다. 한편, 서울약령시에는 지난 2006년 9월 한의학 관련 유물과 자료를 모아 전시실과 문화공간을 갖춘 한의학박물관을 개관했으며 1995년부터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의학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n Medicin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ound June 1960, Gyeongdong (meaning east of Seoul) Market was opened in Jegi-dong, Dongdaemun-gu. Just like its nam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from Gyeonggi-do and Gangwon-do, east of Seoul, were mainly traded, but as Koean medicine merchants gathered from all over the country using Cheongnyangni Station, the Korean medicine market was spontaneously created there.

Originally called Gyeongdong Market Korean Medicine Street, it was designated as Seoul Yangnyeongsi Market (traditional herbal medicine market are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1995, and designated as a Medicinal Herbs Industry Special Zone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on July 25, 2005. Seoul Yangnyeongsi Market, which accounts for about 70% of domestic herbal medicine trading volume, is home to more than 1,000 Korean medicine-related companies and street vendors, including Korean medicine clinics, Korean medicine stores, herbal medicine wholesalers and retailers, herbal medicine exporters, and herbal medicine brewers. The market deals with about 250 types of Korean medicines, which are traded at 20-40% cheaper than the market price.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it continues to grow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d is considered undoubtedly the best herbal medicine market in Korea. Furthermore, in September 2006, Seoul Yangnyeongsi Market opened the Herb Medicine Museum with exhibition halls and cultural spaces by collecting artifacts and resources related to Korean medicine, and since 1995, Herb Medicine Culture Festival has been held every fall.



국내 최대 한약재시장
구분 한약재 전문 유통처 | 설립 조선시대 | 규모 점포 수 800여 곳, 면적 23만 4,710㎡ |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
The Largest Herbal Medicine Market in Korea
Classification Specialized distributor of herbal medicines | Age Established Joseon Dynasty | Quantity Area 234,710m², over 800 stores | Address 10 Yangnyeongjungang-ro, Dongdaemun-gu, Seoul



Transportation



교통
Transportation

남산 케이블카

Namsan Cable Car

서울의 낭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수단
Iconic Tourist Attraction Symbolizing the Romance of Seoul

서울 남산 일대의 하늘길을 열어준 독창적인 교통수단 남산 초입에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남산타워까지 이어지는 남산 케이블카가 눈에 들어온다. 높게 치솟은 남산의 끝을 단숨에 날아오르는 케이블카는 40년 전, 등장한 이래 서울을 오가는 이들의 꿈과 추억을 담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석도공업주식회사가 회현동 승강장과 예장동 승강장을 준공하여 '은하수'와 '무지개'라는 이름을 붙인 두 대를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걸어서 올라가는 남산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한강, 남산자락의 시원한 경치는 오로지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서야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회현동 승강장에서 출발해 N서울타워 전망대까지의 거리는 편도 3분. 짧은 순간이지만 늘 빠르게 사랑받는 비결은 남산 케이블카가 보여주는 풍경이 특하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남산 둘레길 코스를 포함한 시내 전경이 한눈에 담겨서, 단풍이 물드는 가을과 벚꽃이 피는 봄, 빌딩 숲에서 번져 나오는 불빛이 물들이는 야경 등 시시때때로 다른 서울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Ingenious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Opened the Sky Road around Namsan Mountain in Seoul

When people enter the entrance of Namsan and look up at the sky, they can see the Namsan cable car heading to Namsan Tower. Since its first appearance 40 years ago, the cable car that takes people up to the giddy top of Namsan Mountain in an instant, has captured the dreams and memories of citizens in and around Seoul. Namsan cable car has been operated until now as Korea Ropeway Industry Inc.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Hoehyeon-dong platform and Yejang-dong platform and operated two units named “Milky Way” and “Rainbow.” The scenery of Namsan Mountain on foot is beautiful, but the panoramic view of Seoul's skyline, Hangang River, and the foot of Namsan Mountain is a special sight that can only be enjoyed by riding Namsan Cable Car. The distance from the Hoehyeon-dong platform to N Seoul Tower Observatory is only 3 minutes one way. The secret to being always busy and loved despite the short riding time is that the scenery from Namsan Cable Car is particularly beautiful. It provides a panoramic view of the city, including the Namsan Dulle-gil course, and presents different looks of Seoul, depending on the time of the day or the time of the year, such as yellow and red leaves in autumn, cherry blossoms in spring, and night views colored by lights from a forest of buildings.





서울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서울 시민의 교통수단이자 대표적 관광시설

남산 케이블카는 N서울타워와 함께 전통적인 데이트 코스로 손꼽히는 니들이 명소로 사랑받아 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로 1962년 5월 12일 운영을 개시했으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 전망대에서 소원을 적어 자물쇠를 걸고, 산책길로 내려와 남산 왕돈까스를 먹는 것이 일명 '남산 데이트 코스'로 불린다. 남산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진 산이다. 무학산, 북한산, 인왕산 등 도성의 북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른바 '내사산'과 함께 도읍지를 감싸고 있는 산이기 때문이다. 해발 262m의 남산은 오늘날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도심 속의 생태 공원'으로 서울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 남산을 오르면 N서울타워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를 360도로 둘러볼 수 있다. N서울타워는 1969년에 방송 송신탑으로 세워졌는데 높이 약 237m로 1980년대에 들어서 전망대로 개방했다. 이제는 남산 케이블카와 함께 '서울 관광'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The Transportation for Seoul Citizens and also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Flying across the Center of Seoul

Namsan Cable Car, along with N Seoul Tower, has been loved as one of the most popular spots for a traditional date course. It is the first passenger cable car in Korea, which started operation on May 12, 1962. Going up Namsan by cable car, writing down romantic wishes on a padlock at the observatory, locking it, going down the promenade, and eating Namsan pork cutlet is the good old "Namsan Date Course." Namsan Mountain was

considered especially important when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set up Hanyang as his capital, because it is a mountain that surrounds the capital along with "Naesasan", which means mountains surrounding and protecting the northern part of the capital like a folding screen, including Muhaksan Mountain, Bukhansan Mountain, and Inwangsan Mountain and so on. Today, Namsan, which is 262m above sea level, is still the heart of Seoul for Seoul citizens, and is also loved by them as an "ecological park in the city"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If people climb Namsan Mountain by cable car, their destination is N Seoul Tower. Here, they can look around Seoul in 360 degrees. N Seoul Tower was built as a 237m-tall broadcasting transmission tower in 1969, and reopened as an observatory in the 1980s. Now, together with the Namsan Cable Car, it has become a symbol that instantly comes to mind when people talk about "Seoul tourism."



남산과 시내를 이어주는 교통수단
구분 케이블카 | 시대 1962년 5월 12일 운행 | 규모 선로길
이 605m, 고저 차 138m, 운행속도 초속 3.2m | 소재지 서울
특별시 중구 소파로 83

Transportation Connecting Namsan and Downtown

Classification Cable car | Age Launched on May 12,
1962 | Quantity Area Track length 605m, height difference
138m, operating speed 3.2m/s | Address 83 Sopa-ro,
Jung-gu, Seoul

시각

Visual
Feature



시각
Visual
Feature

헤원풍속도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도시의 낭만을 담은 조선 후기 일상다반사
Routine Day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pturing the Romance of the City



黃園





조선 후기 한양의 대표적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혜원풍속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인 혜원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 〈월하정인〉 등 연작 풍속화 30여 점이 담긴 가로 28cm, 세로 35cm의 화첩이다. 신윤복은 화원 집안의 가풍 속에서 다양한 산수화와 초상을 남겼지만, 특히 풍속화에서 그만의 독특한 경지를 구축했다. 그중에서도 혜원풍속도는 주로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남녀 간의 애정과 도시 풍류의 낭만, 양반사회의 문화를 다룬다. 탁월한 색채 감각과 섬세하고 유려한 필선은 그가 드러내는 한양의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당시 신윤복은 엄숙한 기존의 화풍을 벗어나 자유롭고 독특한 소재를 감각적으로 담아 냈는데, 색채 역시 빨강과 파랑, 노랑 등 과감히 삼원색을 선택해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로 완성했다. 가름한 얼굴에 눈꼬리가 올라간 인물 표현은 선정적이고 몽환적이지만,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주변 배경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미술사 연구뿐 아니라 동시대 생활사와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특히 여성과 일상이라는 주제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고, 기존의 엄숙주의를 탈피한 그의 작품으로 인해 조선 후기 풍속사는 더욱 풍요로워졌다.

Outstanding Illustration Design of Han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is an album measuring 28cm in width and 35cm in height, which contains about 30 genre paintings in series, including Danoungjeong (meaning a scenery of the festival day in may) and Wolhajeongin (meaning lovers under the moonlight) by Hyewon Sin Yun-bok, a pain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Sin Yun-bok left a variety of landscape paintings and portraits according to his inherited customs of a painters' family, but he established his own unique

realm in genre painting in particular. Among them,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deals with affection between men and women, the romance of urban art and leisure, and the culture of noble society, mainly focusing on hallyang (upper-class playboy) and gisaeng (female entertainer). His excellent sense of color and delicate and elegant brush strokes effectively represent the refined and romantic atmosphere of Hanyang. At that time, Sin Yun-bok sensibly captured free and unique subject matters, breaking away from the rigid traditional painting style, and also selected his colors boldly in three primary colors, red, blue, and yellow, to complete a clear and bright image. The depiction of the character with the slender face and long-slanted eyes is sensual and dreamlike, but the surrounding background is realistically expressed to bring out the unique atmosphere. His works are valuable materials not only for art history, but also for contemporary life history and clothing history. In particular, he reached the peak in the subject of women and daily life, and his works that broke away from the existing solemn rules and orders made the history of customs in the late Joseon Dynasty more abundant.

조선시대 양반과 남녀의 사실적인 재현

신윤복의 풍속화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애정을 다룬 작품이 많다. 이는 조선의 성리학 이념에 반하는 일로, 양반 귀족의 사랑과 일탈을 풍자하며 시대의 내밀한 풍경을 드러낸다. 또 풍속화를 통해 사회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현실을 긍정하고 낭만적인 풍류와 해학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봉건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성 풍속을 과감하게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조선 후기 변화하는 사회의 징조를 포착한다. 남녀칠세부동석이나 내외법 등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엄격한 사회 규율은 그의 그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 조선 사회가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혜원풍속도에는 그림뿐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에 짙막한 글과 함께 낙관이 있지만 연대를 밝히지 않아 그의 화풍의 변천과정은 알 수 없다. 이 화첩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 전형필이 구입해 새로 틀을 짜고 오세창이 발문을 쓴 것으로 미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당시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신윤복 이후 사실적인 풍속화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기 때문이다.

Realistic Description on the Lifestyle of the Nob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Joseon Dynasty

Most of Sin Yun-bok's genre paintings dealt with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Since love affairs outside of conjugal relationship were not allowed in the Neo-Confucian ideology of the Joseon, he satirized the love and deviation of the noble class and revealed the secret landscape of the times. He also affirmed reality just as it was and focused on romantic and humorous lifestyle rather than accusing or criticizing society through genre paintings. He captured the signs of a changing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boldly revealing the sexual customs between men and women on canvas in the feudal atmosphere of the time. It is difficult to find in his paintings the strict social rules such as sex segregation or separation of the private sphere from the public sphere. This shows how freely the Joseon society was changing at the time, especially centered on limited classes. In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most of his works have short texts and signature stamps as well as paintings but the dates are missing. So the changing process in his painting style is unable to figure out. This album, which had been once leaked to Japan, was purchased and reframed by Jeon Hyung Pil in 1930 and Oh Sechang added an afterword there. It is highly-regarded not only as an exceptional work of art but also as an important resource that shows some aspect of society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Especially, it has a unique value because realistic genre paintings had virtually ceased to exist after Sin Yun-bok.



조선 후기, 한양의 풍속이 담긴 그림

구분 국보 제135호 | 설립 조선시대 | 규모 총 길이 928m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A painting Containing the Customs of Han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Classification National Treasure No. 135 | Age Joseon Dynasty | Quantity Total length 928m | Address Kansong Art Museum, 102-11 Seongsbuk-ro, Seongsbuk-gu, Seoul

시각
Visual
Feature

꽃담
Flower Wall

아름다운 문양에 담긴 선조들의 철학과 염원, 생활과 정서
Ancestors' Philosophy, Aspirations, Life, and Emotions in Beautiful Patterns



궁궐 곳곳에서 만나는 특별한 꽃담들

꽃담은 벽돌이나 전돌에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쌓거나 무늬와 색채를 사용해 미장바름을 한 담장을 말한다. 전돌은 흙으로 모양을 빚은 뒤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것으로, 건축의 기본 요소이자 구조와 장식 기능을 모두 갖춘 미술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궁궐의 꽃담은 전돌과 벽돌로 이룩한 옛 건축의 정수를 담고 있다.

전돌 자체에 무늬를 새겨 염원을 담기도 하고, 여러 전돌 모양과 색을 조합해 담장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다. 특히 궁궐에는 수많은 전각이 문과 담에 새겨져 있는데, 대부분 하나하나 새겨 만든 전돌을 활용했다. 용이나 봉황, 박쥐와 같은 동물은 물론 대나무나 매화, 포도와 같은 식물무늬도 찾아볼 수 있다.

꽃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 자경전의 꽃담과 십장생 굴뚝,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이다.

자경전은 경복궁의 침전이며 대왕대비가 거처하던 곳이다.

이곳 꽃담에서는 장수를 뜻하는 십장생과 고고한 기품을 상징하는 국화,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석류, 부귀와 화목을 바라는 모란 등이 새겨져 있다. 흙을 별도로 굽고 회벽에 박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은 고종이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여 제작했다. 굴뚝 기능과 더불어 장식미, 조형미가 뛰어나 조선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굴뚝으로 꼽힌다. 경복궁 아미산 굴뚝은 경복궁 교태전 뒤의 계단식 후원에 있는 육각형의 굴뚝으로 현재 4개가 서있다. 육각의 각 면에 당굴무늬, 학, 박쥐, 봉황, 소나무, 매화, 국화, 불로초, 바위, 새, 사슴 등의 무늬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한편, 창덕궁 회정당 굴뚝의 네 면에는 문자 장식과 함께 동쪽에는 성군의 치세를 상징하는 기린, 남쪽에는 영락을 상징하는 사슴, 서쪽에는 수복을 상징하는 학, 북쪽에는 강녕을 상징하는 코끼리가 새겨져 있다. 궁궐 건축에서 흔하지 않은 코끼리 문양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 창덕궁

낙선재 담장에는 거북이 등껍질 문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악귀가 그물에 걸려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Special Flower Walls Found Throughout the Palace

A flower wall refers to a wall stacked with byeokdol (bricks) or jeondol (customized bricks) which have beautiful patterns on, or plastered with various patterns and colors. Jeondol is a kind of brick, made by forming a shape with clay and then baking it at a high temperature. It is a basic element of architecture and also a work of art that has both structural and decorative functions. Therefore, the flower walls of the palaces of the Joseon Dynasty contain the essence of old architecture made of byeokdol and jeondol.

In some cases, jeondol was made by carving patterns with wishes on itself, and in other cases, various shapes and colors of jeondol were combined to create beautifully decorated walls. In particular, in palaces, numerous patterns are engraved on gates and walls, and most of them used jeondol that were carved individually in the production process. As well as animals such as dragons, phoenixes, and bats, plant patterns such as bamboo, plum blossoms, and grapes can also be found.

Among the flower walls, the most well-known are the flower walls and the chimney with Ten Longevity Symbols of Jagyeongjeon Hall and the chimneys in Amisan garden in Gytajeon Hall, all of them are in Gyeongbokgung Palace and designated as Treasures. Jagyeongjeon Hall is the residence of the Queen Mother in Gyeongbokgung Palace. On the flower wall here, ten longevity symbols

standing for longevity, chrysanthemums standing for lofty dignity, pomegranates standing for prosperous offspring, and peonies wishing for wealth and harmony are engraved. To build this wall, after baking clay separately into bricks and then they were embedded in the plastered wall. The chimney of Jagyeongjeon Hall in Gyeongbokgung Palace was built by King Gojong to pray for his mother's longevity. In addition to its ventilatory function, it is considered a beautiful chimney representing the Joseon because of its decorative and formative beauty. Amisan Chimney in Gyeongbokgung Palace is a hexagonal chimney located in the terraced garden behind Gytajeon Hall, and currently four of them are standing. On each side of the hexagon, patterns such as vines, cranes, bats, phoenixes, pine

trees, plum blossoms, chrysanthemums, plants of eternal youth, rocks, birds, and deer are harmoniously arranged.

On the other hand, the four sides of the chimney of Huijeongdang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are decorated with a giraffe symbolizing the reign of wise King in the east, a deer symbolizing glory and happiness in the south, a crane symbolizing longevity and luck in the west, an elephant symbolizing good health in the north, and graceful letters. Especially elephant patterns are quite unique and impressive because it is not a common pattern in palace architecture. In addition, a tortoise shell pattern can be found on the wall of Nakseonjae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whose intention is to get evil spirits caught in the net and to prevent them from passing through by.





우리 고유의 미감과 정서

꽃담은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담장 표면에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장식성을 극대화한다. 꽃담에서 문양을 표현할 때에는 문양이 새겨진 벽돌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벽돌을 이어 붙이거나 화초를 부조로 제작하고 합쳐서 설치하거나 기와 조각이나 자연석을 응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했다. 여기에 저마다 다른 재료와 표현 기법 등이 더해져 다채로운 꽃담을 완성했다. 전돌을 빚거나 무늬를 새기는 일은 흙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와 기술자가 맡았는데, 다만 무늬를 빚을 전돌의 밑그림은 화가에게 맡겼다. 완성된 전돌은 미장이가 하나하나 쌓아 삼화토로 메꾸어 완성했다. 특히 전돌의 모양과 배치를 이용해 구성한 꽃담은 미장이의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했다. 꽃담이 완성되면 표면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렇듯 벽돌공과 미장이, 화가, 기와장이 모두 참여해 만든다는 점에서 장인의 공동 작품으로서 가치도 지니고 있다.

Unique Sense of Beauty and Emotion of Korea

The flower wall maximizes decorative function by expressing patterns on the surface of the wall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fence to mark the boundary. When expressing a pattern on a flower wall, there were various methods such as repeatedly using bricks engraved with patterns, connecting and attaching bricks, making flower and plant patterns into reliefs and then assembling them, or applying roof tile pieces or natural stones. Here, different materials and expression techniques were added to complete unique and distinguished flower walls. Tile technicians who could skillfully deal with clay were in charge of making jeondol or carving patterns, but the rough drawing of the



jeondols to be patterned was entrusted to the painter. The finished jeondol were completed by the plasterer carefully stacking them up one by one and filling it flawlessly with white clay. In particular, the flower wall constructed using the shape and arrangement of jeondol required the advanced skills and experience of skilled plasterers. When the flower wall is completed, the work of coloring the surface continues. Like above, bricklayers, plasterers, painters, and tile makers all should participate and collaborate to make flower walls, so it also has value as a joint project of artisans.



전통 문양으로 치장하여 쌓은 담

구분 조선시대 패턴 디자인의 일환 | 설립 조선시대 | 규모 경북궁 자경전(보물 제809호), 경북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보물 제810호) 등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경북궁)

A Wall Decorated with Traditional Patterns

Classification Part of the Joseon Dynasty Pattern Design | Age Joseon Dynasty | Quantity Gyeongbokgung Palace Jagyeongjeon Hall (Treasure No. 809), Gyeongbokgung Palace Ten Longevity Symbols Chimney (Treasure No. 810), etc. | Address 161 Sajik-ro, Jongno-gu, Seoul

Performance

공연
Performance

송파산대놀이

Songpa Sandae Nori (Mask Dance Drama of Songpa)

풍자와 해학이 담긴 서울 유일의 탈놀이
The Only Mask Play in Seoul with Satire and Humor

공연 Performance 송파산대놀이 Songpa Sandae Nori (Mask Dance Drama of Songpa)





시대를 비추는 종합 공연예술과 공간 디자인

2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대놀이는 고려 말 사회 풍자 문화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 송파산대놀이가 이어져온 송파나루는 조선 후기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송파장이 서던 곳으로 놀이꾼은 대부분 시장이나 나루터에서 막일을 하던 이들이었다. 놀이는 주로 정월대보름이나 단오, 추석에 이루어졌다. 먼저 산대놀이 깃발을 앞세우고 풍물을 치고 탈춤을 추면서 마을과 장터를 돌아 무대에 선다. 탈을 벗어 고사상 앞에 놓고 탈고사를 지낸 다음 열 두 마당을 진행한다. 놀이는 놀이마당에서 진행하는데, 주로 마당 넓은 터에 등글게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쳐 원형 야외무대를 만들었다. 악사들은 명석을 깔고 광목 천막을 쳐 자리를 마련했다. 송파산대놀이는 다른 놀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산어멈, 신할멈, 무당탈 등이 남아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춤과 음악, 연극 요소가 융합한 탈춤은 전통 공연예술과 무형문화유산을 상징하는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악기 역시 장구와 북, 피리, 대금, 해금으로 구성되어 당악과 자진모리, 휘모리장단이 쓰인다. 등장인물은 계급 사회 속 인물의 성격을 과장한 탈을 쓰고 권력과 사회의 부조리, 인간의 이중성 등을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풍자한다. 여기에 관객의 동조와 야유가 섞여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완성하는 적극적 소통의 예술이기도 하다. 세계 유네스코 심사위원단은 탈춤이 문화적 전통으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Comprehensive Performing Arts and Space Design Reflecting the Times

Songpa Sandae Nori, which boasts a 250-year history, took root in Korea with the advent of social satire culture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Songpa ferry

point where Songpa Sandae Nori has been passed down, is where Songpa Market, the largest market in Korea, stood in the late Joseon Dynasty, most of the performers were those who worked at the market or at the ferry. The play was mainly performed on *Jeongwol Daeboreum* (first full moon of the year festival), *Dano* (spring festival), and *Chuseok* (Korean Mid-autumn full moon festival). First of all, with Sandae Nori flag placed at the forefront, performers played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erformed mask dances, while going around villages and markets to attract villagers' attention. After arriving at the stage, they took off their masks, placed them in front of the altar and hold a ceremony praying for a successful performance, then proceeded to the 12 stage of performance. Performances are held in the play yard. Mainly a circular outdoor stage was created by driving stakes in a circle on a wide site and tying ropes around it. The musicians laid mats and set up a cotton tent. Songpa Sandae Nori is highly valued as a cultural heritage as it has characters that have already disappeared in other plays, such as *Haesan oemom* (mother), *Shin halmom* (grandmother), and *mudang-tal* (shaman mask). Talchum (masked dance), a fusion of dance, music and theater elements, is also a comprehensive art that symbolize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ical instruments consist of janggu (double-headed drum), drum (barrel drum), piri (double reed oboe), daegeum (transverse bamboo flute), and haegeum (2-stringed fiddle), and dangak (moderate rhythm),

jajinmori (fast rhythm), and hwimori (even faster rhythm) rhythms are frequently used. The characters wear a mask that exaggerates the personality and identity of each character in a class society and satirizes absurdities of the power and society, or human duplicity in a stark manner. It is also an art of activ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that is completed by active participation of audiences by mixing their reactions of sympathy or rejection. The global UNESCO paid attention to the universal value that Talchum gives identity and continuity to its community as a cultural tradition, and registered it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현대까지 서울 지역에 전승되어온 문화유산

1973년 11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전승되는 탈놀이이다. 송파산대놀이가 성행한 데는 송파장터를 중심으로 한 부유한 상인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송파장이 쇠퇴한 이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1950년대 후반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지만, 송파산대놀이는 탈놀음 열 두 마당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고, 가면 수도 32개로 탈들이 거의 보존되어 있다. 그중 송파산대놀이에만 쓰이는 탈도 4개에 이른다. 보유한 춤사위 역시 40여 종으로 현존하는 탈춤 중 가장 많은 개수다. 서울놀이마당은 송파산대놀이 전승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발표장이기도 하다. 송파산대놀이보존회는 송파구를 비롯해 매년 국내외에서 꾸준히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또 역사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서울 지역주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체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존속의 위기 속에서도 서울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Cultural Heritage That Has Inherited in the Seoul Area Until the Present Day

Songpa Sandae Nori, which was designated as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49 in November 1973, is currently the only mask performance preserved and handed down in Seoul area. Wealthy merchants around Songpa Market played a big role in the success of Songpa Sandae Nori. However, after Songpa Market declined due to the great flood in 1925, it barely maintained its existence and began to be restored in the late 1950s. Although it was once in danger of being discontinued, Songpa Sandae Nori has been handed down 12 stages of performance without missing, and almost all masks, which is 32 masks, are preserved. Among them, Four masks masks that are only used in Songpa Sandae Nori. It also has over 40 types of dance movements, which is the largest number among existing mask dances. Seoul Nori Madang is a space for transmitting Songpa Sandae Nori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showcase for a wide range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cross the country. The Songpa Sandae Nori Safeguarding Association continues to perform at home and abroad every year, including in Songpa-gu. In addition, based on its historical excellence, it is also providing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activities for youth, local residents of Seoul, and the underprivileged. It is part of an effort to preserve the value of Seoul's cultural heritage even in the midst of a crisis.



전통 융합 공연 디자인
구분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 설립 19세기 초 | 소재지 서울
시 송파구 삼학사로 136
Traditional Fusion Performance Design
Classificati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49 | Age early 19th century | Address 136 Samhaksa-ro,
Songpa-gu, Seoul

정보

Information



정보
Information

아모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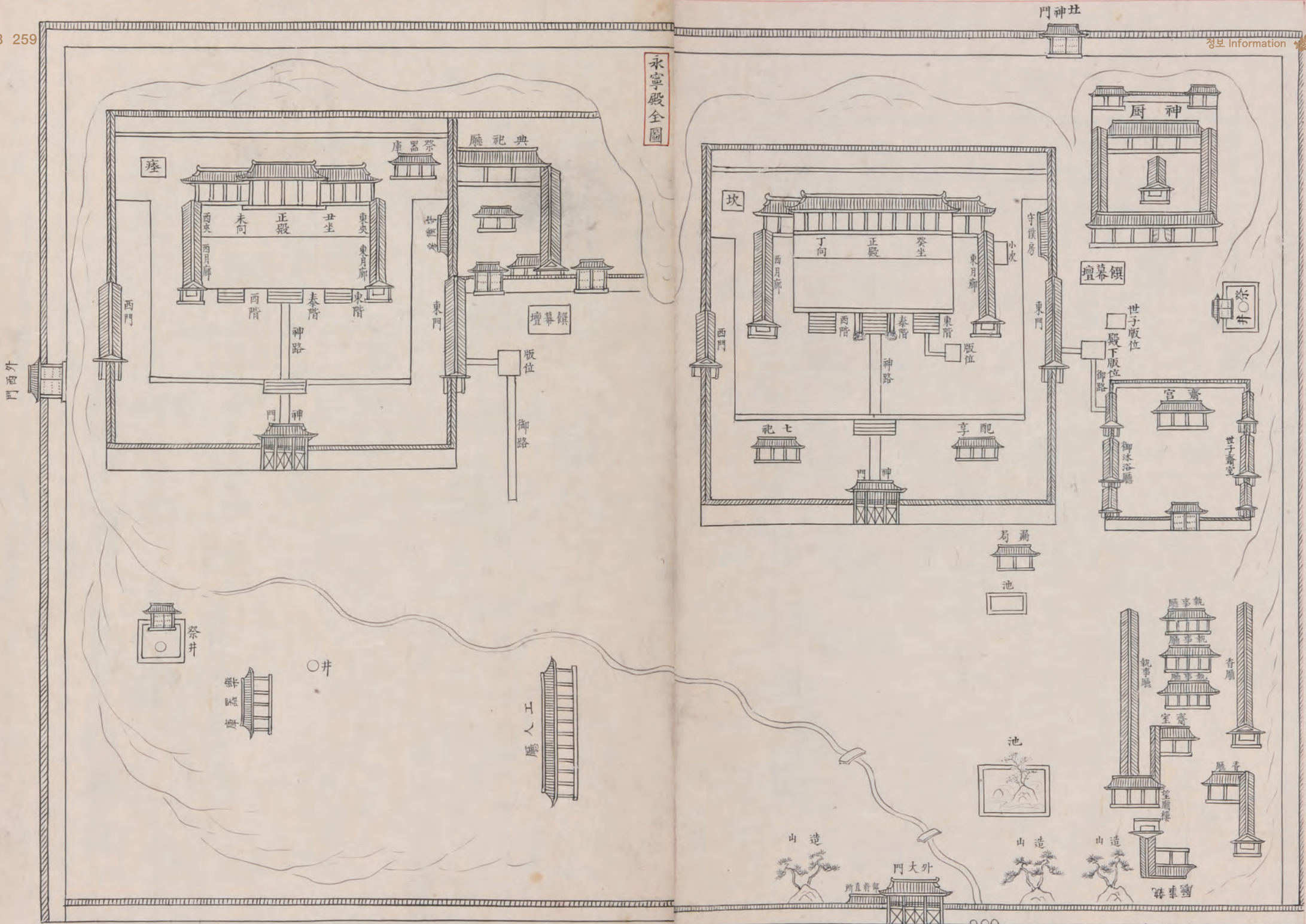
Jongmyo Uigwe:
The Royal Ancestral Shrine Rituals of Jongmyo

국가 행사를 세밀하게 담아낸 세계 유일의 독자적 기록문화
The world's Only Independent Documentary Culture
That Enscrolled National Events in Detail

宗廟全圖

宗廟內牆周圍東西七十步南址八十步
永寧殿內牆周圍東西五十六步南址五十二步

外牆周圍一千三百三十一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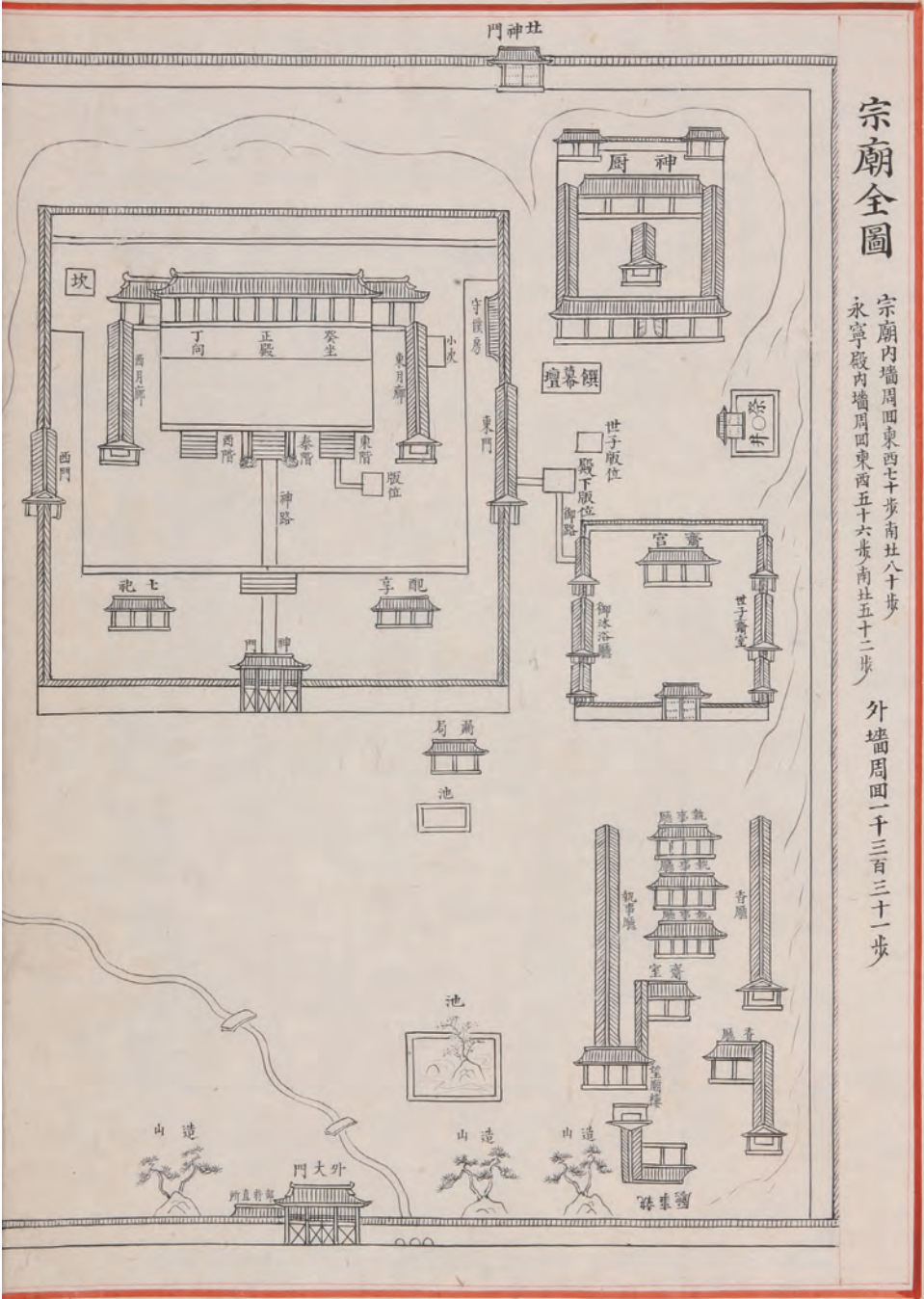


종묘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 보고서

종묘의궤(宗廟儀軌)는 종묘의 연혁과 제도, 각종 의식의 절차, 관련 행사 등에 대해 기록한 역사기록서로, 한마디로 종묘 관련 의례의 매뉴얼이다. 여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행사의 일원들이 행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추송, 제향, 친제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상세한 규정과 설명을 실었다. 세로쓰기로 적힌 조선시대 서체도 높은 디자인 가치를 지닌다. 임금이 보는 어람용은 해서체라고 하는 궁서체의 초기 모습으로 쓰였는데, 정확하고 바르게 읽히도록 붓으로 또박또박 적혀 전달력을 높였다.

Comprehensive Report Storing All Aspects of Jongmyo

Jongmyo Uigwe (宗廟儀軌) is a historical record that documents the history and system of Jongmyo, various ceremonial procedures, and related events. In short, it is a very thorough manual for Jongmyo-related ceremonies. For the people who organize various events or members of the event to hold the event smoothly and efficiently, it is divided into categories such as *chusung* (commemorating ceremony), *jehyang* (ancestral rite), and *chinje* (Royal ritual ceremony), and contains detailed regulations and explanations. The Joseon Dynasty fonts written in vertical writing also have high design value. *Eoram-yong*, the edition for kings, was written in the early form of Gungseoche font, called Haeseoche font (standard style), and its letters were so neatly written with a brush that it could be read easily and accurately.



오늘날까지도 매년마다 종묘에서 거행되는 전통 행사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왕실 사당으로,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오늘날까지도 종묘의궤를 바탕으로 한 종묘제례가 서울 종묘에서 이어지고 있다. 종묘제례를 통해 후손은 조상의 영혼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도록 기원하고 음악과 무용, 노래를 바치며 후손의 안위를 빈다. 또 종묘의궤는 조선시대의 종묘제례는 물론, 이때 취주했던 종묘제악(宗廟祭樂)의 악장(樂章)도 함께 수록하고 있어 높은 연구 가치를 지녔다. 영신(迎神)에서 시작하여 송신(送神)으로 끝날 때까지의 각 악장이 차례로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종묘의궤는 원집 4책, 속록 5책, 합 9책으로 구성된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규장각과 장서각에서 소장 중이다.

A Traditional Event That is Still Held Every Year at Jongmyo Shrine to This Day

Jongmyo Shrine is a royal shrine that enshrines the ancestral tablets of successive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honored kings and queens, and is the most refined and majestic building that symbolizes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Even today, the Jongmyo Jerye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based on the Jongmyo Uigwe is being held at Jongmyo Shrine in Seoul. Through the Jongmyo Jerye, descendants pray for the eternal peace of the souls of their ancestors and pray for the comfort of their descendants by offering music, dance, and songs. In addition, the Jongmyo Uigwe contains not only the ancestral rites of the Joseon Dynasty but also the music performed at that time, called Jongmyo Jeak, which has another high academic value. Starting with Youngshin (greeting the spirits) and ending with Songsin (sending off the spirits), each movement is introduced in detail in turn. Jongmyo Uigwe consists of 4 volumes of the original text, 5 volumes of supplementary text, so there are 9 volumes in total. It was register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07, and is owned by Kyujanggak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Jangseogak in Academy of Koean Studies.



조선왕실의 의례 기록서

구분 조선시대 종묘에 관한 역사기록서 | 설립 1706년(숙종 32) | 규모 원집 4책, 속록 5책, 합 9책 | 소장처 규장각, 장서각

Document on the Joseon Royal Rituals

Classification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Jongmyo during the Joseon Dynasty. | Age 1706(the 32nd year of King Sukjong) | Size 4 volumes of the main text, 5 volumes of supplementary text, total 9 volumes | Address Kyujanggak and Jangseogak

奎章閣圖書	
分類記號	
圖書部號	14220
一編冊數	4
內別冊號	1
서울대학교	

정보
Information규장각
Gyeongguk최초의 왕실도서관이자 국왕의 싱크탱크
The First Royal Library and the King's Think Tank

우리나라 최초 대규모 도서관의 원형

규장각(奎章閣)은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으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하던 곳이다. 역대 도서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중심 기관인 셈이다.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하던 해 신설되었다. 정조는 학문의 진흥을 통해 의리(義理)를 밝히고 흐트러진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은 규장각 설립으로 이어졌다. 즉위 직후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우고 각신(閣臣)을 등용해 근신(近臣)으로 우대하면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통한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원래 규장(奎章)이란 말은 임금의 글을 지칭하므로 규장각은 임금의 어제, 어필 등을 보관하는 서고다. 정조 5년(1781)에 규장각 제도가 완성되었으니 이는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문화적 기구를 마련했던 것이다. 규장각은 방대한 지식을 보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자료를 통해 보다 나은 정치적 토대를 세우고자 했다. 정조는 당시 왕권을 위태롭게 하던 음모와 횡포를 잠재우는 방법은 바로 학문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규모로 도서를 수집하고 간행했다. 따라서 규장각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서적을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며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 대규모 도서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학술, 연구, 도서 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던 복합 도서관의 성격을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더불어 정유자, 한구자 등의 새로운 금속활자 10여만 자를 주조해 수천 권에 달하는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 기능을 수행했고 방대한 서책을 보관하여 당시 편집 디자인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다. 규장각의 부속 건물로 도서를 보관하던 서고, 열고관, 개유와는 모두 헐렸고 현재는 창덕궁 후원에 주합루, 희우정, 천석정, 서향각이 남아 있다.

Korea's first and prototypical large-scale library

Gyujanggak was the royal library of the Joseon Dynasty and was used for academic and political research. In other words, it is an academic-centered institution that collects and systematically studies books of the past. Gyujanggak was newly established the year King Jeongjo ascended the throne. King Jeongjo established Gyujanggak because he believed that promoting learning would discover ideologic righteousness and reform the disheveled politics. Immediately after ascending the throne, King Jeongjo established Gyujanggak in the back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and appointed Gaksin (officials in Gyujanggak) and treated them preferentially as Geunsin (officials around the king). King Jeongjo tried to promote reform politics through competent officials fully equipped with Neo-Confucian knowledge. Originally, the word “gyujang” refers to the king’s writings, so Gyujanggak also stores the king’s writing and epistles. Since the Gyujanggak system was completed in the 5th year of King Jeongjo (1781), it actually became a influential political and cultural organization. Gyujanggak did not stop at storing vast amounts of knowledge, but sought to establish a better political foundation through this data. King Jeongjo thought that knowledge was crucial and necessary to put an end to the conspiracies and tyranny that endangered the kingship at the time. So he collected and published books at the national level to solve real problems. Therefore, Gyujanggak can be said to be the prototype of Korea’s first large-scale library, in that it not only systematically classified and stored a vast amount of



diverse books, but also managed and used directly by the king. It shows the character of a complex library that systematically carried out its roles such as political and academic research as well as book storage, and inspires even today's library operations. In addition, it published thousands of books and cast 100,000 new metal types such as Jeongyuja font and Hanguja font, and it became another heritage that shows the prototype of editorial design at the time by publishing and storing a vast amount of books. Seogo, Yeolgwan, and Gaeyu, which were attached to Gyujanggak, and storing books, were all demolished, and now Juhamnu, Heewoojeong,

Cheonseokjeong, and Seohyanggak remain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서울에 자리한 방대한 콘텐츠 수장고

규장각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부침을 겪었다. 내각과 외곽 체계로 개편하여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두었다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의궤를 약탈했던 일도 있었다. 정조 사후에는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만 담당하다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폐지되고 그 자료는 모두 조선총독부로 이관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경성제국대학교 도서관을 거쳐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규장각도서 중 국보급 자료 8,657책이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환도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도 했다. 1957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규장각 도서도 함께 옮겨졌으며, 이때 경복궁 회랑에 있던 교서관 소장 목판 1만 7,800여 장이 함께 옮겨졌다. 199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 건물을 완공하고, 1992년자료 보관과 학술 연구기관으로 다시금 규장각의 제 모습을 되찾았다. 2006년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재탄생하며 학술교육부, 자료관리부, 보존과학부, 국제한국학센터 등의 부서를 갖추고 역사자료의 보존은 물론, 한국학 연구 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정조 시대에 설립한 규장각의 정신을 계승하며 국학 연구의 중심으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Vast content storage in Seoul

Gyujanggak went through ups and downs along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For instance, after its system was reformed and a part of it was transferred to Ganghwa Island, French troops who invaded Ganghwa Island during Byeonginyangyo (1866), plundered *Uigwe* (royal document on rituals) from the annex of Gyujanggak. After the death of King Jeongjo, it was only responsible for storing data, then was abo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ll the data were transferr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fter being moved to the library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for a short time, 8,657 books of national treasures among Gyujanggak books were moved to Busan due to the Korean War in 1950, and returned to Seoul after the reclaim of the capital by Korean army. Whe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ocated to Gwanak in 1957, the books of Gyujanggak were also moved, 17,800 woodblocks for printing owned by Gyoseogwan in



Gyeongbokgung Palace came along with them. In 1990, an independent building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completed to strengthe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Gyujanggak books, In 1992, Gyujanggak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as a data storage and academic research institute. In 2006, it was reborn as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ith departments such as the Academic Education Department, Data Management Department, Conservation Science Department, and International Center for Studies. Now,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s such, Seoul National University's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inherits the spirit of Gyujanggak, established by King Jeongjo, and is improving its status as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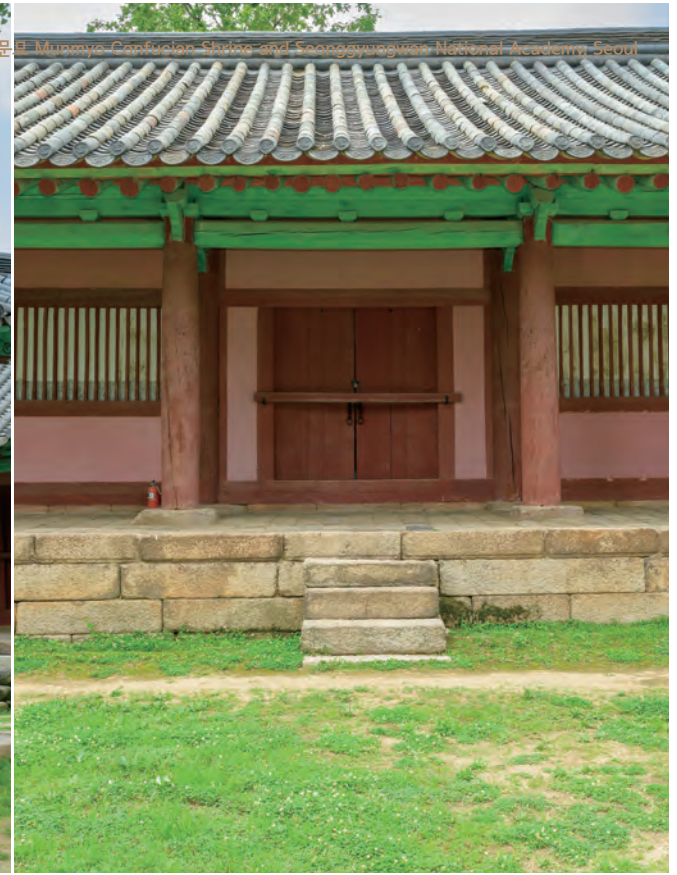
조선 왕실 도서관
구분 조선시대 콘텐츠 수장고 | 설립 1776년(정조 즉위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창덕궁),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서울대)
Royal Library in the Joseon Dynasty
Classification Content Storage in the Joseon Dynasty | Age Founded 1776 (the year of King Jeongjo) | Address 99 Yulgok-ro, Jongno-gu, Seoul (Changdeokgung), 1 Gwanak-ro Gwanak-gu,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보
Information

성균관과 문묘

Munmyo Confucian Shrine and
Seonggyungwan National Academy, Seoul왕립 교육기관의 철학이 담긴 공간 디자인
Space Design Embodying the Philosophy of
the Royal Institute of Education



제례와 유생 교육 기능이 잘 녹아 있는 공간 디자인

성균관은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 한양에 세운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다. 조선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천명하고 인재의 양성과 풍속의 교화를 본연의 임무로 삼았다. 성균관에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와 그의 제자 및 중국 역대의 유학자들과 신라 이후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봉사하는 사당인 문묘가 설치되었다. 제사 공간과 학문 공간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성균관과 문묘는 조선시대 유교적 교육이념을 잘 반영하는 건축 디자인으로 가치가 높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창건 당시 규모가 대성전과 명륜당을 비롯해 96채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도 20~30채가 남아 있는데 주로 성현을 배양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두 가지 기능을 했다. 따라서 건물 배치가 크게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봉안해

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묘와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명륜당과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사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대성전은 문묘뿐만 아니라 성균관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전국 최고의 대성전답게 규모와 건축형식이 우수하다. 대성전은 명륜당, 동무, 서무, 신삼문과 함께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대성전과 명륜당은 대체로 좌우 대칭인 반면 나머지 시설들은 지형과 동선을 따라 비대칭으로 이루어진다. 정면 3곳에 판문을 달고 나머지 삼면은 벽으로 처리하는 등 일반적인 묘(廟)의 건축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본체가 있는데 학생에게 강의하던 공간으로 바닥은 모두 마루로 지어졌다. 서울 문묘와 성균관은 조선시대 국가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 중 하나로서 지방 향교의 본보기로 꼽힌다.

Spatial design incorporating functions of ancestral rites and Confucian scholar education

Seonggyungwan, established in Hanyang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had been the best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Joseon declared Confucianism as the ruling ideology of the nation and made extraordinary efforts to educate promising students and correct social customs. In Seonggyungwan Munmyo, a shrine, was established to enshrine and serve the mortuary tablets of Confucius, the greatest Confucian scholar, and his disciples, as well as other Confucian scholars throughout China, Silla,

and Goryeo. Seonggyungwan and Munmyo are highly valued for their architectural design, which reflects the Confucian educational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in that they are both a space for ancestral rites and a space for academic research. Seoul Munmyo and Seonggyungwan consisted of 96 buildings, including Daeseongjeon Shrine and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nd 20 to 30 buildings remain today. It mainly had two functions: commemorating great scholars and educating students. Therefore, the layout of the buildings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Munmyo Confucian Shrine, centered on Daeseongjeon Shrine, which enshrines the mortuary tablets of Confucius

and other sages, Myeongnyundang Lecture Hall, where students take lectures, and Haksa, which has dormitory facilities. In particular, Daeseongjeon Shrine is the most central building not only in the Munmyo Confucian Shrine but also in the entire Seonggyungwan, and as the largest sanctuary in the country, it is excellent in scale and architectural style. Daeseongjeon Shrine was designated as a treasure in 1963 along with Myeongnyundang Lecture Hall, Dongmu and Seomu Shrines, and Main Gate. While Daeseongjeon Shrine and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re generally symmetrical, the rest of the

facilities are asymmetrical along the topography and circulation. It adopts the general architectural form of a tomb, such as doors attached to three sides of the front and walls being used on the other three sides. Myeongnyundang Lecture Hall has a main building with 3 front rooms and 3 side rooms. It was a lecture space for students with cozy wooden floors. Munmyo Confucian Shrine and Seonggyungwan National Academy, Seoul are the buildings that represent the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and are considered the ideal example of local Hyanggyo.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한양에 자리해 온 왕립 교육기관

성균관과 문묘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최고의 문묘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고등기관이자 최고학부로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고, 풍속으로서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주로 사립기관이었던 서원과는 달리,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갑오개혁 전까지 한양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해왔다. 성균관의 대성전 안에는 공자를 비롯한 성리학자 39인의 신위가 모셔져 있으며, 유교적 교육방법의 실천으로서 공자와 선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 '석전제' 또는 '문묘제례'라는 제사를 지낸다. 스승을 닮고자 하는 유교의 교육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묘제례는 동북아시아에 유일하게 남아있어 원형적 가치가 크다. 인생의 사표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제사 지내 도덕교육을 하는 조선의 교육이념을 오늘날에 생생하게 되살려 전하는 서울의 교육·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A Royal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Has Been Located in Hanyang from the End of Goryeo to the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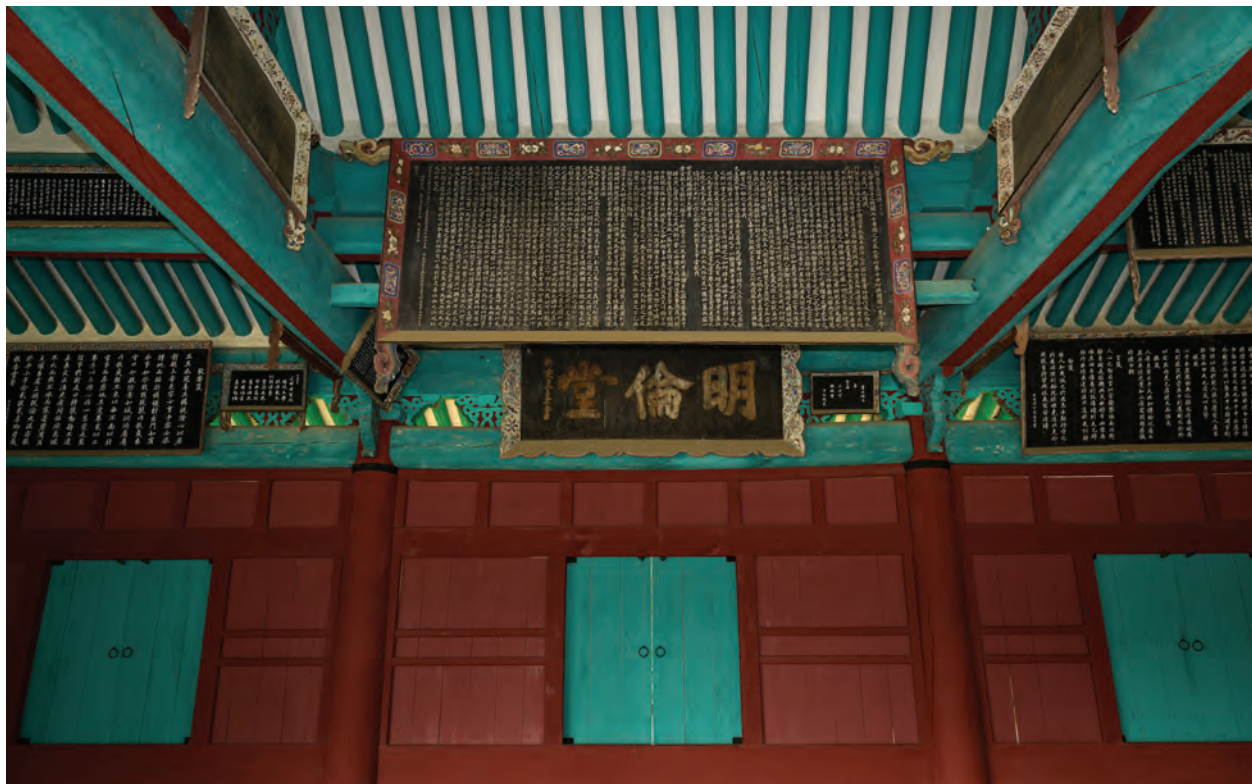
Most of the buildings in Munmyo Confucian Shrine and Seonggyungwan National Academy, Seoul have been preserved, revealing the best Munmyo Confucian Shrin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Joseon Dynasty. Seonggyungwan was the bes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the most elite college in Joseon, and the meaning of its name is "achieve what has not been achieved yet, and correct what is not neat as customs." Unlike Seowon, which was mainly a private



institution, it had been the best educational institution in Hanyang in that it fostered talented students who would lead the future with government funds until the Gabo Reform. The Munmyo Jerye, which symbolically shows Confucianism's educational philosophy to resemble its teacher, has great archetypal value as it is the only one left in Northeast Asia. It is an educational and cultural asset of Seoul that vividly revives and conveys the educational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which holds ancestral rites for moral education that takes great figures as the ideal model of life.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 교육기관
구분 사적 제143호 | 설립 고려 말~조선시대 | 규모 4만 89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
The Best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Classification Historic Site No. 143 | Age Established: Late Goryeo to Joseon Dynasty | Quantity 40,089m² | Address 53 Myeongnyun3-ga, Jongno-gu, Seoul



정보
Information양천향교
Yangcheon Hyanggyo

선현들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전통 교육의 장
A Place of Traditional Education
That Inherits the Spirit and Values of Ancestors





전통의 예법과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로 1411년(태종 11)에 만들어졌다. 향교는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관학 교육기관이다. 당초 양천향교는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향교로 자리하게 되었다. 서울에 속한 양천향교는 더욱 특별한 존재감을 자아낸다. 향교 그 자체로서의 역사성도 있지만, 서울의 확장이라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양천향교는 현재에도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석전대제’, ‘봉심’ 등 선현들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전통문화 행사가 꾸준히 열린다. 석전(釋奠)이란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27위(동양 5성, 송조 4현, 동국 18현)의 선현을 대상으로 춘추 길일(매년 음력 2월과 8월)을 택해 행하는 제례 의식이다. 이 석전은 양천향교 창건 이후 6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또,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과 서예, 사군자 등을 가르치는 등 양천향교는 전통 예법과 예절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천향교의 노력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우수한 무형의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A Place of Education That Teaches Traditional Manners and Etiquette

Yangcheon Hyanggyo is the only Hyanggyo remaining in Seoul and was built in 1411(the 11th year of King Taejong). Hyanggyo is a government educational institution created to educate Confucianism in the provinces. Initially, Yangcheon Hyanggyo belonged to Gayang-ri, Yangdong-myeon, Gimpo-gun, Gyeonggi-do, but on January 1, 1963, it was incorporated into Seoul due to a change in administrative district. So ironically, it became the only Hyanggyo located in Seoul. Yangcheon Hyanggyo, which belongs to Seoul, creates a more special presence because it has a historical value as a hyanggyo itself, but also contains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Seoul. Yangcheon Hyanggyo is still operating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teaches Confucianism. Traditional cultural events that inherit the spirit and values of our ancestors, such as ‘*Seokjeondaeje*’ and ‘*Bongsim*’, are held regularly. *Seokjeon* (釋奠) is an ancestral rite held in Hyanggyo for the 27 ancient sages including Confucius, on auspicious days in spring and autumn (February and August of the lunar calendar). This *Seokjeon* has been passed down unchanged for 600 years since the founding of Yangcheon Hyanggyo. In addition, by teaching Chinese characters, calligraphy, and drawing the Four Gracious Plants to local residents and students, Yangcheon Hyanggyo is silently fulfilling its role as an educational place for traditional manners and etiquette. Yangcheon Hyanggyo’s efforts are highly evaluated as excellent intangible designs that inherit traditional culture.

조선시대 교육기관 원형을 지키다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된 양천향교는

조선시대 창건하여 수세기 동안 황폐화되었다가

1981년 전면 복원에 나섰다. 현재 건물은

대성전·명륜당·전사청·동재·서재·내삼문·외삼문과

부속건물 등 8개 동이 남아 있다. 규모는 대성전 54m²,

명륜당 77.91m², 전사청 11.52m², 내삼문 11.97m²,

외삼문 18.63m², 동재 29.52m², 서재 29.52m²에

달한다.

양천향교 근방에 들어서면 먼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해 임금이 그의 집이나 마을 앞에 세우게 한

홍살문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향교 앞 외삼문은 세 개로

구성되는데 들어설 때는 동문, 나설 때는 서문을 이용하는

게 관례다. 가운데 외삼문은 제례 때만 개방된다. 또,

이곳은 궁산 아래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겸재 정선이 양천현감으로 있으면서 진경산수를 그릴

만큼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양천향교는 서울에 소재한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원형으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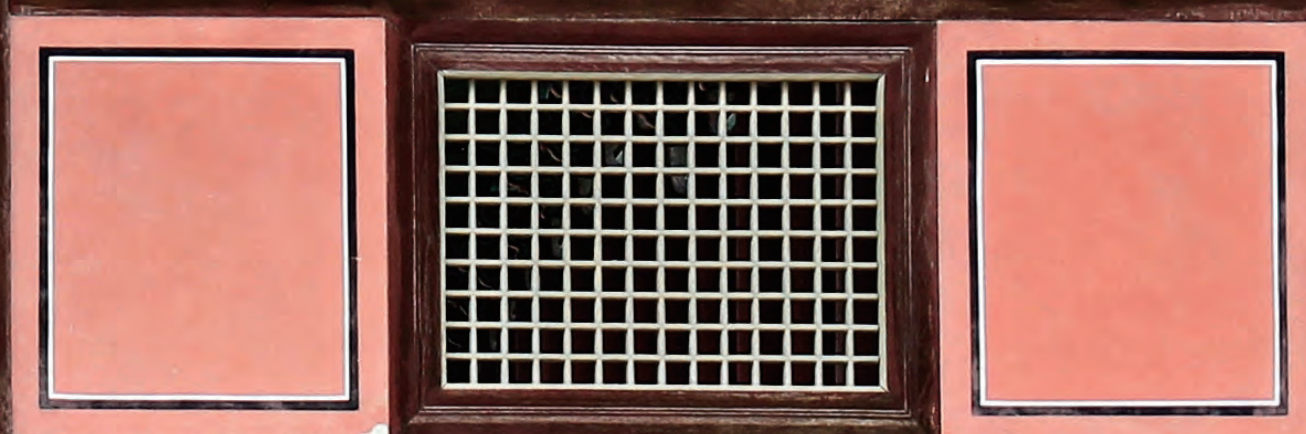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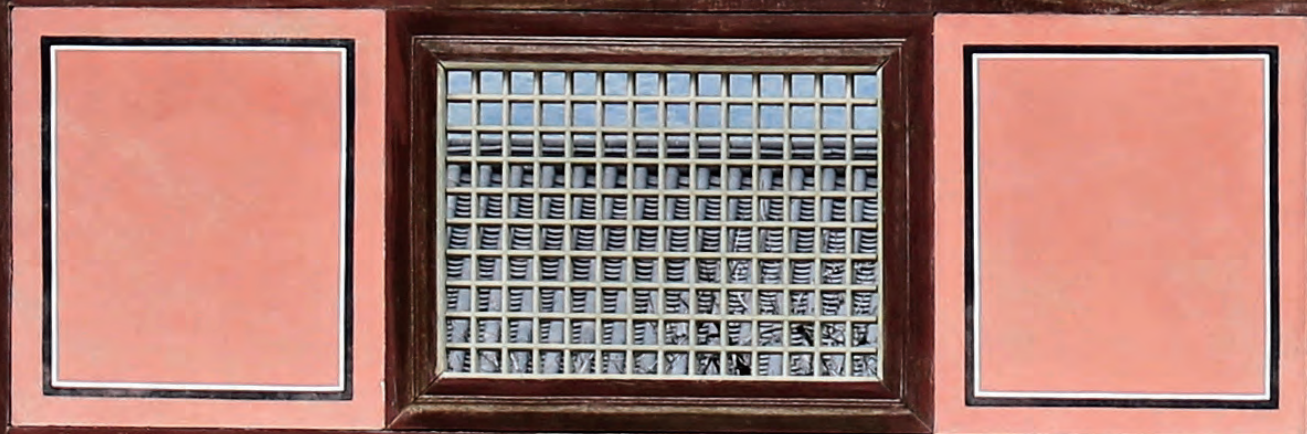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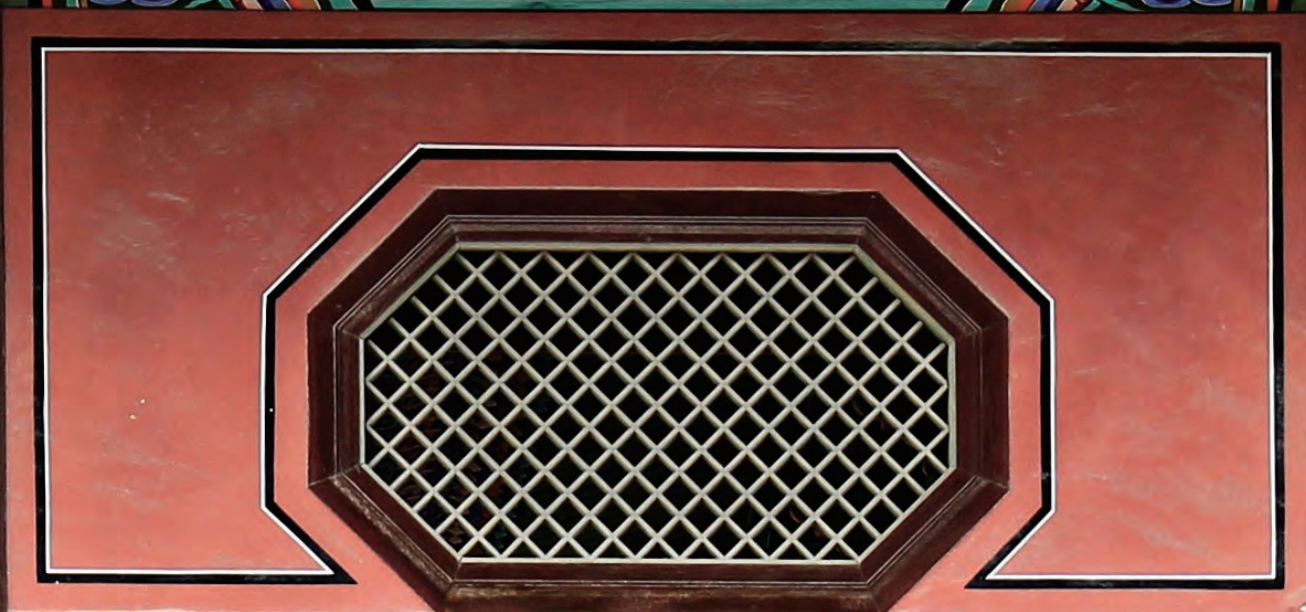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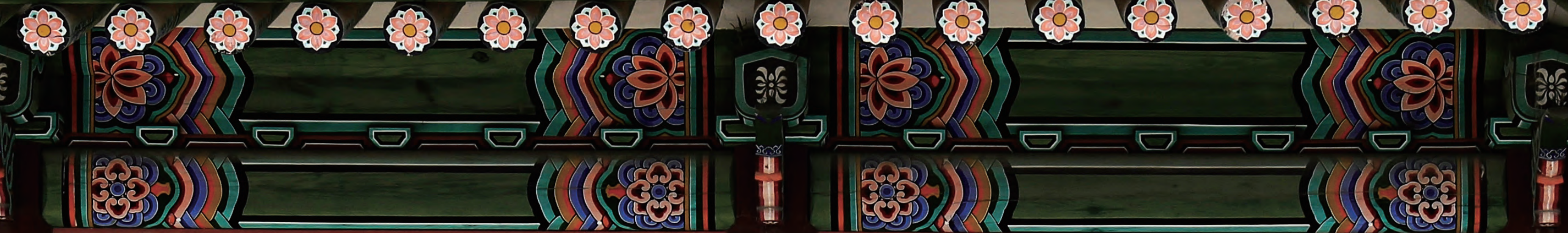
Yangcheon Hyanggyo, designated as a monumen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founded in the Joseon Dynasty but had been devastated for several centuries, then finally started a full-scale restoration project in 1981. Currently, it has eight buildings, including Daeseongjeon Hall, Myeongnyundang Hall, Jeonsacheong Hall, Dongjae, Seojae, Naesammun Gates, and Oesammun Gates, and annex buildings. The size of each building is Daeseongjeon Hall, 54m², Myeongryundang Hall, 77.91m², Jeonsacheong Hall, 11.52m², Naesammun Gates, 11.97m², Oesammun Gates, 18.63m², Dongjae 29.52m², and Seojae is 29.52m².

When you enter the vicinity of Yangcheon Hyanggyo, you can first see the Hongsalmun that the king had built in

front of his house or village to commend loyal subjects, filial sons, and virtuous women. And there are Oesammun Gates (three outer gates) in front of Hyanggyo, and it is customary to use the east gate when entering and the west gate when leaving. The middle gate is open only during ancestral rites. In addition, this place is located southward under Gungsan Mountain, and the scenery of this area was excellent enough to make Gyeongjae Jeongseon inspired to paint a true landscape while he is the governor of Yangcheon. Yangcheon Hyanggyo has great historical value as a prototype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located in Seoul in the Joseon Dynasty.



조선시대 교육기관
구분 서울의 교육 문화재 | 설립 1411년(태종 11) | 규모 1,782m²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나길 53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Joseon Dynasty
Classification Seoul's Educational Cultural Heritage | Age Established 1411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ng) | Quantity 1,782m² | Address 53 Yangcheon-ro 47na-gil, Gangseo-gu, Seoul









2009 서울디자인자산 선정 목록(51선)

2009 Seoul Design Asset (total 51)



01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서터스톡



02 경희궁 Gyeonghuigung Palace Site
문화재청



03 광화문 Gwanghwamun Gate
서터스톡



04 대학교 Daehakno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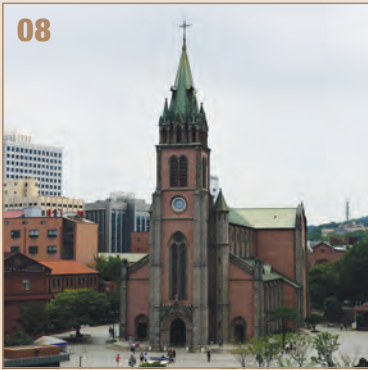
05 덕수궁 Deoksugung Palace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06 독립문 Dongnimmun Arch
문화재청 대변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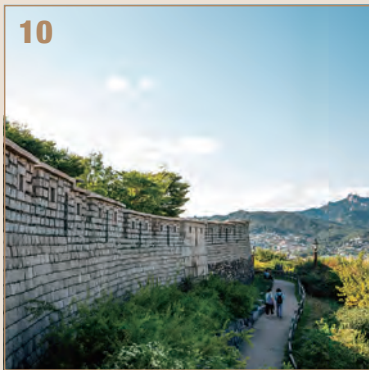
07 명동 Myeongdong
서터스톡



08 명동성당 Myeongdong Cathedral
문화재청



09 북촌한옥마을 Bukchon Hanok Village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0 서울성곽 Seoul City Wall
서터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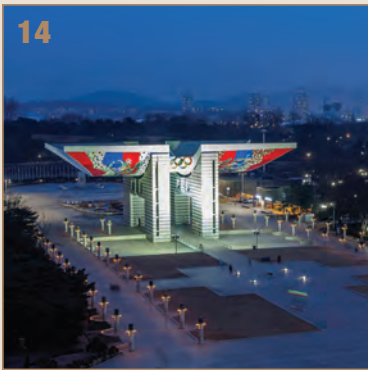
11 서울역사 Former Seoul Station Building
문화재청



12 선유도공원 Seonyudo Park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3 숭례문 Sungnyemun Gate
서터스톡



14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5 월드컵공원 World Cup Park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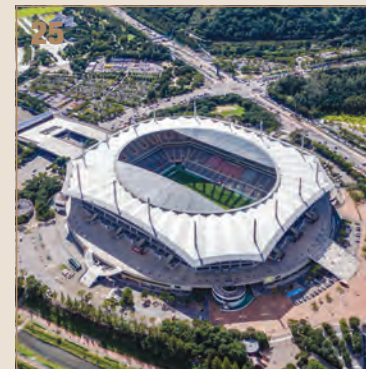
이태원 Itaewon
서터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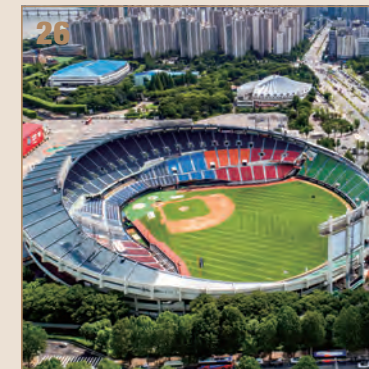
인사동 Insadong
서터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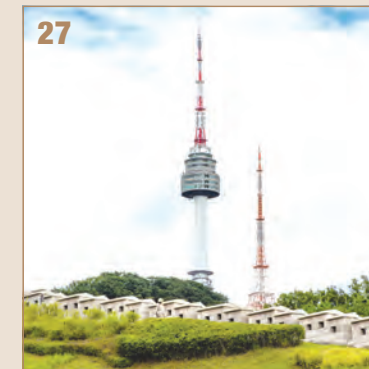
창덕궁 Changdeokgung Palace
문화재청



2002 서울월드컵경기장 Seoul World Cup Stadium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88 Seoul Olympic Main Stadium
서터스톡



N서울타워 N Seoul Tower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청계천 Cheonggyecheon Stream
서터스톡



탑골공원 Tapgol Park
서터스톡



한강 Hangang River
서터스톡



관복과 흉배 Embroidered Patches in Officials' Uniform
국립중앙박물관



궁중 매듭 Maedeup (Royal Knot work)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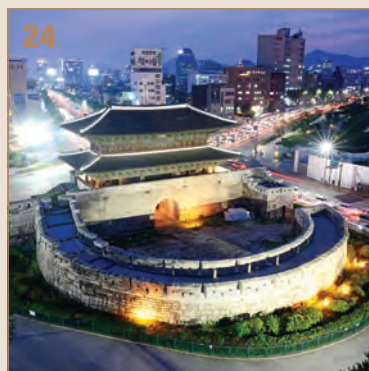
궁중보자기와 민중보자기 Royal and Ordinary Wrapping Cloths
국립고궁박물관



홍대앞 Hongdae-ap (Hongik University Area)
서터스톡



후원 Huwon
서터스톡



흥인지문 Heunginjimun Gate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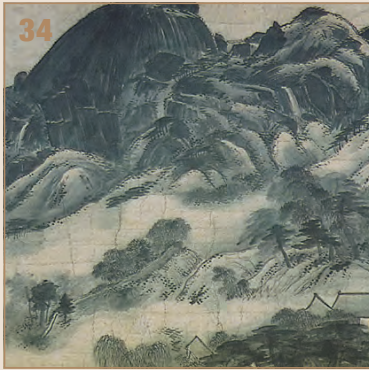
궁중음식 Royal Court Cuisine
국립무형유산원



한양 목가구 Hanyang Mokgagu (Wooden Furniture)
문화재청



할옷 Hwarot (Bride's robe)
국립중앙박물관



34
겸재의 한양진경 Gyeongjae's Paintings on Hanyang
문화재청



35
동궐도 Donggwoldo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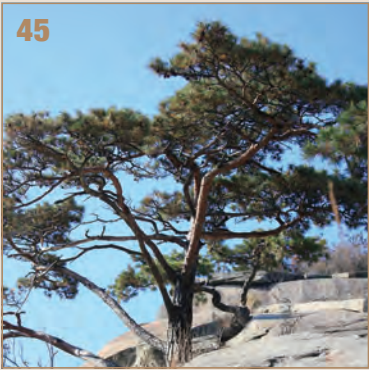
36
수선전도 Suseonjeondo
문화재청



43
사직단 Sajikdan Altar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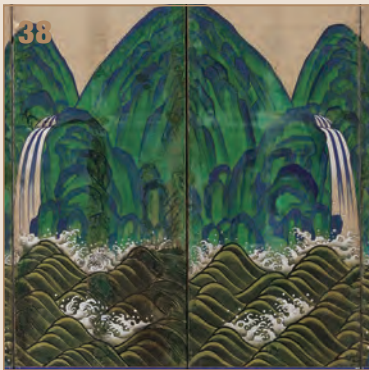
44
서울설화 Seoul Seolhwa (Folktales)
국립중앙박물관



45
소나무 Pine Tree
서터스톡



37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Jeongjo Daewang Weonhaeng
Banchado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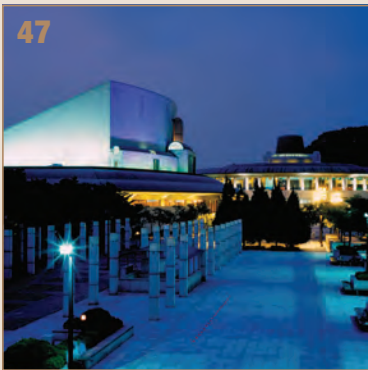
38
한양민화 Hanyang Minhwa
국립고궁박물관



39
훈민정음 Hunminjeongeum (The Korean Script)
문화재청



46
수문장 교대식 Royal Guard Changing Ceremony
서터스톡



47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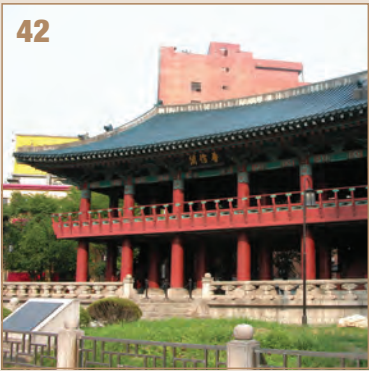
48
은행나무 Ginkgo Tree
서터스톡



40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서터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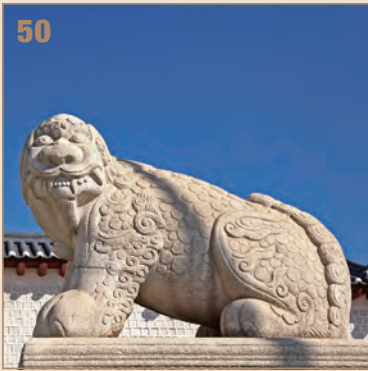
41
남산봉수대 Namsan Beacon Mound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42
보신각 Bosingak
문화재청



49
종묘-제례 Jongmyo Royal Shrine and Ritual Ceremony
문화재청



50
해치 Haechi
서터스톡



51
호랑이 Tiger
국립중앙박물관

색인

Visual Index



002
경복궁
서터스톡



004
한강
게티이미지



006
경복궁 꽃담
공간느루 손흥주



008
남산타워
서터스톡



024_01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6_01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6_02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7_01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7_02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8_01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9_01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29_02
운현궁
공간느루 손흥주



030_01
창경궁
공간느루



033_01
창경궁
공간느루



033_02
창경궁
공간느루



034_01
창경궁
공간느루



035_01
창경궁
공간느루



038_01
63빌딩
공간느루



040_01
63빌딩
공간느루



042_01
63빌딩
공간느루



043_01
63빌딩 외벽
공간느루



043_02
한강에서 바라본 63빌딩
게티이미지



043_03
한강 불꽃축제
게티이미지



044_0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간느루



046_01
DDP
공간느루



046_02
DDP
공간느루



047_01
DDP 외벽
공간느루



048_01
DDP
공간느루



048_02
DDP 계단
공간느루



050_01
구 공간사육
공간느루 손흥주



052_01
구 공간사육 전시
공간느루 손흥주



053_01
구 공간사육
공간느루 손흥주



054_01
구 공간사육
공간느루 손흥주



054_02
구 공간사육
공간느루 손흥주



054_03
구 공간사육
공간느루 손흥주



056_01
국립극장 전경
국립극장



058_01
국립극장 내부
국립극장



059_01
국립극장 전경
국립극장



060_01
해오름극장
국립극장



061_01
시공관
국가기록원



061_02
국립극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061_03
국립극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062_01
국회의사당
공간느루 신병곤



065_01
국회의사당
공간느루 신병곤



065_02
국회의사당
공간느루 신병곤



065_03
국회의사당
공간느루 신병곤



067_01
국회의사당
공간느루 신병곤



068_01
김포국제공항
게티이미지



070_01
김포국제공항
행림종합건축사무소



072_01
김포국제공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073_01
김포국제공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073_02
김포국제공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



074_01
대한의원
공간느루 손흥주



076_01
대한의원
공간느루 손흥주



076_02
대한의원
공간느루 손흥주



078_01
대한의원 시계탑
공간느루 손흥주



079_01
대한의원
공간느루 손흥주



079_02
대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080_01
롯데월드타워
공간느루



083_01
롯데월드타워
공간느루



084_01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공간느루



086_01
명동예술극장
공간느루 손흥주



088_01
명동예술극장 객석
공간느루 손흥주



089_01
명동예술극장
공간느루 손흥주



090_01
명동예술극장
공간느루 손흥주



091_01
명동예술극장
공간느루 손흥주



092_01
세종문화회관 전경
공간느루 이성우



094_01
세종문화회관
공간느루 이성우



094_02
세종문화회관
공간느루 이성우



095_01
세종문화회관 처마
공간느루 이성우



104_01
정동교회
공간느루 손홍주



119_01
코엑스
공간느루 이성우



126_02
한국은행 본관
공간느루 신병곤



139_01
남산골한옥마을
게티이미지



146_02
돈의문박물관마을 거리
공간느루 손홍주



164_01
독립문
공간느루 손홍주



179_01
서촌 골목길
공간느루 신병곤



095_02
세종문화회관 외벽
공간느루 이성우



107_01
정동교회 내부
공간느루 손홍주



119_02
코엑스
공간느루 이성우



126_03
한국은행 본관
공간느루 신병곤



139_02
남산골한옥마을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47_01
돈의문박물관마을 풍경
공간느루 손홍주



166_01
서대문 독립공원
공간느루 손홍주



179_02
통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096_01
세종문화회관
공간느루 이성우



107_02
정동교회 내부
공간느루 손홍주



119_03
코엑스
공간느루 이성우



128_01
환구단
공간느루 손홍주



140_01
남산골한옥마을
공간느루



148_01
세빛섬
서울시 홍보기획관



167_01
서대문 독립공원
공간느루 손홍주



180_01
익선동
공간느루 신병곤



096_02
세종문화회관 계단
공간느루 이성우



107_03
정동교회 외벽
공간느루 손홍주



120_01
코엑스 외경
공간느루 이성우



130_01
환구단
공간느루 손홍주



141_01
남산골한옥마을
공간느루



151_01
세빛섬
서울시 홍보기획관



168_01
서울숲
공간느루



182_01
익선동 카페거리
공간느루 신병곤



098_01
전쟁기념관 야간 전경
전쟁기념관



109_01
정동교회
공간느루 손홍주



121_01
코엑스 내부
공간느루 이성우



131_01
환구단
공간느루 손홍주



142_01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간느루 손홍주



152_01
세빛섬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70_01
서울숲
서울시 홍보기획관



183_01
익선동 한옥
공간느루 신병곤



100_01
전쟁기념관
게티이미지



110_01
청와대
공간느루



122_01
한국은행 본관
공간느루 신병곤



132_01
환구단
공간느루 손홍주



144_01
돈의문박물관마을 거리
공간느루 손홍주



153_01
세빛섬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71_01
서울숲
서울시 홍보기획관



183_02
익선동 한옥
공간느루 신병곤



101_01
전쟁기념관 야외 전사물
게티이미지



112_01
청와대
게티이미지



124_01
한국은행 본관
공간느루 신병곤



133_01
환구단
공간느루 조연주



144_02
돈의문박물관마을 풍경
공간느루 손홍주



156_01
덕수궁돌담길
공간느루



173_01
서울숲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84_01
익선동 한옥
공간느루 신병곤



101_02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전쟁기념관



114_01
청와대
게티이미지



124_02
한국은행
공간느루 신병곤



133_02
환구단
공간느루 조연주



144_03
돈의문박물관마을 풍경
공간느루 손홍주



158_01
덕수궁돌담길
공간느루



174_01
서촌
공간느루 신병곤



186_01
정동
공간느루 손홍주



102_01
전쟁기념관 수변공간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115_01
청와대
게티이미지



125_01
한국은행 본관
공간느루 신병곤



136_01
남산골한옥마을
공간느루



144_04
돈의문박물관마을 거리
공간느루 손홍주



161_01
덕수궁돌담길
공간느루



177_01
서촌 전경
공간느루 신병곤



188_01
국립정동극장
공간느루 손홍주



103_01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전쟁기념관



116_01
코엑스
공간느루 이성우



126_01
한국은행 본관 내부계단
공간느루 신병곤



138_01
남산골한옥마을
공간느루



146_01
돈의문박물관마을 거리
공간느루 손홍주







































162_01
서대문 형무소
공간느루 손홍주



178_01
서촌 골목길
공간느루 신병곤



189_01
정동근린공원
문화재청

	190_01 돌담길 공간느루 손흥주		207_03 남대문시장 공간느루 이성우		217_01 서울풍물시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25_01 서울약령시 전경 공간느루 이성우			241_03 혜원풍속도 국립중앙박물관		258_01 종묘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0_01 성균관과 문묘 공간느루 손흥주		281_01 양천향교 공간느루 조연주
	191_01 예원학교 공간느루 손흥주		208_01 동대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217_02 서울풍물시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28_01 남산케이블카 공간느루			242_01 경복궁 꽃담 공간느루 손흥주		260_01 종묘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2_01 성균관과 문묘 공간느루 손흥주		281_02 양천향교 공간느루 조연주
	194_01 이순신장군동상 공간느루		210_01 동대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218_01 서울풍물시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31_01 남산케이블카 게티이미지			245_01 경복궁 꽃담 공간느루 손흥주		261_01 종묘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3_01 성균관과 문묘 공간느루 손흥주		282 경복궁 셔티스톡
	196_01 이순신장군동상 공간느루		210_02 동대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219_01 서울풍물시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32_01 남산타워 공간느루			246_01 경복궁 꽃담 공간느루 손흥주		262_01 종묘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73_02 성균관과 문묘 공간느루 손흥주		284 남산한옥마을 셔티스톡
	199_01 이순신장군동상 공간느루		211_01 동대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220_01 서울약령시 공간느루 이성우		236_01 혜원풍속도 ©간송미술문화재단			246_02 경복궁 꽃담 공간느루 손흥주		264_01 규장각 공간느루 손흥주		274_01 성균관과 문묘 공간느루 손흥주		286 덕수궁돌담길 셔티스톡
	202_01 남대문시장 공간느루 이성우		212_01 동대문시장의 저녁 공간느루 신병곤		222_01 서울약령시 공간느루 이성우		238_01 혜원풍속도 ©간송미술문화재단			247_01 경복궁 꽃담 공간느루 손흥주		267_01 규장각 공간느루 손흥주		275_01 성균관과 문묘 공간느루 손흥주		288 정동 은행나무 셔티스톡
	205_01 남대문시장 공간느루 이성우		212_02 동대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222_02 서울약령시 공간느루 이성우		238_02 혜원풍속도 ©간송미술문화재단			250_01 송파산대놀이 (사)송파민족보존회		267_02 규장각 공간느루 손흥주		276_01 양천향교 공간느루 조연주		289 삼베 셔티스톡
	206_01 남대문시장 공간느루 이성우		212_03 동대문시장 공간느루 신병곤		222_03 서울약령시 공간느루 이성우		240_01 혜원풍속도 국립중앙박물관			252_01 송파산대놀이 (사)송파민족보존회		267_03 규장각 공간느루 손흥주		278_01 양천향교 공간느루 손흥주		
	207_01 남대문시장 공간느루 이성우		214_01 서울풍물시장 서울풍물시장		222_04 서울약령시 공간느루 이성우		241_01 혜원풍속도 국립중앙박물관			252_02 송파산대놀이 (사)송파민족보존회		268_01 규장각 공간느루 손흥주		278_02 양천향교 공간느루 손흥주		
	207_02 남대문시장 공간느루 이성우		216_01 서울풍물시장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24_01 서울약령시 약재들 공간느루 이성우		241_02 혜원풍속도 국립중앙박물관			255_01 송파산대놀이 (사)송파민족보존회		269_01 규장각 공간느루 손흥주		280_01 양천향교 공간느루 손흥주		

서울디자인자산 Vol. 2

발행일	2023. 09
발행처	서울디자인재단
발행인	이경돈 대표이사
선정위원	공순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김명석 카이스트 명예교수 김상태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수 김현중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류명식 해인기획 대표이사 박암종 한국사립박물관협회장 박영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인학 가인디자인그룹 대표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은병수 은카운슬 대표 디렉터 이순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장명희 한옥문화원 원장 정국현 조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홍석일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성명 가나다순)

사업기획	이경돈 대표이사 최구환 디자인진흥본부 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전략실 실장 엄아영 대외협력팀 팀장 남상훈 대외협력팀 책임 이경화 대외협력팀 선임
------	--

사업수행	오니트
편집	박채림
디자인	우인혜
자문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소라 서울대학교 규장각 박사
사진	공간느루
번역·감수	KAP

연락처	02-2096-0000
홈페이지	http://www.seoul设计.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활용시 재단과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발간등록번호 51-B552461-000013-01



Seoul Design Assets Vol. 2

Publishing	2023. 09
Published by	Seoul Design Foundation
Publisher	Rhee Kyung-don_CEO
Selection Committees	Kong Soon-Ku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Design Prof. Kim Myung-Suk KAIST Professor Emeritus Kim Sangtae NUCH Dept. of Traditional Architecture Prof. Kim Hyun Joong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 Ryu Myeongsik HainGragh CEO Park Arm Jong Korea Private Museum Association Director Park Young Soon Yonsei Univ. Emeritus Prof. Park In Hark GA-IN Design Group_President Yoon In-Suk Sungkyunkwan Univ. Emeritus Prof. Eun Byung-soo EUN Council Head Director Lee Soon-Jong Seoul National Univ. Emeritus Prof. Chang, Myung-Hee, Hanok Heritage Center, President Chung Kookhyun Cho Jae-Kyung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 Hong Sukil, Visiting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Yonsei Univ.

Project Planning	Rhee Kyung-don_CEO Choi Guwany Design Promotion Division Director Shin Grace Yoonjae Design Strategy Department General Manager Um Ayoung Global Relations Team Manager Nam Sanghoon Global Relations Team Project Manager Lee Kyeonghwa Global Relations Team Project Coordinator
------------------	---

Project Conductor	On-it
Editor	Park Chae Rim
Design	Wu In Hye
Consult	Kim Sang-kyu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 Kim Sora Ph.D.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NU
Photo	Space Nuroo
Translation	KAP

Contact	02-2096-0000
Website	www.seoul设计.or.kr

The copyright of
this publication belongs to
Seoul Design Foundation

©SeoulDesignFoundation

본 책은 친환경 용지로 인쇄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